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쓸/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7월 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29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사회복지

불교계가 IMF관리체제 하에서 실직노숙자 등 다수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종교적 사회참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평가받았다.

최근 기대가 높아지는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는 복지자원을 다원화하고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 동원의 양을 늘려 민간 사회복지 자원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는 종단별 산하 복지관과 본·말사 등 기초 단위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활동의 내용과 총량에 대한 구체적 조사(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 추진중)가 이뤄지지 못했을 정도로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복지 활동이 지속적이고 예방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불우이웃 돕기, 시설방문 지원 및 노력봉사 등 일시적이고 응급조치적 특성의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개선할 점이다. 입양이나 장애인 재활교육 등과 같은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각 불교 종단 산하 복지관 및 사찰 상호간의 정보교환이나 연계활동도 부족하다.

일회성 행사지양
자원봉사 활성화

전문가들은 불교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복지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불교적 포교 방편'이라는 사회복지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과 태도변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소한 종단 예산 규모의 10%를 사회복지비로 책정, 사회복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재원 및 예산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도들에게도 복지사업이 보살행의 구체적 실현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재정상태가 취약한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방안과 간병·장의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등 불교자원봉사의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중의 하나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교계 토론문화 정착

공청회-포럼 올 10여차례…예년의 두배

사부대중 의견 수렴…참여자 수준향상 '숙제'

불교계에 토론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중 열린 공청회와 포럼은 모두 10여차례. 여기에 조계사 성역화 공청회 등 7·8월에 예정된 공청회만 해도 3건에 이르는 등 사부대중의 의견수렴과정이 민주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98년과 97년에 열렸던 각종 공청회와 포럼이 각각 13회, 8회 정도였던 사실에 비춰볼 때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로 포교원은 신도관련 종법 제·개정안을 놓고 지난달 신도단체, 불교대학대표자, 본말사 주지를 대상으로 연이어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10일 종합공청회를 연다. 사찰환경보존위도 8월말 '환경친화적인 사찰 만들기' 공청회를 연다.

특히 공청회나 포럼이 종단이나 종책과 관련한 부분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조계종 복지재단이 교계 복지시설 전산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무자들을 초청해 지난달말 공청회를 열었으며, 불교도농공동체운동본부도 오는 9월 창립에 앞서 바람직한 운동방향을 목적으로 한 토론회 및 지역간담회를 8월말 열기로 했다.

이같은 토론문화는 민주적인 결정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다보니 난상토론이 돼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노출되고 있으며, 말그대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토론문화 정착에 대한 교계 전반의 평가점수는 후하다. 새시대불교포럼 대표 박승원씨는 "토론문화의 정착은 불교가 한층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원우·한명우 기자

'습의' 통일교본 조계종 발간키로

사찰마다 조금씩 다른 습의(習儀)를 통일하기 위한 종단차원의 습의교본이 발간될 예정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1일 해인율원에서 율원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계단의 중진스님들과 대중의 의견을 모아 통일된 습의교본을 발간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율원장 정기 연찬회 및 습의와 예참의 전승(습의사 파견)에 따른 지원 등 율원 육성정책도 논의됐다.

또 제17기 행자교육원에 습의사 3인을 파견하기로 하고, '습의사의 올바른 지도방법'을 주제로 한 습의사 간담회(8월9일 예정)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경 기자

원불교 종단협 재가입

고산스님 제안…이달중 양측만나 절차 협의

종단협의회 회장 고산스님(조계종총무원장)과 원불교 이광정 종법사 간에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 논의가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산스님은 6월 14일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 조정근 교정원장을 만나 "원불교가 종단협의회에 가입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16일 이광정 종법사(불교의 종정에 해당) 초청의 종교지도자 오찬장에서도 고산스님이 이 종법사에게 이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산스님의 이같은 제안은 KNCC와 천주교 서울교구를 방문하며 강조했던 종교간 화합을 실현키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고산스님은 두 곳을 방문해 "종교지도자들이 먼저 화합해야 국민들도 화합한다"고 말했다.

원불교 법무실은 "고산스님의 제안이 있었으며, 이 종법사가 교정원장 등에게 종단협의회 가입을 하명했다"고 말했다. 조계종총무원의 한 관계자도 "잘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불교 김성진 법무실장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타종교와도 손을 잡는데, 하물며 부처님 제자들끼리 힘을 합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종법사님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종단협의회와 원불교측은 이달 중 핵심있는 인사들이 만나 가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등을 상의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종단협의회의 회원 자격은 불교종단 및 법인단체이며, 총회의 의결로 회원이 된다. <관련 기사 3면>

정성운 기자



"우리 아이 좋은 곳에 가게 …"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고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강동교육청에 2일 태고종 사회부장 호명스님과 영산재보존회 스님 12명이 방문해 장엄염불을 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염불후 스님들이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자 유족들은 "우리 아이 좋은 곳에 가게 해 주세요"라고 울부짖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경내지 확대 수행환경권 보호"

조계종, 전사법 개정안 마련 문화부와 협의

건축법 8조4항(도시미관·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의 삭제에 따라 사찰의 수행환경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완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기획실(실장 만성)은 건교부가 건축법 재개정을 완강히 반대함에 따라 우선 전통사찰보존법(전사법)의 전통사찰보존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문화관광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기획실은 △전통사찰 보존구역을 '경내지'에서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의 보존 등을 위하여 전래의 통념에 따라 시·도지사가 당해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 정하는 구역'으로, △전통사찰 보존구역 내 금지행위에 '전통사찰 보존의 취지에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계종은 국회정각회 등을 통한 의원발의로 전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고승기념메달' 1차분 세트 출시

한국조폐공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제작 보급하고 있는 20세기 고승 여덟분의 기념메달 1차분 세트가 출시됐습니다. 500개 한정으로 출시되는 이 메달세트를 소장하셔서 큰스님들의 삶과 사상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한국조폐공사가 직접 디자인 조각해 품질보증하고 영구히 보존하는 메달입니다.
◇가격: 낱개 각 5만원 · 8분 세트 40만원(500개 한정)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 전화 (02)737-8881, 722-4162
◇은행계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279
농 협 053-01-236053

※고승 여덟분 세트는 부피가 장중한데다 안전하게 발송하기 위해 포장작업을 철저히 하는 관계로 당초 예정보다 3~5일 늦게 받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관련기사 4면>

구산선문 참선 기행

7월 : 동리산문(태안사) · 화엄사 · 천은사

7월에는 적인선사 혜철(785~861)에 의해 개창된 동리산문의 중심도량 태안사를 찾아갑니다. 천년의 세월 속에서도 청정 수도승들이 고귀한 숨결로 선법을 전해와 현재에도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태안사에서는 영누각인 능파각을 비롯해 적인선사조륜청정탑(보물 제273호)과 광자대사부도(보물 제274호)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과 사사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으로 유명한 화엄사에서는 불교의 으뜸 사상으로 꼽히는 화엄 사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지리산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천은사도 참배합니다.

◇출발: 7월 24일(토) 밤11시 ·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 일양약품 · 대한불교제과인회

생명나눔 7월 대법회 현혈·화장 유언 사후장기기증 서약
◇1차: 7월 11일(일) 오전 10시 통도사 옥련암
◇2차: 7월 17일(토) 오전 10시 서울 승가사
◇주최: (사)생명나눔실천회 ·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734-8050

향기가 있는 책! 느낌이 있는 책! 전혀 다른 책!
차한잔을 마시며 나누는 불교교리
정승석 지음 (동국대 교수)
신간!
사람들은 불교교리가 난해하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할 교리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
어디 이것뿐이랴. 세상살이의 매사가 그러하다.
자기가 꿈꾸어 온 인생의 목표라는 것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멀어져 간다.
좀더 낮추어 새로운 꿈을 그려 보지만
그것 역시 신통치 않다.
꿈과 현실은 다르다고 했던가?
꿈은 꿈대로, 현실은 현실에서 만족하는 것이 상책이다.
신국판 360쪽 / 값 7,5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최근 학술서 신간
근대고승 禪門撮要 編 / 이철교 역
선문촬요 禪門撮要
최초로 완역된 禪門撮要!
한국의 선사상을 일목요연하게 대표하는 禪의 古典!
신국판 번역편 값 23,000원/옥판 영인본 값18,000원
정승석 편(동국대학교 교수)
불전해설사전
종교의 중요한 경전과 인도의 고전, 그리고 중국·한국·티베트·일본의 불교문헌 등 총 308종의 중요 불교 문헌을 해설 신국판 값 17,000원
李道業 스님 저(동국대학교 교수)
화엄경사상연구
화엄경의 중요사상과 각 품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 정리한 국내 최초의 화엄경 연구서!
신국판 값 28,000원
조高저(동국대학교 교수)
유식학개론
까다롭고 어려운 유식학을 알기 쉽게 분석·정리, 설명한 유식학의 새로운 개론서!
신국판 값 5,500원
불교학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민족사 학술총서
인도철학과 불교의 실천사상 정태혁 / 35,000원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한기문 / 27,000원
한국 불교문학의 연구 이진오 / 19,000원
한국 불교사상의 전개 한충빈 / 18,000원
원효의 화쟁논리 佐藤繁樹 / 25,000원
신라불교 여래장사상 연구 이평래 / 15,000원
불교사상사론 김영태 / 25,000원
무아윤회문제의 연구 윤호진 / 9,000원
신라불교사상사 연구 김영미 / 14,000원
진정국사와 오산록 허흥식 / 15,000원
신라 초기불교사 연구 신중원 / 8,500원
신라 화엄사상사 연구 김상현 / 8,000원
한국근대불교사연구
한국근대불교의 현식인식
두 권 모두 1900년대 초 개화기와 식민시대, 그리고 해방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대불교의 면면들을 상세히 연구한 책이다. 김광식 저 값19,000원 / 값 15,000원
의상화엄사상사 연구 전해주 / 8,500원
대승기신론사상 연구 박태원 / 8,500원
인도의 여원론과 불교 정승석 / 8,000원
한국불교 승전문학의 연구 김승호 / 8,000원
신라 선종의 연구 정성본 / 12,000원
고려무인정권과 불교계 김광식 / 12,000원
해달음, 조오럴수련기 조오돈수편기 강건기 외 / 9,000원
중국선종의 성립사 연구 정성본 / 20,000원
삼국사기 전거론 이강래 / 15,000원
해동고승전 - 한역적 불타관 주석 - 장휘옥 / 14,000원
신라표원의 화엄학 황규찬 / 20,000원
화엄경문의 요결문답 김천학 / 22,000원
한국불교 고전명저의 세계
신라 원효의 大慧度經宗要에서 한말 龍岩의 東語列講에 이르기까지 고전 117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해설한 한국불교 연구의 기본서!
김영태 저 (동국대학교 고수) 신국판 값 14,000원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사 설

내 자식처럼 돌보았다면

우리 사회는 원칙을 고수하려는 사람을 마치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반면 원칙을 소홀히 하고 적당히 눈치보면서 일 처리하는 사람을 능력과 요령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다.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원칙을 무시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누구도 나무라지 않다가 일이라도 터지고 나면 이제까지 문제삼지 않았던 것들이 봇물처럼 허물로 쏟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도 사고가 났을 그때뿐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옛날의 습관으로 다시 되돌아가곤 한다. 바로 이런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이 오늘 우리 사회를 묶어 놓는 족쇄가 되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19명의 어린이와 4명의 인솔교사등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역시 우리가 안고 있는 고질병적 사회병리 현상인 원칙을 무시한 적당주의가 불러온 결과라 하겠다.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건에도 수련원 관계자, 인솔책임자 및 관계공무원들 모두의 철저하지 못한 책임의식과 요령 섞인 적당주의적 업무처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 다시 말해서 어른들의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한데서 새싹들을 애꿎은 죽음으로 몰아넣은 비극적인 인재(人災)였다. 만약 관계자들이 모두 내자식처럼 돌보고 챙겼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에도 예나 다름없이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발표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늘 그래 왔듯이 그 대책들이 구체적이고도 철저하게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결국 어린이들의 억울한 죽음만 남고 부모들 가슴에 무거운 상처만을 남긴 채 유사한 사고는 여전히 잠복되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의 철저한 직무수행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되어진다. 이익을 추구하는 업자들이야 가능하면 경비를 덜 들이고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할 것이 뻔한 노릇이니 그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은 관계공무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업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이익 챙기기나 안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감시감독 소홀에는 인명을 경시하는 무섭고 사악한 독소가 자리잡고 있다. 사람의 목숨은 어떠한 경우라도 목적일 뿐 수단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종종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곤 한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 도처에 깃들어 있는 인명경시의 병폐와 원칙을 소홀히 하는 적당주의는 반드시 치유되지 않으면 안된다.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건은 산너머 불로 바라볼 수 있는 남의 사건이 아니라 여름휴가와 방학을 맞아 각종 수련회나 불교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각 사찰에서도 사고 예방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찰은 건물 자체가 목조인 데다 일부 사찰은 화재경보시스템이나 소화장비를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개의 산중 사찰의 위치가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될지도 모른다. 만에 하나 산중 사찰에서의 화재가 날 경우 고귀한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물들이 소실되는 것이니 불교계는 여름 수련기간을 맞기 전에 더욱 더 철저하게 안전시설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여성불자 전국 조직화"

조계종 포교원 포럼정례화 토대 추진키로

'여성불자의 새로운 판을 짜자!' 빠르면 올 하반기내에 16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이끌어 온 여성불자를 대표하는 조계종 주축의 여성불자조직이 결성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6월 26일~28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107명의 여성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불자의 새 흐름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이 워크숍을 토대로 포교원은 여성불자들의 교육을 위한 여성불자 포럼을 정례화하는 한편, 포럼을 모체로 여성불자조직을 창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가자의 대다수(88%)가 여성불자포럼 참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여성불자조직 결성이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6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8.2%의 여성불자들이 여성단체 조직시 조계종과의 관계를 종단에서 후원하되 독립체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종단에서 여성과 관련 가장 시급히 해야 할 문제로는 '여성불자교육(40.3%)을 꼽았으며, 교육의 중심내용에 대해서는 정체성확립(49.3%), 불교수행법(16.4%), 리더십개발(14.9%)이라고 답했다.

또한 여성단체가 구성된후 수행해야할 사업에서도 68.2%가 교육사업이라고 답해 역시 교육에 대한 여성불자들의 높은 욕구를 실감하게 했으며, 관행 및 제도개선사업, 사회여성운동, 신행개선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워크숍 참가자들은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해주스님(동국대 교수)의 '불교에서 본 여성과 여성운동'을 꼽아 불교 여성운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포교원 포교부장 현진스님은 이번 워크숍을 "여성불자들의 잠재된 힘을 발현시켜나가는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흐름속에서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전국불교여성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9면>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고산스님, 청와대 민정수석과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6월 28일 신임인사를 위해 총무원을 방문한 김성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환담했다.

고산스님은 김 수석에게 "건축법 개정에 따라 사찰 주변에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사찰의 수행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찰수행환경 보존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고산스님은 또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복소장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법이 아니어도 시민의 양식으로 민족의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재가자 수선교본' 발행

조계종 포교연구실

재가자를 위한 참선수련용 교재가 나왔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화암)이 발간한 〈재가자 수선교본(修禪敎本)〉은 각 사찰의 재가자를 위한 참선법회나 단기(3박4일 정도) 참선수련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안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본문은 크게 '참선의 개요'와 '참선교육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으며,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조사선(祖師禪)과 묵조선(默照禪)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생활선을 지향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성보도난 사찰주지 징계 강화"

조계종 호법국장회의

조계종 호법부(부장 종고)는 6월 28일 교구본사 호법국장회의를 열고 성보도난 예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호법부는 성보도난 예방과 관련, "주지스님들이 사찰을 비울 대 발생한 경우가 50% 이상"이라고 지적하고 "출타시 대중 및 소임자들의 도난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호법부는 또 "성보를 도난당한 사찰의 주지스님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봉도사 화엄사 등 3개 교구를 제외한 21개 교구본사 호법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보도난 예방 외에도 징계자 사후관리, 교구 호법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7월말 열리는 종회에 제출할 사면동의 요구와 관련, 호법부는 20명 안쪽의 범위에서 사면 복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태고종사 발간 준비모임' 결성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종단 숙원 사업중 하나인 〈한국불교 태고종사〉를 발간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종단사 발간에 뜻을 같이 하는 수열 혜공 지홍 스님 등 15명의 스님들은 6월 23일 서울 성북구 종무처 회의실에서 '종단사 발간을 위한 준비모임' 결성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대표에 현수열스님(제주 선광사 주지)을 선출했다.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스님들은 매월 회비를 내 기금을 적립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회원확보를 위한 홍보활동과 기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경숙 기자

조계종 17기 행자교육원 16일까지 입교지원 마감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오는 8월27일부터 9월18일까지 직지사에서 열리는 제17기 행자교육원에 입교할 행자들의 입교지원 원서를 5일부터 16일까지 각 교구본사에서 접수한다.

이번 행자교육 대상자는 남행자 280명, 여행자 203명으로 모두 483명이지만 3백여명이 입교 지원서를 낼 것으로 보이며, 사미·사미니계 수지자는 25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교육원은 승복 유통질서의 개선과 중간상인들의 부당한 폭리를 막기 위해 사미·사미니 의복의 공동구매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각 교구본사에 전달했다. 적삼, 동방, 두루마기, 장삼 등 사미니 의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80~9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55만원 정도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문화재 절도범 7월 중점 추적

경찰청, 일제검거령

경찰청은 7월 한달 동안 문화재 절도범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6월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기간중 문화재 및 석물의 도굴 절도 국외밀반출 행위와 불법매매 보관행위 등을 중점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식당 호화저택 등에 보관중인 오래된 석물의 출처를 역추적해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25일 김광식 경찰청장에게 친서를 보내 도난된 성보문화재를 되찾는 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청사 설계 8월16일까지 공모

조계종총무원은 6월 30일 '총무원 청사 및 조계사 성역화불사 계획 지명초청 설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일건건축 아키반건축 등 5개 설계회사가 초청됐다.

총무원은 △현 교육원 부지에 바닥면적 500평으로 지상 3층, 지하 3층, 건평 4천평 또는 4천5백평 규모 △신행·포교공간으로의 조계사, 행정업무공간으로의 청사 △청사는 대웅전 높이(19m)와 같거나 낮은 높이 △인근의 인사동, 우정국, 수송공원, 경복궁을 잇는 역사문화성 등을 고려한 작품의 제출(마감 8월16일)을 요청했다. 정성운 기자

제2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7월22일~24일, 에버랜드 · 사찰서 2박3일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작년에 이어 제 2회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사찰과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1999년 7월22일(목)~24일(토), 2박3일(사찰1박 에버랜드통나무집 1박)
◇장 소 : 용주사 신륵사 와우정사 경수사 백령사 목아불교박물관 에버랜드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5백명)
◇참 가 비 : 5만5천원
◇문 의 : 현대불교신문 전화(02)723-1776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 선재이벤트
후원 : 조계종 포교원 · 진각종 통리원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 불교조각원 · (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참가어린이는 전원 여행자보험에 가입되며, 차량 및 에버랜드 전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 대 만 평 박구원



사부대중의 목소리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 원 불 교 대 학

통신 · 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2천여동문 졸업 · 40기생 모집중>

1. 강의시간 9월 1일 입학 · 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2. 교육과목 20개 과목외 범패의식 (법현스님) 특강(동 · 하계 스쿨링때 범패의식 교육)

1학년	1학기 (16주)	◇불교경전의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불교상용 의식	◇유식사상
	2학기 (12주)	◇화엄사상 ◇구사론(아비달마)	◇중국불교의 이해 ◇불교상용의식 실습	◇비교종교
2학년	1학기 (18주)	◇부파불교의 이해 ◇대승기신론	◇밀교학의 이해 ◇우리말 불교의식	◇반야사상
	2학기 (12주)	◇한국불교의 이해 ◇선사상	◇대승불교의 이해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천태사상

3. 교 수 진 권탄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김종명박사 김호기박사, 권오성법사, 법현스님(동국대), 정성준박사, 김은희박사

초빙강사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불교학 출강 00명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서류전형
●불교학 통신 00명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3매)	합격자 개별통지

5. 원서교부 및 접수 8월 28일까지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원서교부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원주 법웅사 (0371)742-2701
▶ 제천 묘장암 (0443)653-3249 ▶ 진해 삼밀사 (0553-542-6531
▶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 하동 도림사거사림 (0595)882-4585

6. 특전사항 ◇ 법사고시 경유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무차화합' 대의명분에 동의

원불교, 종단협 재가입 추진 배경과 의미

불교세 확장-화해분위기 형성 기대

"기존질서에 악영향" 일부서 신중론

원불교가 종단협의회에 가입할 경우 한국불교의 영향력 증대는 물론 한국의 종교 지형, 나아가 우리 사회의 화합분위기 확산 등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불교세의 확장, 종단간 화해의 분위기가 종교 내부는 물론 우리 사회에 미쳐 좋은 사회분위기 형성에 일조할 것이며, 원불교의 활발한 시민사회운동 및 국제활동이 불교에 신선한 자극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에 따라 원불교의 종단협 가입은 새로운 세기를 앞둔 종교계의 일대 사건으로 기록할만 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원불교가 그동안 해외에 나가서는 불교, 국내에서는 민족종교계열의 신종교로 활동하는 등 다소 불투명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원불교에 대해 곱지않은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음도 사실이다. 현재 대체로 안정적인 종단협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반응도 있다. "이제라도 불교라고 선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 논의는 두 대표간에 이미 '합의'에 이른 상태이나, 찬반 논의가 뒤따를 경우 불교와 원불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불교의 종단협 가입은 재가입이란 표현이 맞다. 원불교는 종단협의회 발기 당시부터 12개 종단 가운데 하나로 참여했으며, 종단협 내의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지부 부회장 종단으로서 활동했다. 70년대 중반까지도 당시 문공부등록 불교종단이었다. 그러다 80년대초 이후 불교와 멀어졌다.

종단협의회장 고산스님의 가입 제안과 이의 수락은 종교간 화합이라는 대의명분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무차화합'은 고산스님의 지론이다. 원불교측의 "중생구제를 위한 불제자들의 협력이 이 종법사의 확고한 의지"라는 전언도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불교 내에서는 94년 이광정 종법사의 취임 이후 원불교의 '불교화'로 가닥을 잡은 것도 중요한 배경이라는 풀이다. 이 종법사는 교리연구기관인 수위단을 통해 경전과 교헌상 석가모니 부처님이 명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원불교를 불법에 연원한 '새불교'라고 정의해 내부적으로는 불교임을 분명히 했다.

97년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주최의 '원불교 교화의 제문제' 주제의 세미나에서 "법신불이 원불교 교리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이상 원불교는 불교사상의 중심에 들어서 있는 것이며, 결코 불교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었다. 97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중일 불교대회에 원불교 대표가 참관인으로 참가하기도 해 종단협의회 가입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불교종단간의 유대와 협력 증진, 불교중흥과 민족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67년 창립된 종단협의회에는 현재 28개 종단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원불교

법신불 일원상 '종지'
1924년 불법연구회서 출발

1924년 소태산 박중빈(1891~1943)이 창립했다. 소태산은 10세 때부터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지녀 오래도록 명상수행을 하다 26세 되던 해에 '만유(萬有)가 한 체성(體性)이며, 만법(萬法)이 한 근원'임을 깨쳤다고 한다. 이후 1924년 창립한 불법연구회가 원불교의 효시이다.

원불교는 법신불 일원상을 종지로 삼고 있다. 원불교측은 "우주의 궁극적 진리를 일원(一圓)의 진리라 이름하고, 이 일원의 진리를 'ㅇ'으로 표현하였으며, 원불교에서는 이 'ㅇ'을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한다"고 밝힌다.

기본경전은 소태산이 쓴 〈정전(正典)〉과 그의 언행기록인 〈대종경(大宗經)〉으로 편찬된 〈원불교교전〉이다.

국내에 4백30여개, 국외에 13개국 30여개 교당이 있으며, 출·재가 교직자 7천5백여명, 신도 1백10만여명이다. 원광대학교 성지고교등 10여개의 종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 세계불교도우의회(WFB), 국제종교자유연맹(IARF), 국제연합 비정부단체(NGO) 등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해 국제간 종교협력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종교사〉의 저자 제임스 헌틀리 그레이슨은 원불교를 "불교적인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개신교의 전래로부터 영향받은 불교개혁운동의 한 예였다. 원불교는 조화롭고 오묘한 교리체계를 지닌 혼합적인 종교"라고 했다.



◇분과별 토론 후에 발표회를 갖고 있는 충청지역 본말사 주지스님들.

"승려 재교육 세분화해야"

조계종 충청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회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6월 29~30일 천안 주택은행 연수원에서 충청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회를 개최했다.

금년들어 처음 열린 이번 주지 연수회에는 법주사 마곡사 수덕사의 본말사 스님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회는 성균관대 유필화교수의 '현대사회에서의 사찰주지의 역할' 주제의 강연, 향천사(주지 자원) 및 명법사(주지 순형)의 우수 교화활동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분과토론의 요지다.

▨ 승려 재교육 개선점과 방안=승려 재교육은 초발심으로 돌아가 느슨한 마음을 다잡는 역할을 한다. 본사별 연령별 학력별 승랍별로 세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신도교육 활성화 방안=신도들이 기복불교에서 탈피해 기본 예법 등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계, 6법공양, 보살계 수계식 등 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교재를 선택해 한 권을 배웠다는 성취감을 맛보도록 해야 한다.

▨ 주지의 리더십과 과제
계행청정, 솔선수범, 신심충만 등이 리더십이 기준이 돼야 한다. 리더쉽은 개인적 수행과 교육에 의해 길러지며 팔방미인을 필요로 한다. 가람수호, 전법도생, 견성성불이란 주지의 소임을 다하면서 21세기에 맞는 문화 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포교 활성화 방안
관음전을 어린이법당으로 활용하고 초등학교에 장학금 지급, 어린이 동사섭법회, 특성화교육(서예, 한문 등)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비구니스님을 활용해 불교유치원을 계속 확충해야 한다.

▨ 청소년포교 활성화방안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센터, 결식학생돕기, 청소년진로상담, 문화공간(영화상영) 제공 등 실제적으로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통해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해야 한다.

▨ 신도회 결성과 활성화방안
세대별 지역별 동호회별 법회를 구성하고 가정법회를 활성화해 인간적인 유대를 돕는다. 각 신도모임별로 결혼, 장례, 병문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토록 해 법회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신도 만족위한 마케팅개념 도입을"

유필화교수 강연내용

"자리이타(自利利他)의 현대적인 해석이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개념을 사찰에 적용할 때 고객(신도) 만족은 포교의 지름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유필화교수(경영학)는 29일 충청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회에서 '현대사회에서의 사찰주지의 역할'이란 강연을 통해 "주지스님들이 신도 지향의 포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를 위해서 장례법회, 간병법회, 신행·건강·인생상담 등 신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법회와 교육(불교와 교육·재테크·영어 등) 프로그램을 개발(시장세분화의 개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수한 교리와 자연환경, 문화유산, 발우공양 등 불교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의 핵심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유교수는 신도들의 주인의식 고양을 위해서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정신을 일깨우는 한편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사찰운영, 투명한 재정, 다양한 신도조직과 (봉사활동 등) 소규모 모임 활성화, 다채로운 기획, 행사, 이벤트(불교 4대 명절, 졸업·입학식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목어

동강을 살리자

동강을 살리자, 강원도의 동강을 막아 댐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안에 정면으로 그리고 의롭게 부르짖는 시민단체들이 늘어 가고 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앞장 서서 부르짖은 보람이 있어서일까. 정부 당국에서 동강의 댐 건설을 미루거나 재고해야 한다는 말들이 새어 나오고 있다. 이런 말들이 혹 들끓는 여론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완강한 강행엔 제동이 걸려 다행스럽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부딪치는 충돌이 있다. 현실론에 입각한 개발론과 후세를 위한 개발의 제한론이다. 문제는 이런 상충된 모순을 어떻게 최소화하여 합일점을 찾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왕왕 보면 그런 타협점보다는 괭괭한 힘 겨루기를 앞세워 어느 쪽이든 힘이 실리는 쪽 마음대로 했던 것이 과거지사다. 이런 논리이고 보면 언제나 강압적 집행자는 정부였었다. 정부는 항상 옳고 국민은 항상 우민으로 남았었다. 시대의 변화 때문일까. 동강은 그래서 서서히 임종을 넘기고 명을 더하게 되는가 싶다.

사람들은 동강이 없어지면 자연의 생태계가 바뀌고, 생태계가 바뀌면 인간이 살아남는 조건이 달라짐으로써 영향을 직접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그까짓 생태계가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하는 얕고 단순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태계는 사람이라고 예외이진 않다.

겨우 회생한 동강이 이번에는 댐몸살이 아니라 사람 몸살을 앓고 있다. 기사회생한 힘겨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떼로 몰려가서 짓밟고 있으니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지난 일을 보고 미래를 배우는 일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지혜이다.

부처님은 사람에게는 네가지 부류가 있다고 가르치셨다. 다른 마을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전해만 듣고도 속된 행동을 버리고 도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사람이 죽자 비로소 도를 닦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친족이 사망하자 속행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가까이서 보좌하던 사람이 죽음으로써 비로소 깨닫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주변 일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하고 실천하는 유형이 각기 다르다는 뜻이다. 동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네 번째의 유형에도 들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본다. 직접 보고 듣고도 이 모양이면 우리들의 자화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스스로 거울에 한번 비쳐보자.

이근후(이화의대교수·본지 논설위원)

대의원 직접투표 자질 검증

두달 남은 中信會 회장선거

후보 서너명거론
집안싸움 안되길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단 선거(8월20일)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장선거를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중앙신도회 임원선거는 이전의 방법과는 달리 대의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신도회의 대표를 자신들의 손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회원들의 조직에 대한 소속감 뿐 아니라 권리행사에 따른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고, 선출직 임원 역시 자신을 선택한 대의원들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여의 신도회장 부재가 가져온 영향은 조직의 존폐위기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조계종의 종법상 규정된 신도 대표조직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것이 사실이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았지만 근본적으로는 총무원이나 중앙신도회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더욱 일이 꼬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물론 임원 및 신도들의 무관심도 한몫 했다.

하지만 조영황 선관위원장(인터뷰 4면)의 말처럼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의 과열로 야기된 종단 분규의 부끄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여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 직능 단체들도 포함되어 중신회의 몸집이 커지고 회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아직 후보자 등록(8월3일)까지는 여유가 많다. 지난 6월26일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총회에서 손현수 총재를 중신회 회장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의한 것을 계기로 회장 출마자들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중신회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지 않고 집안 싸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회장 후보자들이 공개적인 여론검증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중신회,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3~4명의 후보자가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신도들의 대표자가 선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예전처럼 총무원의 입김이나 막후에서의 비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회장이 선출된다면 혼란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秘)"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합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화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살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공명정대한 선거 해야죠"

중앙신도회 선관위장 조영황 변호사



"전국 불교신도의 중의를 모아 신도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회장을 최초로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 기회인만큼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중앙신도회 임원 선거관리위원회 조영황 위원장(58, 변호사)은 이번 선거가 신도회 위상 강화 및 역할 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의원 간선제로 치뤄지는 이번 선거기간동안 조 위원장은 후보자 초청토론회 및 언론기관 초청토론회, 선거당일 정견발표 장을 열어 불자면 누구나 선거에 간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6월29일 현재 집계된 대의원은 24개 각 교구에서 추천한 2백33명과 대불청, 대불련총동문회, 대불련,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등 8개 신행단체 대표 55명, 초기 임원진 11명 등 모두 2백99명.

"불법선거 감시기구가 따로 없는만큼 입후보자들은 선거가 여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양심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신도회 선거는 8월20일 조계사에서 '중앙신도회 임원선거 관리규정'에 의해 치뤄진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석물전문 박물관 여는 천신일씨

"돌조각 속 한국의 미 알리고파"



"돌조각 작품은 대부분 불교미술품입니다. '세종옛돌조각 박물관'은 이들 미술품중 재조명이 필요한 것에 더욱 관심을 갖고 발굴·전시할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석물 전문 박물관, '세종 옛 돌조각 박물관'을 설립하는 천신일(56·(주)세종 대표이사)씨.

20여년전 외국으로 밀반출되는 석공예품의 예술성을 인식했던 그가 하나 둘씩 수집해온 석공예품은 1만여점. 여기에는 '동자석' '석탑' '석불' '석등' '부도' 등 불교유물 뿐만 아니라 왕릉과 사대부가의 묘에서 망자의 혼을 지키고 위안했던 '문인석' '무인석', 악귀와 외적을 막아주던 '장승' '벅수' 등도 있다.

"옛 돌조각의 실물 전시를 통해 선인의 숨결을 느끼고, 역사체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천신일씨는 "종교와 시공을 초월해 공예품 자체의 조형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국의 미를 발견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 옛 돌조각 박물관'은 4,300여평의 야외전시장과 연건평 120평의 연구동으로 8월중 개관된다.

오증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교차로

민화협 상임고문에



고산 조계종총무원장은 6월 28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 한광옥 외 8인) 상임고문과 민화협이 8월 15일 실시하는 가칭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겨레 손잡기 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전국대학총장 세미나 참석



현성 중앙승가대학교 총장(현성정사 주지)은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 서귀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전국대학총장 하계 세미나에 참석했다.

대만서 삼장법사 학위받아



혜초스님(前 태고종 총무원장)은 최근 대만을 방문, 현장학술연구원장 오명스님(세계불교승가회 회장)으로부터 삼장법사(三藏法師) 학위를 받았다.

적멸보궁 지명사 산신각 낙성



효성 법륜종 총무원장은 홍천에 위치한 적멸보궁 자명사 산신각을 조성하고 4일 오전 11시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장애인과 함께 야외명상



혜창 강북장애인복지관장 스님은 6월25일~26일 1박2일간 경북 문경 불정동 운암사에서 강북 지역 장애인 20여명과 함께 '야외명상정진'을 실시했다.

불광사 창건21돌 기념법회



지범 제주 남원읍 불광사 주지는 12일 오전 10시 불광사 창건 2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초청법사는 백운스님이고 2부에서는 경로잔치를 갖는다. (064)67-2580

여름방학 어린이 한문교실



도성 광주 정토선원 주지는 7월26일부터 8월20일까지 여름방학 어린이 한문교실을 운영한다. 참선, 예절, 다도교육, 문화유적 답사도 실시하며 선착순 50명 모집. (062)528-0108

불교언론인회 운영위 회의



신광식 한국불교언론인회 회장은 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타 19층 프레스룸에서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노환으로 삼성의료원 입원



안순진 정각노인대학장은 최근 노환으로 강북삼성의료원 신관 956호에 입원 가료중이다. (02)2001-1956

금강경사구게 특별강좌



곽태일 약사선원장은 6, 7일 양일간 용맹정진 대법회 및 금강경 사구게 특별강좌를 개최했다.

LA카운티 명예시민증 받아



이용택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은 6월30일 회의실에서 미국 L.A. 카운티(County)로부터 교포사회 발전 및 해외 희생동포 추념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中 절강성 불교유적 답사



조영록 동국대 동아전통문화연구원장은 6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절강성 일대에서 불교유적 등 한국관련 유적지를 답사한다.

동국문학인회 새회장에

문효치 시인은 최근 열린 동국대학교 출신 문인들의 모임인 동국문학인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에 선출됐다. 부회장에는 신용선 이상문 이원규 박찬 김강태씨 등 5인이 선출됐다.

경주문화엑스포 공로 이정옥교수 대통령상



지난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으로 활동한 이정옥 교수(위덕대·43)가 6월28일 엑스포기간동안 해온 기획 홍보 작업 등에 대한 공로가 인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위덕대 신라학연구소장을 맡고있는 이 교수는 한국한국어문학회, 국어국문학회, 경북어문학회, 문학과언어연구회, 한국동학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현대조각 심포지엄에



박찬갑씨(조각가·한국불교미술인회장)는 6월 5-13일 덴마크 호요시에서 열린 조각심포지엄에 초대작가로 참가한데 이어 프랑스 몽젱시에서 11일까지 열리는 제3회 현대조각 심포지엄에 참가하고 있다.

길상사 창립 1주년 기념법회



강원호 길상사거사림회 회장(YBS대기 대표)은 27일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하절기 재가 신도들의 사찰 출입시 옷차림에 대해 지도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3사 군승장교 13명 임관식



영천 육군 제3사관학교(학교장 이종간 소장)는 제57기 군종사관후보생 임관식을 6월30일 거행됐다. 이날 임관한 군법사는 해군 1명, 공군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 이들은 각 사단 등에 배치돼 군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날 임관식에는 총무원 원택 총무부장,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 스님과 이희용 육해공군군승단장, 3사관학교 충성대호국사 조민제법사와 신인항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했다.

영천=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조계종, 신장기증 덕선스님에 감사패

금강산 순례공로 현대상선·김병조씨도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6월 28일 신장병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한 덕선스님(화엄사)과 불교도 금강산 순례 행사와 관련 (주)현대상선과 불자연예인 김병조씨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했다. 고산스님은 덕선스님에게 "자기 몸을 떼어내 한 생명을 살린 보살의 화신"이라며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면 반드시 성불할 것"이라고 치하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현대불교 2기 명예기자 위촉식



현대불교신문 제2기 명예기자 위촉식이 6월26일 한마음사랑방에서 개최됐다. 이창호 현대불교신문 편집위원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2기 명예기자는 13명. 강원호, 김난인, 박순배, 백정기, 유인자, 이성모, 이희경, 최경수, 최순환, 최우진, 현재명, 이경숙씨는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신문사 소개 및 불교언론의 위상과 역할, 기사작성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도필선 기자

고승메달 포장…"우리도 기술자예요"



Focus

강북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지난달 30일 현대불교신문사와 조폐공사가 공동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는 고승기념메달 포장작업에 나섰다. 이번 포장작업은 장애인들의 재활훈련을 돕기 위해 이뤄진 것.

이날 장애인들이 포장해야할 메달 수는 1500여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오랜시간 진행됐지만 피로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정신지체 3급 이상이면 중증장애에 속하지만 이들의 작업속도는 일반인보다 오히려 조금 빨랐다. 1년여의 교육은 이들을 정상인과 다름없이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들은 부처님 품안에서 자신들의 정토를 가꿔가고 있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인 사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이과대학장 박거덕 △야간강좌교학처장 강성윤 △기획인사처장 정용길 △대외협력처장 보광스님 △연구처장 최순열 △사무처장 류풍운 △정보관리실장 이종욱 ■경주캠퍼스 △자연과학대학장 신종문 △기획처장 이갑득 △학생처장 홍광표 △야간강좌교학처장 이준성 △사무처장 백우석 △정보관리실장 조영석 △도서관장 이석장 △사회문화교육원장 임배근

권行 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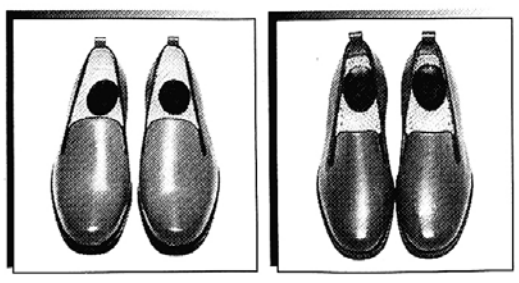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권行"

스님 및 불자용 신발 시판!!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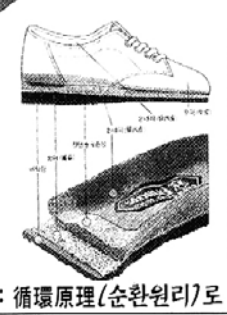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권行만행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건강콜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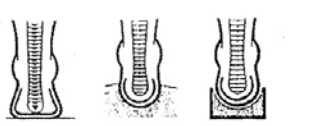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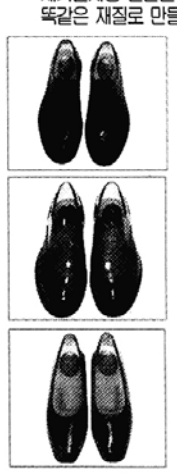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우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정맥·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기존신발 모래사장 건강콜크 신발

재가불자용 신발

재가불자용 신발은 스님용 신발 만행과 똑같은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男 : A형 흑색
男 : B형 흑색
女 흑색

건강신발 권行의 특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진
기존의 구두 안창보다 통기성, 신축성, 충격흡수력, 보온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발의 지압점을 자극하여 발의 운동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인체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기존신발에는 없는 중앙이치버팀둔덕 부위는 우리 몸의 주요내장과 연결되어 내장기능의 활성화로 소화와 대변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인체의 중량은 최종적으로 발이 지탱합니다. 사람은 모래사장을 걸을 때 가장 편안한 형태가 됩니다.

4. 신장기능개선
만행건강신발을 신고 걸으시면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발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또한 무좀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전국대리점 모집中

▶현재운영대리점 ○강원도 속초불교사 0392-633-6910 ○경남함양전시장 0597-964-0114 ○광주광역시 무등원불교사 062-232-0904 ○전북 익산 불교마당 0653-842-6652 ○부산전시장 온천동 051-555-9355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권行대표 박동진 합장

우리 모임에선

둥지 청소년의집 위문



수원교도소직원불심회(회장 고왕식)는 6월26일 경비교도대원불자 10여명과 함께 대부도 둥지청소년의집을 방문,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수원교도소직원불심회는 이날 빵, 우유 3박스와 보시금 30만원을 기증하고 예초기, 낫, 삽 등을 이용해 둥지청소년의 집 주변환경 정화작업을 벌였다. (0331)211-1285

안동-서울산악회 합동법회

안동불교산악회(회장 최상조)는 11일 도선사에서 서울동부불교산악회, 서울금강메아리, 서울불이산우법회, 서울북부불교산악회 등 4개 서울불교산악회와 합동법회를 갖고 북한산 산행을 실시한다.

이번 산행에서는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말을 들어 천도(遷都)를 단행했던 당시의 북한산 정기와 산맥을 더듬어본다. (0571)857-4584

불자가수회 환자 위문공연

대한불자가수회(회장 남강수)는 6월30일 경희의료원을 방문해 로비에서 쾌유기원 위로공연을 가졌다. 불자가수회는 남강수 회장을 비롯 6명의 불자가수들이 함께한 이날 공연을 계기로 매월 정기적으로 경희의료원 불자들과 함께 위문공연을 갖기로 했다. (02)713-2905

직장직능연합 山寺수련 '화합의 여름'

금융단불자회 · 한전등 철야정진 · 수계식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들이 토, 일요일 1박2일동안 짧은 출가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는 여름수련회를 잇달아 준비하고 있다.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 불자들에게 수련회는 일상생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산사에서 수행의 기쁨을 맛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 전국 10여개의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가 수련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의 수련회는 각 사찰에서 개최하는 여름수련회와는 달리 대부분 첫날 철야정진, 둘째날 수계법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게 특징이다.

전국금융단불교회(회장 김윤하)는 10~11일 조계사에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농·수협 등 14개 금융권 불자들이 참여하는 수련회를 갖는다. 수련회는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송과 수계식으로 이어진다.

한전반야회(회장 김영창)는 창립 9주년을 맞아 16~18일 2박3일간 백담사와 봉정암에서 구도정진 수련회를 마련한다. 이번 수련회에는 자생적으로 결성된 11개 사업소 불자회 회원과 창립 준비 중인 5개 사업소 회원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부산불교청년산악회(회장 김정관)와 부경대교수불자회(회장 하만경)도 각각 16일~18일 동해 삼화사와 17일~18일 수덕사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국민회의 연등회(회장 박상구)도 24~25일(장소미정) 지역 연등회 합동 임원수련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 한국불교연구원 전국교사불자회(회장 김광열 성덕여중 교장)는 8월6일~8일 2박3일간 충북 괴산 다보사에서 전국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연다. 연수회는 8월6일 오후4시 입재해 오리엔테이션, 동국대 정병조 교수의 강의, 수행실수, 친교시간, 기도정진 등으로 진행된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도 24~25일 용주사 효행관에서 1백50여명의 전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수련회를 개최한다.

유니텔·나우누리·하이텔 PC통신 불교동호회도 수련회를 속속 마련하고 네티즌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수련회 일정

단체	일정	장소	연락처
국민회의 연등회	7/24~25	미정	(02)788-2013 이상곤
나우누리불교동호회	7/31~8/1	천안	011-454-7130 김진현
법륜불자교수회	7/17~18	김용사	016-513-0268 장호경
부산불교청년산악회	7/16~18	삼화사	(051)464-2020
부경대교수불자회	7/17~18	수덕사	(051)637-5230
유니텔불교동호회	7/10~11	직지사	(02)390-5717 정경자
전국교사불자연합회	7/24~25	용주사 효행관	(02)720-7060
전국교사불자회	8/6~8	충북 괴산 다보사	(02)4311-6167
전국금융단불교회	7/10~11	조계사	(02)398-6464 이충훈
전국운전기사불자회	7/18	경북고 운동장	(053)764-0766
하이텔불교동호회	8/6~8	미정	019-253-3855 임경빈
한전반야회	7/16~18	백담사/봉정암	(02)3456-5784 홍기성



3천배 정진…5계실천 다짐

한은불자회 수계식

한국은행불자회(회장 윤주하 인력개발실 교수팀장)는 6월26일 해인사 백련암에서 수계식을 겸한 수련회를 가졌다.

서울과 대구 한국은행불자회가 함께한 이번 수련회는 성철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수행정신을 도야하기 위해 3천배 철야정진으로 진행됐다. 또 법전스님(해인사 방장)을 계사로 5계를 수지, 참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부산 울산 경남 불교언론인회' 창립

부산경남 불자언론인들의 모임인 부산·울산·경남 불교언론인회(가칭)가 창립된다.

변노섭 원로언론인, 김진두 부산일보 논설위원, 부산불교방송 이영구 총괄국장 등 부산, 경남지역의 불교언론사를 비롯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사 등에 종사하는 불자언론인 13명은 지난달 준비모임을 갖고 9일 오후6시30분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또 부산·경남·울산 불교언론인회로 통합하기로 하고, 정관을 심의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대전화상왕심경' 펴내 스카우트 불교지도자회



한국보이스카우트 불교지도자회(회장 권영일·사진)가 지난 7년 동안 윤독법회를 통해 강의한 〈대전화상왕심경(大顚和尙往心經)〉 내용을 책으로 펴냈다.

한국보이스카우트 불교지도자회가 선보인 〈대전화상왕심경〉은 대전화상이 쓴 반야심경 주석서로 본회가 1992년부터 7년간 강술해 온 내용을 쉽게 풀이해 엮은 것이다. 경전 해석은 물론 어려운 불교용어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이 돼 있어 초심자들이 공부하기에도 용이하다. 〈대전화상왕심경〉은 비매품이다. (02)2292-8502



'동국대 90년지' 편찬 고불식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6월28일 정각원에서 〈동국대학교 90년지〉 편찬을 기념한 고불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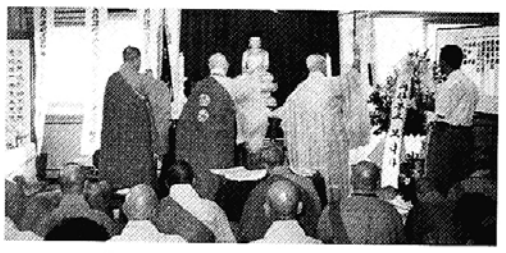
'약사편' '자료편' 2권으로 편찬된 〈동국대학교 90년지〉에는 근대 불교학교의 탄생, 근대 불교전문학교의 발전, 석·박사 학위수여자 명단, 역경원·출판부 간행도서 목록 등이 실려있다.



대륜대종사 탄신 117돌 다례재

태고종 초대 종정을 지낸 대륜대종사 탄신 117주년을 기념하는 다례법요식이 6월 28일 사간동 법륜사에서 봉행됐다.

법륜사 주지 혜초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지성스님 역암문도회장 무공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 1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요식에서 혜초스님은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와 종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자"고 당부했다.



법륜종 총무원 법당 개원식

한국불교 법륜종은 6월 25일 총무원 3층에서 효성(총무원장) 혜안(포교원장) 혜봉(종회의장)스님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점안 및 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효성스님은 "총무원 법당개원을 계기로 태고종조의 원융정신을 이어받아 새롭게 창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며 "법당은 승려연수교육 및 신도의 교육장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크리에이션포교회 지도자 연수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정호스님)는 6월 26~27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법왕루에서 '새천년 불교는 어린이와 함께'를 주제로 제23회 여름불교학교지도자연수회를 열었다.

전국의 어린이법회 지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선체조, 동요와 불교교리, 찬불가와 율동, 캠프파이어 이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탐방 정부과천청사 정법회



◇정법회는 지난 3월 13일 봉선사에서 첫 수계법회를 가졌다.

청렴기강 심는 공직사회 목탁

97년 창립…회원 40명 매주 교리공부…법우애 돈독

정부 과천종합청사 공무원 불자들의 모임 정법회(회장 강평수 수산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97년 5월 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남기 박사가 주축이 돼 창립된 정법회는 40여 명의 회원이 고작이지만 신심 하나만큼은 어느 신행회에도 뒤지지 않는 '정예부대'다.

신심못지 않게 회원 상호간의 돈독한 법우애도 자랑거리다. 지금은 정부과천종합청사를 떠나 수협중앙회로 자리를 옮긴 강평수 회장이 정법회를 탈퇴하지 않고 법우들과 인연을 계속 맺어가고 있는 것만봐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잦은 출장과 외근, 구조조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감 등의 이유로 기가 한풀 꺾이기 쉬운 때에도 정법회 회원들은 서로 뜰뜰 뭉쳐 위로하고 용기가 되어 주었다.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서로에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 '참된 공무원, 참된 불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준 호법신장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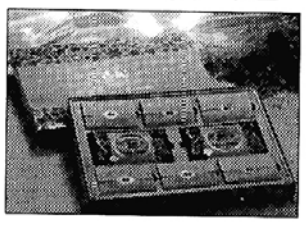
정법회 회원들은 창립 이후 줄곧 불교 교리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김정호 지도법사(평생불자회 회장)의 도움으로 창립초기에는 월 2회 모임을 가져오다가 2~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매주 금요일 정오 1시간 동안 불교기초교리에서부터 어려운 경전공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섭렵하고 있다. 요즘은 〈묘법연화경〉을 공부하고 있다.

장재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불교에 대한 기초도 없이 그저 공부나 한 번 해봐야겠다는 초발심으로 불교공부를 시작했는데 2년여 동안 계속하다보니 그 재미가 쏠쏠하다"면서 "부처님 법은 공명정대한 판단과 지혜를 발휘하는 정직한 공무원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13일 봉선사에서 첫 수계법회를 가지기도 한 정법회는 이땅의 쇠북이 되고, 목탁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항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빌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건의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300만원대 콘도마감 임박!

(주)현대리조트타운 콘도이용의 대중화 선언

현대리조트에서 15년간 사용하고 7년 6개월후 보증금 전액(330만원)을 반환하는 IMF식 콘도이용권을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한정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간 3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설악에서 한라(설악, 제주, 해운대, 지리산, 도고, 가평, 승봉도, 부곡, 양평, 구례, 천안, 용문산, 경주, 평창, 충주) 그리고 사이판까지 20개 체인콘도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이번 기회엔 입회비, 연회비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안, 충주, 이천과 경주지역 유명골프장을 준회원자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이 연계체인화 하였으며 업계 최초로 외환비자 카드사와 업무제휴하여 다기능 이용카드로도 VIP대우를 받게 됩니다.



■설악현대리조트타운 콘도미니엄 전경(477실)



일반콘도회원권과 비교해 볼 때 대부분 20년 사용하고 나면 보증금에서 시설관리비, 손괴보상비 등을 제외하고 절반정도를 반환하는데 비해 이 상품은 구입후 7년 6개월간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습니다. 사계절 휴양지로 이미 각광받고 있는 현대리조트콘도는 경제성, 안정성, 가족을 위한 생활레저로 한층 품격을 더해가고 있으며, 또한 직원분들의 폭넓은 사용을 위하여 2매의 회원카드를 발급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02)3446-4041

※ 여름 성수기 예약을 보장해 드립니다. (여름 성수기 예약안됨시 전액환불)
※ 고객의 보증금 안전을 위하여 보험 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들었다

여성

"남-녀 분별 악마의 생각이니…"

깨달음에는 남녀가 없다.' 〈유마경〉의 관중생품에는 천녀와 사리불의 대화를 통해 남자에게는 남자라는 고정된 자성이 없고, 여자에게는 여자라는 자성이 없다는 것을 설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은 그리 평등하지만은 않다. 1~7일은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4회 여성주간이다. '함께만드는 남녀평등-남녀평등은 혼합복식처럼' 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양성평등 실현을 새천년의 도약과제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교계도 6월26~27일 '여성불자의 새흐름을 모색하는 워크숍' 을 여는 등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여성의 역할과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여성주간을 맞아 여성에 대한 경전의 말씀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때 어느날 소마 비구니가 성안에서 걸식을 마치고 숲으로 향했다. 그때 마왕파순이 "성인의 경지는 높고 아득해 오르기 어렵거늘 여자의 몸으로는 능히 그곳에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소마 비구니는 마왕의 장난임을 알고 게송으로 답했다. "마음이 삼매에 들어가는데 여자의 몸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누구라도 지혜를 얻게되면 위없는 법을 얻을 수 있느니라. 만약 남녀라는 분별심을 한꺼번에 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곧 악마의 생각이니 너희는 마땅히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일체의 괴로움을 여의고 일체의 두려움을 버리고 모든 애착이 사라짐을 증득하면 모든 번뇌가 다하여 열반을 이루리니, 파순아 그대는 나에게 졌음을 알라." 〈소마경〉

▨남녀는 일체 평등하다. 하늘은 아비이고 땅은 어미이므로 천지의 낳은 바이니 무슨 다를 것이 있으랴? 〈보문품경〉

▨아난아, 나에게 평등한 대비가 없다고 할지언정 우바이(재가여신도)를 천하다고 말하지 말라. 〈대방광불보은경〉

▨여래의 처소에서는 출가하여 도를 배우면 김씨, 이씨 등의 성은 없어지고 오직 이것을 사문 석가의 아들이라 한다. 왜냐하면 여래종(如來衆)은 마치 대해(大海)와 같기 때문이다. 〈증일아함경〉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진다. 도든 사람도 불법이라는 바다에서는 평등하다. 〈증일아함경〉

▨'이 사애(四愛)의 법을 가지고 또 부처님의 앞에서 법구를 외면 그 중에 털끝만한 복이라도 있을진데 태어나는 곳마다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 가난한 집에 떨어지지도 않을 지이다. 미래의 세상에서도 다시 이같은 부처님을 만나 여자의 몸을 변하지 않고 여자의 몸으로 깨끗한 법안을 얻게 하여 주소서' 〈수마제녀경〉

▨상도비구가 혜시녀에게 말했다. "여인은 악하고 교태가 많은 까닭에 제석천이 될 수 없으며, 여인은 음란방자하여 절제가 없는 까닭에 범천이 될 수 없다. 또 여인은 경만불순하고 정교를 훼실하는 까닭에 마천이 될수 없고, 여인은 숨기는 태도가 84가지여서 청정행이 없는 까닭에 성제(聖帝)가 될수 없다." 혜시녀가 말했다. "원래 남녀의 구별은 없고,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불설초일명삼매경〉

▨대개 네 종류의 아내가 있느니라.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고, 친척같은 아내가 있으며, 도적같은 아내가 있고, 하인같은 아내가 있느니라. 때를 따라 남편을 잘 보살피고 부족함이 없이 받들고 모시고 공양하는 아내를 어머니같은 아내라 한다.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을 같이 하는 아내를 친척같은 아내라고 말한다. 남편을 보면 미워하고 딴 남자를 생각하며 기회만 있으면 남편을 해치려는 아내를 도적같은 아내라 한다. 항상 말을 삼가하고 남편을 잘 받들어 모시고, 삼보를 공경하여 청정한 마음을 갖는 아내를 하인같은 아내라 하느니라. 장자 며느리여, 그대는 어떤 아내에 속하느냐?" 〈옥야경〉

행자교육 더 강화하자

목.소.리



성열
강남포교원 원장

불상을 크게 조성하고 사찰을 화려하게 짓는 외형적 불사만을 가지고 불교가 발전하지는 않는다. 불교의 발전은 전적으로 부처님의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고 신도들을 바르게 이끌어 갈 출가자들의 자질 여하에 달려 있다.

그동안 불교계는 동양최대·세계최대를 외치면서 외형적 불사를 해 왔지만 번번이 내부갈등을 여과없이 드러냄으로써 세인들의 비난을 벗어나지 못했었다.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출가자들의 자질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조계종 교육원이 '교육법' 을 개정하여 현행 6개월의 행자교육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 행자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니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하고 바람직한 처사로 환영한다.

사실 우리 불교계는 행자교육의 내용도 불비하거니와 기간도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출가자로서의 기본자격을 갖추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행자는 장차 비구나 비구니로 발돋움할 사람들이요, 이 땅의 불교를 앞장서서 이끌어 갈 사람들이며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분신으로서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다. 그러자면 교단은 그들이 장차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겸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행자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간소하고 형식적이어서, 출가본사에서 일정기간 허드렛일이나 하다가 종단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단기행자교육을 받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서는 출가자로서의 본분의식이 갖추어질 수 없고 시대적 사명감도 구비할 수 없다.

전에는 자격제한을 두지 않다가 근래 들어 고졸학력을 필수로 한다고 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교육수준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지도자로서의 여건을 구비하였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

물론 수계를 받고나서 동국대학이나 승가대학에 진학하여 불교학을 공부하고 선방에 가서 참선 수행한다지만 그 길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나 선방에서의 교육내용은 묻지 않더라도 거기마저 가지 않는 사람들은 불교를 정통으로 공부할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으니, 출가자들의 불교교학에 대한 이해나 수행에 대한 인식이 천차만별이고, 교리적 입장에서 대 사회적 시각이 정립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

사실 행자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연장하여 4년 정도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행자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염려할지 모르겠으나 정예화되지 못한 다수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나아가는 것이 불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선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 본다.

출가자가 세속사회의 내로라 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지적 우수성과 청정한 도덕성 때문이다. 지적 우수성은 불교적 시각으로 사회 제반 현상을 해석함을 말하고 도덕성은 세속의 권세에 눈치보지 않고 불교인의 양심으로 비판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 행자로 출발하는 이들을 체계화된 교육하에 그러한 능력과 덕성을 배양하지 않으면 장차 출가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 사회 속에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정착해 나아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중앙승가대학의 입학정원 미달사태가 계속되는 것도 심각하게 대책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 해의 행자교육에 임하는 이들을 전원 승가대학에 입학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본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목탁소리

이 경 숙〈취재 1부 부장〉

조계사가 공금횡령 및 배임혐의로 전 주지 현근스님등 15명을 6월 24일 서울 지검에 고발했다. 조계사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의 재무 장부를 감사한 결과 1백억원이 넘는 금액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97년 현대로부터 받은 대웅전 복원공사비 및 피해보상금 41억원도 사찰장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달초 일간지에는 경주 불국사 전 재무 진현스님의 잠적기사가 나와 불자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경주불교회관을 지으려고 모아둔 돈 13억원을 횡령해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의 모 복지관의 관장이 복지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 사직당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리고 대구 동화사에서는 '주지가 불사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는 이유로 정화회의측이 세속법에 고발했으며, 주지스님측은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금전관계 사건이 불교계를 또다시 어지럽게 하니 그저 착잡할 뿐이다. 불자들에게 수치심과 자괴감을 안겨주었던 지난해 종단분규의 원인을 돌아보면서 이같은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찰재정의 투명한 운용' 이 절실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았던 것이 새삼스러운데 횡령, 착복 등 입에 담기도 싫은 금전비리가 또다시 발생하니 말이다.

정재가 새다니…

사찰재산은 불교종단의 재산이며 나아가서는 전 불교도의 재산이다. 포교와 교육 등 불교발전을 위해 쓰여져야지 사리사욕으로 개인화해서는 안되는 정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왜 이같은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걸까. 아직도 사찰재산이 공개운영되지 못하고 수입 지출의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고 주지의 독단으로 주먹구구식의 집행이 여전하기 때문은 아닐까. 지금부터라도 재정의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운용에 전 사찰이 하루속히 참여해야 하며 당연히 해야한다는 의식이 확산돼야 한다. 또한 신도들도 이에 동참해 사부대중이 함께 삼보정재가 낭비·유실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찰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주지나 재무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이고 대리인일 뿐이다. 사찰의 주지나 단체의 장 등 공직에 앉았을 때는 더욱 근신을 해야하며 공금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조계종-선학원 '한뿌리 합의'
'화합의 불교' 보여준 일

조계종과 선학원이 지난 6월 22일 관계정립을 위해 8개항의 합의문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합의한 8개항은 오랜 갈등을 씻어낼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했다고 보여진다. 선학원이 정관을 개정해 '임원은 선학원 분원장 중에서 선출한다' 로 바꾸면서 갈등이 표출됐고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렸다. 한때 양측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도제의 행자교육 입방 불허와 승적발급 거부 등으로 양측이 감정의 대립까지 보이기도 했다. 모두에게 도움되는 조치가 아니었다.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뿌리에서 태동했음을 상기할 때 더욱 그렇다.

내부의 문제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시기가 아니다. 불교 내에서 '관용' 이 없이 어떻게 중생들에게 감로법우를 뿌릴 것인가. 21세기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며, 여기에 불교는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채다솔〈서울 동작구 흑석동〉

적멸보궁 참배하는데
기도비 안냈다고 쫓겨나

봉정암은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을 정도로 이름난 기도처이다. 봉정암은 산을 거슬러 5시간 가량 올라가야 할 정도로 험난한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그곳에는 매일 많은 등산객과 불자들이 찾아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적멸보궁인 봉정암을 참배하고 온 사람들이라면 진한 감동과 부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이 더욱 사무쳐 다시 가보고 싶어진다. 이런 기도성지에서 어느때부터인가 참배객들로부터 일정액의 기도비를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사찰의 운영때문이란다. 사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였다. 아는 보살 30여명과 함께 봉정암을 참배했다.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예를 올리고 1박을 하려고 하였으나 한 스님으로부터 이곳에서 잘 수가 없으니 내려가라는 종용을 받았다. 기도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우리는 하는 수없이 발길을 돌려 5시간이나 넘는 길을 내려와야 했다.

몇 십년을 여기저기 기도처를 다닌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 일이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가르치는 불가에서 기도비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쫓겨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서글픈 생각이 든다.

김숙자〈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신도증 발급 자세한 정보
교계신문에도 실렸으면

신도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난감해 하는 신도들이 많다. 불교방송의 전파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직장일 등 바쁘게 생활하는 불자들은 방송 듣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불교계 신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신도증 발급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면 더 많은 불자들이 알고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사찰에서도 신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신도증 발급에 대한 홍보를 했으면 한다. 신도증을 발급받는다면 불자로서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김갑숙〈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내것 네것 가리지 않는
봉사활동 격려해주길

내가 다니는 절에는 신도들 20여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조직이 있다. 절에 행사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 명절때나 연말이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나간다. 또 인근 복지관에도 한달에 한 차례씩 나가 자원봉사를 한다. 그러나 우리절 스님들 중에서는 이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밖으로 봉사다닐 시간 있으면 사찰에 좀 더 신경써 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럴 때는 당황이 되고 봉사에 내 절 네 절을 가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다른 절에 다니는 도반들에게서도 종종 듣는다. 절 신도가 다른데 가서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스님들도 간혹 있다는 것이다.

신도들은 모두 스님을 존경한다. 그리고 어려운 절살림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격려는 못해줄망정 못마땅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 절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야말로 불교인들이 가장 경계해야할 탐욕이라고 생각한다. 박무량화〈서울 도봉구 방학동〉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9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5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법화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김 성 철(승가대교수) ·권 탄 준(동국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권 기 종(동국대교수) ·혜원스님(동국대교수) ·윤 열 수(문화재전문위원) ·종석스님(승가대교수) ·한 정 섭(금강선원이사장)
2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암도스님(전교육원장) ·최 봉 수(동국대교수) ·주명철(동국대교수) ·정 병 조(동국대교수) ·오 국 근(동국대교수) ·납 수 영(동국대교수) ·계환스님(동국대교수) ·김 상 현(동국대교수) ·묘주스님(동국대교수) ·장 휘 옥(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99년 6월 15일~99년 7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1999년 8월 7일(토) 오후 5시 (동산교육회관)

5. 원서교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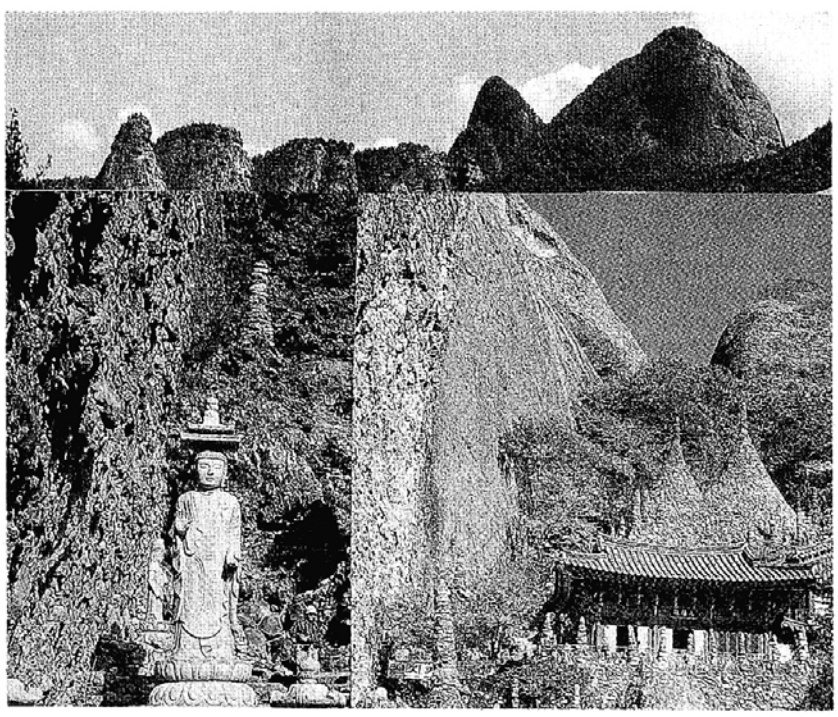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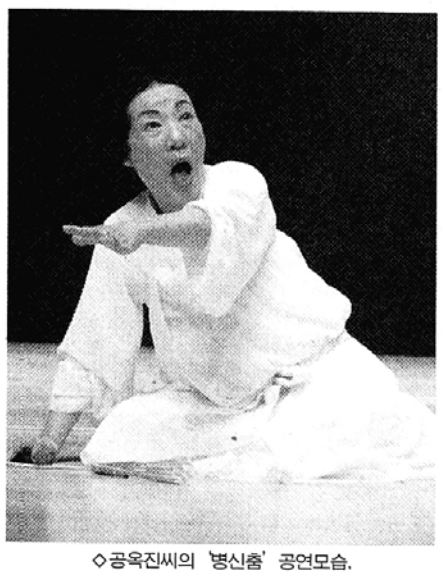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공옥진씨의 '병신춤' 공연모습.

불심으로 병마 떨치고 다시 무대서는 공옥진

18일까지 동숭홀서 '1인 창무극'

병마와의 싸움에서도 꺾이지 않고 불심으로 빚어진 예술혼으로 재무장해 다시 무대로 돌아온 이 시대의 장인 공옥진씨(68). 절망의 벼랑끝에 내던져진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진실의 몸짓 언어인 병신춤을 공옥진씨가 3년만에 대학로에서 다시 선보인다. 3일부터 18일까지 동숭홀대극장에서 열리는 '공옥진 1인 창무극'은 공옥진씨의 춤은 물론 봉산탈춤도 함께 공연돼 신명나는 춤판이 연출된다.

지난해 9월 KBS-TV '신한국기행' 촬영도중 갑자기 쓰러져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입이 돌아가는 등 건강 상태가 최악으로 치달았으나, 3월부터 이리 원효사로 거처를 옮겼으며 회복세로 돌아선 지금은 전남 영광 도갑사에서 참선과 기도 정진을 하며 춤사위를 가다듬고 있다.

'살아서 할 일이 많아 아직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공옥진씨는 "병석에서도 오로지 무대만을 꿈꾼 만큼 관객들의 오장육부가 흔들리도록 한(恨)과 흥을 함께 토해 내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종단 지정문화재' 제도 시행

조계종, 2001년부터…"성보보존 밑거름"
'성보' 창간호 출간…유산보존硏 올 설립

성보 및 사지의 사료를 정리하고,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고산)이 2001년까지 25교구본사 소장 성보에 대한 기초 및 실측 조사를 마무리하고 '종단지정문화재'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주목된다. 또 이 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사찰 소장 문화재 조사결과를 실은 〈성보〉 창간호를 출간했다.

'종단지정문화재' 제도란 국가 및 지방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성보 가운데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종단에서 지정하는 제도. 이 제도는 성보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또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를 위해 총무원은 성보박물관, 성보문화재연구원, 사찰문화연구원 등과 공조해 사찰 소장 문화재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성보의 전산화 및 통계 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또 '불교문화유산보존연구소(가칭)'를 올 하반기에 설립, 성보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연구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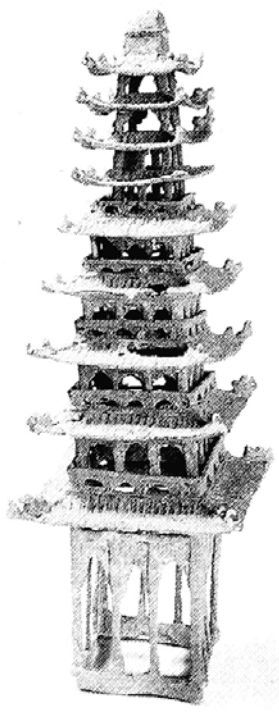
종단지정문화재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성보〉는 매년 '년보' 형식으로 발간되며, 여기에는 사찰 소장 문화재에 대한 자료 및 기록이 정리되고 문화재 전문가의 평가가 실린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수타사, 분황사, 보광사에 소장된 성보 14점이 소개됐다.

이 가운데 수타사 사천왕상은 조사 과정에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21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당시 사천왕상을 조사했던 김창균 전문위원(성보보존위원회)은 "이 사천왕상 복장물 중 월인석보와 월인천강지곡이 발견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주목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었다. 분황사 보광전의 상량문을 조사한 이강근교수(경주대 문화재학과)는 보광전 내진고주의 속이 썩고 비어 있어서 현재 진행중인 지붕 개량공사만으로는 건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새롭게 밝혀냈다.

또 현재 경기도 양주군 보광사에 소장돼 있는 구(舊)조계사종을 조사한 최응천 학예연구관(국립중앙박물관)은 "12세기에 조성된 일본 고야사 종과 비슷한 양식을 지니고 있다"며 "송대에 만들어진 전등사 종이 보물로 지정돼 보호받듯, 구 조계사종이 비록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지정문화재가 될 가치가 있다"고 재평가하는 등 성보 14점에 대한 사료 및 기록과 전문가의 의견이 개진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양산스님은 "사찰에 소장된 성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연구 활동을 꾸준히 펴고, 이를 토대로 성보 현황을 파악하는게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교계 문화재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매년 성보에 대해 심층조사를 하는 것이 성보 보호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고려시대 '금동9층탑'.

고미술 소품과 새로운 만남

다보성 고미술전시관
불상등 1500여점 소개

고구려시대 금동삼존불입상, 고려시대 범종 등 불교유물을 포함 1,500여점의 고미술품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 서초동 다보성고미술전시관(대표 김종춘)은 1일부터 15일까지 '고미술 새로운 소품의 만남' 전을 개최한다.

질높고 예술성과 역사성을 두루 갖춘 고미술품 가운데 저가품을 엄선해 소개하는 이번 전시회는 서민들도 조상의 얼을 친근감 있게 감상하고, 고미술품 한두점씩 소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되는 고미술품은 도자기 3백85점, 토기 100점, 철물류 50점, 목기류 60점, 서화 120점 등 총 1천5백여점.

이 가운데 금동관음보살입상은 고구려 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균형잡힌 비례와 근엄한 얼굴표정 등이 당시 불교의 의미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목조건축 양식을 이어받은 고려시대의 금동9층탑은 상륜부가 완전하게 남아있어 탑파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 고려시대에 제작된 범종 2구도 범종으로는 보기드문 소형으로, 중국과 일본의 종에서는 볼 수 없는 음통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 조상의 과학적인 주조법을 확인시켜 준다. (02)581-5600

오종욱 기자

"회암사지 사적 확대지정 필요"

경기도박물관 1차 발굴결과
"왕사의 격 갖춘 대찰"

태조 이성계가 태상왕으로 물러난 뒤 무학대사와 함께 머문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주 회암사터(사지 제128호)가 1차 발굴 결과 왕사의 격을 갖춘 대찰이며, 사지 규모도 기존 추정치보다 더욱 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박물관 발굴조사단(단장 장경호)이 98년 6월부터 99년 5월까지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회암사터 최북단 건물지인 정청은 마루와 온돌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왕이나 지체 높은 승려가 기거했던 곳으로 추정했다.

또 회암사터의 범위가 담장지 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곽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이번 조사결과 밝혀졌다. 기존의 담장지 외곽에서 새로운 담장시설이 발견됐고, 연못으로 추정되는 석축시설도 추가 발굴됐다.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사역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박물관 송만영 학예연구원은 "양주군에서 사적을 확대 지정하고, 사지의 격을 감안할 때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부도탑에 대한 보물 지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회암사터의 초석, 배수시설, 온돌 등 기초시설이 완벽하게 하게 발굴돼, 향후 회암사 건물지 원형과 고려시대 사찰 건축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종욱 기자

각연사통일대사탑비 신륵사 삼층석탑 보물지정





문화재청은 23일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소재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비〈사진 위〉를 보물 제1295호, 제천시 덕산면 소재 제천 신륵사삼층석탑〈사진 아래〉을 보물 제1296호로 각각 지정했다.

통일대사탑비는 귀부, 비신, 이수를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석비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신륵사삼층석탑은 상륜부 노반과 복발, 양화, 철주 등이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신라 석탑석탑의 양식을 계승한 고려초기 석탑으로 미술사·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오종욱 기자

매장문화재 전문기관 103곳 선정

문화재청은 6월 30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수행할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을 고지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국립중앙·지방박물관, 대학 산하 박물관, 국립·사설연구소등 총 103개 기관. 이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동국대박물관, 동국대경주캠퍼스박물관, 중앙승가대불교사학연구소 등이 선정됐다.

이에 대해 교계 문화재전문가들은 "사지발굴등 불교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도 교계 전문기관 육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문화 단신

'느낌, 극락같은' 대통령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연극협회가 공동주최한 제17회 전국연극제에서 극단 하늘개인날의 '느낌, 극락같은'이 최우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강백 작 곽종필 연출의 '느낌, 극락같은'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무대구성과 작곡, 안무, 집체무용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무대 공간의 적절한 활용과 배우들의 숙련된 연기력으로 연극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었고, 무희들의 생동감 넘치는 춤과 새로 창작된 음악이 연극을 한층 빛나게 했다는 평을 받았다.

해남 문화유적지도 발간

해남군 문화원은 해남지역에 널려있는 각종 유적과 유·무형문화재 등 모든 문화유적을 빠짐없이 수록한 해남군 문화유적지도를 발간했다.

가로 80㎝, 세로 50㎝ 크기의 이 지도에는 사찰, 불상, 부도, 비석, 불교건축, 고인돌, 패총, 탑, 송수대, 기념물등 총 19종류의 각종 문화유적이 수록되어 있다. 이 지도는 가로와 세로에 적힌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의 교차점을 이용하면 해당 문화유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불교문화 열린강좌 개설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스님)은 7월 22일까지 불교문화를 바르게 알고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교문화 열린강좌를 개설한다.

광주불교교육원 강의실에서 개최되는 이 강좌에는 최근 방북했다 돌아온 지선스님의 '북한의 불교문화'를 비롯 13일 김진택(전 광주교사불자협의회 회장)의 '민속과 불교', 15일 한국화가 김범수씨의 '불교미술의 세계', 20일 성호스님(관음암 주지)의 '불교서예의 세계', 22일 여연스님(해남 일지암 주지)의 '유럽 불교문화' 등이 마련됐다. (062)228-9098

'해동문학' 여름호 출간

계간 〈해동문학〉 여름호에는 원로시인 송준영의 시 세계가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 특집에는 송준영시신의 〈절집이야기·Ⅱ〉 〈대낮〉 등 11편의 시가 실려 있고, 유한근, 남진원 두 평론가가 그의 시세계를 집중조명하고 평가했다. 유한근 평론가는 "송준영 시인의 시를 선적 언어의 기호체계로 규정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림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세계종교사전' 번역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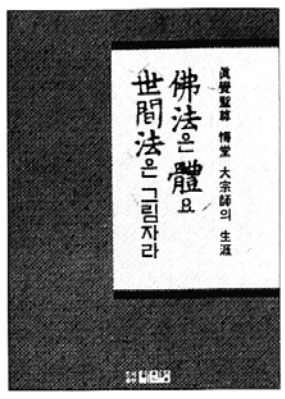
지구촌 종교용어 일목요연 정리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부터 현대의 신흥종교까지 세계종교의 기본용어 1천여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영국 펭귄판 종교사전이 번역 출간됐다.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 전 세계 종교학자 29명이 지은 〈세계종교사전〉이 바로 그것. 이 책에는 세계의 주요 종교들의 역사, 교의, 경전, 의례, 상징, 종파, 중요한 포교사와 사상가 등이 수록돼 있다. '불교'의 경우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스리랑카, 일본, 중국 등 국가별 분류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시대별 지역별 종교별 분류를 토대로 역사학 고문학 인류학 철학 언어학 등 다채롭게 접근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해주는 주제별, 원어, 표제어 색인은 사전의 유용성을 더해준다. 방대한 종교별 전문적인 문헌과 일반문헌을 함께 실어 종교와 관련된 넓은 정보망을 제공하고 있다. 편자는 비교종교학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자로 인정받는 존 히넬스 영국 맨체스터대 교수. 〈까치글방, 값 2만2천원〉

비로나자불 상징 진각종 연 뜻

회당 대종사 일대기 '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라'



진각종 종조 회당 손규상(悔堂 孫珪祥) 대종사(1902-1963) 일대기 〈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라〉가 출간됐다. 창종 반세기 만에 127곳 심인당, 78만여명 신도, 30여곳 유치원, 위덕대, 심인·진선중고등학교 등 우리나라 대표적 종단으로 급성장하게 된 요인을 이 책에서 엿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삶에 대한 번민을 한 손규상은 9년여간 전국의 사찰에서 구도생활을 하다 1946년 경북 달성 농림촌에 수행처를 마련, 육자진언 염송 49일 예비정진과 100일 본정진 이후 육자진언 묘리를 터득해 대각을 얻었다.

창종 반세기 재가종단 자리매김
염송·회사 주축 새불교운동 '성과'

깨달음을 얻은 회당 대종사는 쉬운불교, 중생을 위한 불교를 위해 달성에 교화단체 참회원(심인당)을 열었다. 참회원에서는 '심인(心印)의 진리'를 수행 초점으로 삼아, 본심을 밝히는 '심인 밝히기 운동'을 펼치며 종교적으로 심화해 나갔다. 회당 대종사는 심인의 진리는 '다라니를 내 마음에 새겨 본래 있는 불심인(佛心印)을 삼밀로써 깨달아 지심으로 참회하고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바른 실천은 '육자진언' 신행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실천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은 당시 민중들의 큰 반향을 일으켰고, 심인불교란 새불교운동으로 확산됐다. 심인불교는 신행 본질 문제에 접근하게 되자 법신비로자나불을 상징하는 '진각종'을 열고(1953) 밀교에 근원을 둔 종단임을 천명했다.

회당 대종사는 교화논리로 재가·실천주의를 주장했다. 불교는 출가와 재가로 나눠 발전돼야 흥할 수 있고, 실천적인 참회의 새불교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적 참회불교를 구축하기 위한 독특한 수행방법이 바로 염송과 희사금(喜捨金) 제도이다. 본심을 밝히는 방법으로 육자진언을 염송하고, 생활력을 갖추기 위하여 희사법을 세운 것이다.

이밖에도 회당 대종사는 새싹포교를 위해 자성학교, 문맹퇴치를 위해 건국고등공민학교, 국가의 안위를 위해 진호국사불사, 육영사업으로 심인중고등학교 설립 등 불교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재가불교운동을 펼쳤던 것이다.

반면 회당 대종사는 교세가 확대됨에 따라 내분도 여러차례 이겨내야 했다. 종단 체계화 과정에서 제자들의 불난과 준동으로 두 번씩 구속되는 수난을 겪었으나 그 때마다 참회의 입장에서 대처해 나갔다.

"심(心)은 곧 불(佛)이요, 불은 곧 심(心)인고로 불법은 심의 법이라. 불법은 체(體)요, 세간법은 그림자가 되나니, 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곧고, 체가 굽으면 그림자도 굽는 것이라" 진각종의 심인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설한 이 법문은 회당대종사 생애와 정신의 진면목을 한꺼번에 살필 수 있다. 진각종도들은 이 법문을 화두로 삼아 정진하며 종맥을 잇고 전법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진각복지회 사무국장 지현정사가 5년여의 집필과 2년여간의 감수과정을 거쳐 출간됐다. 출판기념회는 26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연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북한의 식량난 실상

법륜스님등 '1999 민족의 희망찾기'



35년 이후 활발히 이루어진 '북한동포돕기운동'의 결실을 묶은 〈1999 민족의 희망찾기〉가 나왔다. '북녘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자'라는 취지로 출간된 이 책은 모진 식량난으로 북한사회가 어떻게 변모했는지 알 수 있다. "숟가락 하나 남김없이 다 빼앗긴 일제 말기가 차라리 좋았다"라는 탈북 식량난민들의 증언은 죽음보다 더한 북녘동포들의 고통을 절실히 응변하고 있다.

1부 '전환기에 직면한 북한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서는 경제난과 식량난 이후 급속히 변모한 북한의 내부실정으로 인해 불가피해진 북한정책변화 가능성과 한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부 '북한 식량난의 실상'에서는 북한 식량난의 실태와 북한 어린이 그리고 난민들을 접한 활동가의 생생한 수기가 수록돼 있다. 법륜스님 외 3인 엮음. 〈정토 刊, 값 1만원〉

일귀스님 '역주 수능엄경' 출간

〈역주 수능엄경〉이 불일출판사에서 나왔다. 이 책은 대승경전의 핵심이며 선사상의 뿌리가 되는 〈수능엄경〉을 송대(宋代) 계환스님의 〈능엄경요해〉를 중심으로 새롭게 번역한 것이다. 무엇보다 주해를 모아 〈능엄경〉을 연구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옛부터 능엄경의 요지를 말할 때 "환경에 사로잡혀 물질에 끌려가는 혼탁한 마음을 버리고,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의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능엄이 다른 경전과 차이가 있는 것은 부처님이 아난과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총정리하여 설하셨다는 점이다.

일귀스님 옮김. 〈값 2만5천원〉

'도서·절요·선요' 합본집 나와

〈도서·절요·선요〉 합본집이 나왔다. 이 책은 역대 조사들의 어록 가운데 가장 수승한 법문만을 모아 엮은 것이다. 반면 내용이 심오하고 난해해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보충해 줄만한 책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불립문자 교외별전이라는 경전을 도외시 하는 종토에서 출간된 합본집은 의미가 높다.

〈도서〉는 규봉종밀선사의 저술로 교와 선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절요〉는 보조국사의 저술로 중국의 규봉, 하택 등의 주장을 인용 비판하여 정혜쌍수를 주장하고 있다. 〈선요〉는 고봉선사의 저술로 선법의 요의만을 밝힌 책이다.

〈수덕사 승가대학간, 값 1만8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문 예 촌
2	오직 모를뿐	은 석 준	물병자리
3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4	화엄의 길 생명의 길	도 법	선우도량
5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6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 형 조	여시아문
7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8	티베트 성자와 보낸 3일	심 재 룡	솔
9	파란눈스님의 한국선수행기	김 종 명	예문서원
10	타래	보 현	찬 섬

구입문의:(02)737-0695

지장성지를 찾아서 선진스님 엮음

화제의 책

지장신앙 기원·도량·성보 등 자세히



선진스님(도솔암 주지)이 엮은 지장성지 답사기 〈지장성지를 찾아서〉는 지장보살의 기원과 신앙의 전래, 기원과 유형 등 전반적인 지장신앙에 대해 알기쉬운 설명과 우리나라에 산재한 지장도량의 창건과 관련 이야기, 위치 등이 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다. 또한 지장보살의 현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김교각스님과 관련된 사찰들의 이야기, 삼국 고려시대 등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지장성보와 일본에 있는 지장 탱화들에 관한 소개도 곁들여 있어 지장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을 준다. 〈우리출판사 刊, 값 7천원〉

길 끝난 곳에 암자가… 정찬주 지음

화제의 책

산문에서 띄우는 마음 이야기



암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표 정찬주씨가 암자순례기와 명상산문을 묶은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를 펴냈다. 이 책에는 꽃잎으로 눈 씻는 법정스님의 불일암, 타다 안개 쉬어가는 작은 섬의 송광암, 마음을 쌓는 남매탑의 상원암, 지리산 봉우리들이 한눈에 보이는 백장암 등의 암자의 설화와 함께 소개돼 있다. 또 향나무 바리때를 만들기 위해 한조각 한조각 팔 때마다 절을 하는 어느 스님의 정성등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명상 이야기도 실려 있다. 〈해들누리 刊, 값 8천원〉

세상을 쓸고가는 웃음 조규성등 엮음

화제의 책

고통이야말로 인간만의 특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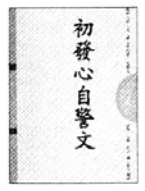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불교학자이며 사상가인 스즈끼 다이세스(1870-1966)의 저서 〈불교의 대의〉가 〈세상을 쓸고 가는 웃음〉으로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패전을 앞둔 1945년 4월23일 천황앞에서 불교에 대해 강의한 내용으로 대지(大智)와 대비(大悲)의 장으로 나눠져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전쟁으로 상처받은 당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불교의 본질을 규명하고 있다. 저자는 "고통을 통하여 인간성 고양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대회 刊, 값 4천5백원〉

새로나온 책



▲방하착하라=태고종 대승정 춘명스님의 자서전. 출생에서부터 출가, 일본유학시절, 종단활동 등 80여년의 삶이 잔잔한 이야기로 펼쳐진다. 또 '신앙' '기도의 정신' '불교에서 실천하는 교육관' 등 9편의 수필은 어떠한 것이 진정한 불자인가를 되새겨 보게 한다.

스님의 삶을 통해 불교근대사도 엿볼 수 있다. 저자는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못해 지금 이렇게 교계와 사회가 어지로운 것이다"며 "방하착하라"고 강조 〈일주문 刊, 값 7천5백원〉



▲초발심자경문=수행입문서. 그러나 일반불자들은 가까이 하기 어렵다. 초학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원문 다음에 자해난을 두어 계초심학인문은 쉬운 한문이나 어려운 한문에 관계없이 한문을 하나하나 음과 뜻을 달았다. 발심과 자경문은 여려운 한자를 중심으로 음과 뜻을 수록했다. 단계를 높여가며 공부할 수 있도록 엮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혜공스님 엮음. 〈운주사 刊, 값 4천5백원〉



▲태교와 육아법=어느 나라든지 고유의 문화와 정신적 문화를 동반한 육아법이 있다.

명상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큰 일인 임신과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태교는 무엇이고,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 세 살까지의 육아가 성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를 요약해서 번역했다. 타니구찌 지음. 구본일 옮김. 〈토방 刊, 값 6천원〉



▲마음을 다스리는 100가지 명상=인도의 음유시인이자 명상가인 인드라 초한의 삶의 철학. 삶의 지혜를 들려주는 것으로 명상과 사유를 통해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인도인들의 향기가 풍기는 단문들이다.

모두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숨겨져 있다.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독하다보면 가슴으로 다가온다. 이상영 옮김. 〈경성라인 刊, 값 6천5백원〉

건강을 선물합시다.

… 절기마다 기운의 흐름이 다르고,
그 흐름에 따라 양생법(養生法)이 다르다 …



· 소서체조 · 대서체조 · 고치집신

그림과 함께 익히는!!
날마다 젊어지는 절기맞춤체조
크라운판 260쪽, 정가 7,500원



신선들의 무병장수체조는 근육이 아닌
정신과 경락을 단련하니 그림과 함께
동작을 익히고, 틈틈이 설명을 본다
송나라의 신선 진희이선생이 창안함에
퇴계 이황선생도 친히 그려가며 즐겨 수련한
8가지 동작과 육기가결!

집중력 강화에는 '고치집신'
입냄새 제거에는 '적룡교해'
피로에 지쳤을 때는 '예수안정'
정력강화에는 '8가지 기법'…!!

24절기운동을 익히면서 8단금좌공법으로 보충하고
병이 있을 때는 신선들의 42처방을 참고하며
때때로 몸과 정신이 맑아지는 경문을 읊는다.
15일에 한 동작씩 24동작을 익히면 한달이면
건강해지고 1년이 안돼 신비로움을 느끼리라.

너무나 쉬운 동작 속에 진리가, 특히 수험생과 노인 투자자 등
주변의 친지분께도 선물하여 다같이 건강장수를 누립시다.
대유학당은 건강운동에 동참하는 뜻에서, 7월 한달 동안은,
5부이상 구입시 권당 5,000원에 드립니다.

평생의 반려자

하루의 투자로 평생의 삶을
미리 알 수 있는 『하락리수』!
우주의 생성소멸원리를 부호화하고 도식화하여
나의 능력과 운명을 알 수 있게 한 비결!!
태어남(생년월일에 음양과 오행이 부여됨)→
384운 중의 하나→ 나의 평생운과 우주의 운행이 일치하는가?
거스르는가?→ 또 올해의 운, 이달의 운, 오늘의 운과의 일치여부→ 일치한다면 길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일치하지 않으면 신중하고 조심하여 어려움을 넘긴다.
※대유학당에서는 하락리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대유학당은 좋은 책만을 고집합니다: 02)2232-8383, 02)2234-1786

주역입문, 대산주역강해(上,下), 주역전의대전역해(上,下),
대산주역점해, 주역인해, 미래를 여는 주역, 편해 매화역수,
하락리수(上,下), 음부경과 소서, 오행대의(원문, 번역),
천문류초, 태을천문도, 예언의 허와실, 절기맞춤체조.

큰스님 요즘 장경 보실시간 없으시죠!

정원스님의
增補 玄句集

一. 本書는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 속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全內典과 논어, 도덕경 등 外典 若干에서 參學人의 指南이 될 玄妙章句를 抄하여 한글 번역한 것임.

一. 原文과 譯文을 분리하였고 上中下卷으로 편집하되 上卷 諸經集352件, 中卷 經外集1127件, 下卷 句頌集1452件 都合2931項, 原文만 一十五萬餘字이며 每項目마다 出典을 세밀히 밝혔고 특히 하권 구송집은 첫째 字의 畫數順으로 安排하였음.

一. 此集은 抄譯者가 출가 이래로 삼십여 년 간 佛典을 열람하면서 긴요한 文句를 수시로 拔萃하여 쌓아두었다가 금번에 인연이 도래하여 출간하게 된 바 특히 抄譯者가 직접 毛筆로 原文과 譯文을 한 字 정성을 다해 書寫한 것이며 增補라고 이름한 由來는 몇 년 전에 역시 抄譯者가 출간한 바 玄句集을 대폭 修正補完한 연고임.

총판대리점 법우당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316-13
TEL : 994-4437 FAX : 994-4438

조선불교사 연구 질·양 아직 부족

30년동안 논문 27편 단행본 30여권 뿐
정치사적 접근탈피 다양성 갖춰야

최근 들어 왕조의 억불정책으로 왜곡되고 소외되어 왔던 조선불교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학계 곳곳에서 나오면서 조선불교 연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조선불교에 대한 연구는 삼국 고려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온 경향이 있다. 고승 비문만 해도 고려시대까지는 관련 자료나 연구서가 많지만 조선시대의 것들은 비문총람 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선불교 연구의 지지부진함은 자료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의 관심 부족이 더 큰 이유라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70년부터 98년까지 조선불교 관련 석·박사학위논문은 27편, 단행본은 30여권 남짓에 불과하다. 한국불교사 관련 학위논문이 모두 172편에 달하고 단행본이 160여권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다. 특히 단행본의 경우 원효 의상 원측 의천 지눌 사명 보우 한용운 백용성 등 고승의 사상이나 전기를 다룬 것이 전체 간행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다양한 주제선정 및 안목의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 고려의 경우 단행본은 조선시대에 비해 적으나 초·중·후기 고려불교사 논문집이 여러권 있고 대장경 관련 저서와 정권과의 관계를 고찰한 것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불교사는 이제 시작단계라는 것이 관련학자들의 주장이다. 아직 두드러지게 연구자가 늘고 논문이 많이 발표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라도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조선불교에 대한 연구는 억불의 시대여서 생명력을 잃었을 것이라는 선입견 극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상길 연구원(동국대 박물관)은 "조선시대가 억불의 시대임을 강조하느라고 진정 불교의 어떤 모습이 살아 남아있는가에 대해 무관심해 왔다"며 "조선시대에는 불교의식집이 많이 발간되는데 이는 민중과 좀더 가까워지고 대중화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사찰에 남아 있는 문서 비문 현판문 등을 발굴 이용할 수 있는 시야확대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조선시대 불교의 의례 의식 등을 통해 조선불교의 속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태까지 조선불교는 정치사적인 측면으로 접근되어 왔는데 이는 조선왕조실록 스님문집 등 국한된 자료로만 연구해온 결과물이다. 이를 탈피해 조선시대 고승들의 문집에 드러난 사상과 그들이 저술한 경전 주석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야도 사상 사회 경제 교단 등으로 확대시켜 천인으로만 여겨졌던 스님이 호패를 가졌던 점, 사원과 승려계층이 부담해야 했던 역과 경제적인 부담에 관한 연구, 조선왕조의 억불정책에 대한 불교계의 저항 움직임에 대한 연구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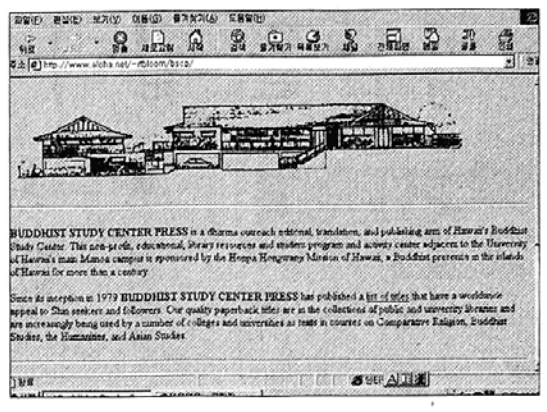
또 불교 자체 연구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조선의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상황과 관련지어 진행돼야 한다.

길희성 교수(서강대)는 '한국불교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논문에서 "조선조 불교사나 근현대 불교사 연구가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빈약한 형편"이라며 "고승 저술을 비롯해 금석문(金石文) 사지(寺誌) 각종 사서(史書)와 문집 등 한국불교 관계 문헌들의 정확한 번역작업이 선행되어야 조선불교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한국불교사 관계 박사학위 논문

학위취득자	논문제목	수여대학	년도
이재창	고려 사원경제의 연구	동국대	75
한기두	한국선사상 연구	원광대	75
홍윤식	한국불교의례의연구	경도불교대	78
김갑주	조선시대 사원경제 연구	동국대	82
김삼룡	한국미륵신앙의연구	공파대(波大)	84
진성주	고려후기 진각국사혜심 연구	중앙대	86
서윤길	고려시대의 밀교연구	동국대	87
권기종	고려후기의 선사상 연구	동국대	87
채상식	고려후기의 불교사 연구	서울대	87
신종원	신라초기 불교사 연구	고려대	88
고익진	한국고대 불교사상사 연구	동국대	88
장휘옥	신라 정토교의연구	동경대	88
한태식	신라 정토사상의연구	경도불교대	89
김복순	신라 하대 화엄종 연구	고려대	89
김용조	조선전기 국행기양 불사 연구	동국대	90
김상현	신라 화엄사상 연구	동국대	90
이봉춘	조선초기 배불사 연구	동국대	91
허흥식	고려불교사 연구	동국대	91
김광식	고려 최씨무인정권의 불교계 운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	92
김형우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	동국대	93
변상회	고려 현종대 불교계의 현황과 그 성격	숙명여대	93
박해당	기화의 불교사상 연구	서울대	96
김경집	한국불교 개화기 교단사 연구	동국대	97
이정주	여말선초 유학자의 불교관	고려대	98
최인표	나말여초 선종불교정책 연구	호성가톨릭대	98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美 불학硏 '일본불교'

日불교계 재정후원 사이트 개설
일본내 인도철학연구 결과 홍보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불교는 단연 티벳, 일본, 스리랑카의 불교다. 티벳불교는 달라이 라마의 달마 투어(Dharma Tour)로, 스리랑카불교는 외국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위빠사나 수행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본불교의 경우 조금 다르다.

하와이대 마노아캠퍼스의 불학연구소에서 개설한 사이트에는 일본불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보가 잘 가공되어 있다. 미국에서 동양학의 메카로 꼽히는 하와이대 불학연구소의 사이트에 일본불교를 소개하는 메뉴를 개설해 놓은 것은 일본불교계의 재정적 후원 때문이다. 특히 이 사이트에서는 일본에서의 '인도철학 연구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인도철학 연구는 1879년 12월 하라 탄잔스님(1819~1892)이 동경대에서 '불서강의'를 개설한 것에서 시작됐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도철학의 시작은 20년 뒤의 일이다. 영국의 옥스포드대학에서 8년간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고 1884년 귀국했던 난죠 분유스님(경도 본원사)이 동경대에서 산스크리트어 강좌를 개설한 때부터다.

일본에는 일찌기 헤이안시대에 중국의 당에서부터 시담학(Siddham)이 수입된 적이 있었으나, 난죠 분유박사는 일본에 서양적 의미의 텍스트 교정을 기반으로 하는 산스크리트학을 일본에 도입한 최초의 인물, 즉 산스크리트학 불교학의 창설자인 셈이다.

현재 일본의 인도철학 연구 경향은 불교논리학과 문법학이 함께 만나는 접점, 즉 '언어의 문제'를 둘러싼 인식론과 논리학 분야의 관심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철학을 단순히 문헌학적으로만 파악하려는 태도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으며, 1989년 '일본남아시아학회'가 조직된 것도 당연할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학회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남아시아연구〉라는 학술지도 발간하는데, 이같은 경향은 인도철학을 보다 실제적이며 포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의 인도철학의 역사는 1885년 동경대에 산스크리트어강좌가 개강된 이래 백여년이나 되는 짧지 않은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눈부신 발전을 해왔으며, 학자층과 그 논문발표의 양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서 있다. 현재 일본에서 인도철학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기관과 그 학술잡지는 매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에이키치 이케야마의 〈부처와 중생〉, 알프레드 블름의 〈신불교의 정신〉, 타카마로 시가라키의 〈개달음이 있는 정토세계〉 등 일본불교를 개괄해 놓은 연구서 20여종을 소개한다.

이 가운데 일본불자들의 필독서로 꼽히고 있는 책은 바로 〈부처와 중생〉. 저자 에이키치 이케야마는 이 책에서 일본불교의 특징을 니테와 괴테의 철학과 문학으로 설명해 놓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aloha.net/~rtbloom/bscp/index.html

"권상로박사의 전통불교학 비판 투철한 현실인식과 신심 바탕"

이재헌박사 '권상로의 불교개혁사상' 발표

"권상로는 전통 강원 교육과 근대적 불교교육을 겸비하여 전통교학과 근대불교학의 접범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입성해금 이후 기나긴 억불에서 벗어나 불교 중흥의 분위기가 무르익던 1900년대 초에 20대 청년 교학승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그였기에 불교계의 구습(舊習)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남달랐고 또한 30대 초인 1910년대에 불교계 중앙 종단의 소임을 맡아보게 되면서부터는 불교근대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 또는 전통 교학의 근대적 변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보조사상연구원이 개최한 제21차 월례발표회에서 '권상로의 불교개혁사상'을 발표한 이재헌 박사(정신문화연구원)는 전통강원 교육을 통해 성장했던 권상로가 전통 불교학을 비판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는데 이는 그의 투철한 현실 인식과 신심(信心)의 바탕 위에서 가능했던 일로 보고 있다.

이 박사는 권상로가 불교의 개혁을 주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평등주의적 바탕 위에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원융적인 불교 사상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묵수(墨守)보다는 활용(活用)을 중시했기에 전통을 과감히 비판하고 서양의 근대 정신을 받아들여 그것을 불교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오늘날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불교의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 이 박사는 다만 이러한 원융성과 현실성은 자칫 지계(持戒) 관념(觀念)의 약화와 현실 타협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몸에 대한 집착심 버리자"

'전통과 현대' 여름호
안옥선씨 '불교의 몸' 발표

최근 발간된 계간 〈전통과 현대〉 여름호는 '몸의 문화철학적 조명'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안옥선 강사(조선대)는 '불교의 몸: 속박과 해탈의 장소로서의 몸'에서 "불교에서는 몸을 긍정적인 해탈의 장소로서 보는 관점과 부정적인 속박의 장소로서 보는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볼 때 현대인의 몸 가꾸기를 통한 몸의 상품화 과정은 몸에 대한 개체적이고 배타적인 소유의식과 몸에 대한 집착심을 불러일으키고 강화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불교의 도덕적인 몸의 이상-해탈의 몸-은 몸의 개체적 소유의식과 몸에 대한 집착심을 버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서 현대의 몸의 상품화가 장려하는 몸에 대한 태도를 정면으로 거부한다. 몸에 대한 집착과 개체적인 소유의식은 우리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참된 우리를 은폐시키며 궁극에는 우리를 갈등과 대립이라는 감옥 속에 유폐시키는 장본인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붓다의 응답은 '집착하지 않음' 그리고 '집착은 속박이요 무집착은 해탈이다.'로 너무도 간결하고 단순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가적 몸과 소속된 삶-이승환 교수(고려대) △여성 몸의 유교적 구성:몸의 주체화를 위하여-이숙인 강사(국민대) △몸에 대한 장자의 비판적 기호학-박원재 강사(고려대) △전통의학에서 보는 몸-노영범 교수(동국대) △몸의 문화사회학적 비교:유럽과 아시아-김덕영 강사(서울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일연스님의 '중편조동오위' 연재

'불교와 문화' 여름호

국내 최초로 완역된 일연스님의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가 실린 계간 〈불교와 문화〉 여름호가 출간됐다.

〈삼국유사〉의 저자로만 알려져 있는 일연스님의 또 다른 저서인 〈중편조동오위〉는 책명만 전해져 오다가 민영규 선생이 일본 경도대학 소장의 1680년 간본이 일연스님 저술임을 밝혀냄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이책은 중국 선종의 일파인 조동종의 오위설에 대해서 일연이 주를 보완하여 엮은 것이다. 〈중편조동오위〉는 3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집으로는 '21세기 해양의 시대와 동아시아불교'를 주제로 '21세기 해양의 시대와 동아시아 불교의 미래'-윤명철 교수(동국대), 한·중·일 해상교류와 관음신앙-조영록 교수(동국대), 불전 및 기록으로 보는 불교와 해양-송위지 교수(외대) 등을 수록했다.

백련학당 무료공개강좌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은 99 백련학당 여름 무료 공개 특강을 실시한다.

16일부터 8월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는 백일법문 여섯주제 △성철스님의 백일법문 탄생 △불교의 본질과 실상 △깨달음과 진리 △그 영원한 물음·화두 △참다운 법, 참다운 도-중도 △백일법문의 현재적 의미 등을 목정배 교수(동국대)가 강의한다. (02) 744-1544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투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종락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물음, '너는 누구냐'는 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장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범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제 기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마음을 알라야식까지 세분

유가사지론 ㊦

경전 속의 禪 사상 25

글쓴이



조환기
〈동국대 강사〉

대상인식 · 욕망은 허망분별 때문
욕심 여의는 수행법 단계적 안내

20세기가 눈에 보이는 영토의 확장을 위한 시기라면 앞으로의 시대는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먹을 것이 풍요로워지면 인류의 삶도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인류의 망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인간의 욕심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인류의 발전도 풍요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서양의 문화에서 '천국이 너의 마음 속에 있노라'라고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말한 이후 1800년의 세월 속에서 배제되어 왔던 마음의 문제는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발견하면서 심리학이란 학문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무의식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다. 그러나 유식학에 들어오면 프로이드는 자리를 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유식학은 무의식의 너머에 있는 문제들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특히 유가론은 이 마음을 좀더 세분하여 심·의·식(心·意·識)의 구조로 다룬다. 무엇보다도 식에 더욱 중점을 두어 다룬다. 그래서 전5식과 제6의식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 자아의식을 제7마나스(manas)로, 인간의 삶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식으로서의 제8알라야식(alaya)를 파악해낸다. 그래서 모든 식작용을 그치는 멸진정의 수행으로 유도한다.

왜 유식은 식(識)에 대한 문제를 깊이 사유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인식의 차이가 행위의 차이를 결정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 명의 여자를 호랑이가 보면 먹을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범부는 좋아하는 여색으로 인식하고, 부처님은 오염덩어리로 인식하는 차이를 낳는다. 이는 결국 행위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다.

유가론에서 강조하는 선정의 체험 속에서 불교의 요가를 행한 수행자들은 오직 식(vijnapti)만 있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대상에 가치를 두는 행위가 분별의식에서 기원했음을 안 것이다. 식도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는 모두 허망분별(虛妄分別)의 소산이다. 따라서 그 속에서 괴로워 하거나 고통받는 것도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유식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은 끊임없이 현현하는 허망분별의 지멸이었던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의식이 지멸되면, 적멸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유가론은 멸진정까지 이어지는 수행체계에서 이러한 허망분별을 지멸하고, 무분별지를 얻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삶의 목표로 추구하는 욕망의 작용들이 모두 허망분별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허망분별을 벗어나면 추구해야할 무엇도 없게 되는 것이다.

원효스님은 무덤 속에 들어있던 해골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생기니 갖가지 법(法)이 생기고(心生則種種法生), 마음이 멸하니 갖가지 법이 멸한다(心滅則種種法滅)"고 하였다. 원효는 마음이 허망분별인 법을 낳고, 이들이 고통의 원인이 됨을 깨달은 것이다. 유가론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분별의식을 완전히 지멸하는 방법과 보살이 가야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인류의 수많은 종교, 철학의 가르침들은 욕심이 허망함을 알고, 벗어나게 하려고 많은 가르침들을 펴왔다. 그러나 인류는 여전히 욕심의 삶,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욕심의 정체를 파악하여 벗어나고, 결과를 살피는 행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교의 수행 속에서는 이욕행(離欲行)이 들어있다. 특히 유가론에서는 이 이욕의 수행법을 단계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또한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불교의 수행법인 선정을 수행하는 유식학에서는 선정체험 속에서 드러나는 지혜를 중시한다. 이 지혜는 무분별지(無分別智)이다. 분별에 의한 행위가 허망분별에서 기인했으므로 그러한 분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유가론은 이 무분별지를 자신의 선정체험 속에서 얻도록 한다.

앞으로의 시대는 정보화의 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정보가 인류의 희망은 아니다. 오히려 이 알은 것은 삶 속에서 실행에 옮겼을 때에 정보는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실천 즉, 선정수행이 없는 이론은 불교의 완전한 이해인 깨달음과 희망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유가론은 법상종의 소의논서로서 선정 수행의 실천과 실천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설한 논서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⑥

의지의 길 ①

세계를 만드는 건 자신
외부 환경 탓하지 말라

우리는 흔히 불교의 교리가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시 말하면 실행하기는 어렵고 이해하기는 쉽다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벌겋게 핀 숯을 손에 쥐고 불평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을 놓아버려야 한다. 물론 아니오, 못 놓겠어요, 그저 식기만 하면 돼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인내심을 배울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수행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그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놓으면 된다. 우리의 내면적인 집착을 놓아버리면 된다. 우리는 알을 낳은 어미새와 같다. 알을 품어서 부화시킬 책임이 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들은 썩어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사물을 바로 보고 수행정진하고 마지막으로 놓아버리면 된다.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와 모든 처방약이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포기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나의 가족이니 나의 수행이니 하는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 견해는 또 다른 고(苦)의 원인이 될 것이다.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든 홀로 살든 행복을 찾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단지 법(法), 팔정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솥에 물과 쌀을 부어넣는 것만으로 즉시 밥을 얻을 수는 없다. 불을 지피고 물을 끓게 한 다음 충분히 뜸이 들도록 해야 한다.

지혜를 갖추면 문제점들은 자기 지은 업에 따라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 살림살이를 바르게 보게 되면 업장을 알게되고 인과를 배우게 되어 장차 우리의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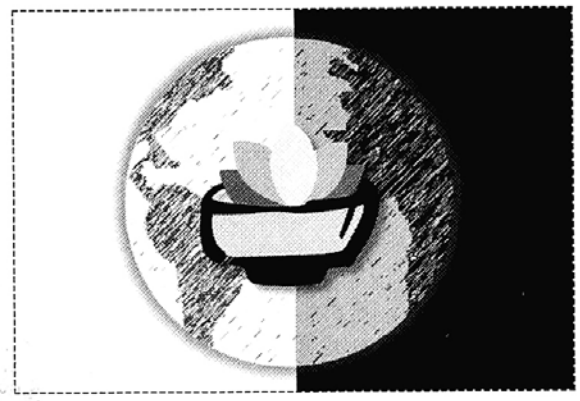
우리는 수행이 어려워지면 게을러서 못한다, 시간이 없다는 등 우리의 의지력은 제쳐놓고 외부환경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일 뿐이다. 진실되게 노력하고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 한 두번 시도하여 평온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는데 조금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방황하게 놔두어서는 안된다.

마음은 물론 길들이거나 쉽지 않은 물건이다. 말(馬)을 길들일 때 고집이 정말 세면 얼마동안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질 수 있다는데 있다. 우리는 올바른 노력으로 지혜로울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팔정도를 수행하려면 세간 속에서 살되 그 위에 머물러야 한다. 오계를 위시하여 계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모든 선행의 근본이다.

마하 부하 스님의 수행처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스님의 신통력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마하 부하 스님은 웃으며 세상에서 오직 한가지 진짜 신통이 있으니, 법의 신통력이 바로 그것이다. 마음을 해탈하게 하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가르침이야말로 신통 그 자체다. 다른 신통은 모두 놀음판의 속임수일 뿐이다. 그런 신통은 우리가 생로병사와 맺고있는 관계 거기로부터의 해탈이라는 인생의 진짜 경주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시켜 정신 팔게 할 뿐이다"고 말했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학산책 유전자 조작



인간만을 위한 위험한 실험
생태계 인위적 파괴 · 인간생존 위협

99년 4월 26일 8시에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는 유전자 변형(Genetically Modified) 식품의 위험성을 다루었다. 자연과의 관계를 잊어버려 인간 위주만의 사고로 인해 스스로 만든 멍에에 걸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생명체를 인간의 편리함만을 위하여 무책임하게 생명체에게는 치명적인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다.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는 별도로 생태계의 인위적인 파괴, 그로인한 인간 생존의 위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전자 조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비슷한 종간의 교접을 통해 품종을 개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보다 생산을 많이 하고 병충해에 강한 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벼를 서로 수정시켜 새로운 종류의 벼를 만들거나 암말과 수나귀를 교접시켜 짐을 나르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노쇠를 만드는 일이 이에 속한다. 동물의 경우 다른 종과의 교접으로 생긴 새로운 개체는 다음 대의 자손을 낳지 못한다. 그리고 이 경우 다른 종이기는 하지만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가까운 종들끼리의 교접이다. 이 방법에 의한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는 달리 전혀 상이한 종과의 교접이나 교배가 있다. 이 방법으로 생산된 유전자 조작 음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토마토에 넣는 식이다. 이 방식은 진화의 역사에서나 동식물 계통에서 크게 다른 두 종간의 부분적 결합이다. 예를 들어 제초제에 강한 콩을 만들기 위해 이 제초제에 면역성을 보이는 세균을 발견하여 기른다. 이 세균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어떤 부분이 면역성을 나타나게 하는가를 판단한 후에 그 유전인자를 추출하고 이를 콩 유전자의 프라스미드에 연결한다.

즉, 박테리아의 유전자 일부를 종이 전혀 다른 콩에 주입하는 것이다. 과정도 간단해 박테리아를 배양한 곳에 콩 잎사귀를 심어 놓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유전자의 정보는 다른 작물에게도 쉽게 전달될 수 있다. 콩은 정상적인 자기 유전자 중의 일부를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의 유전자로 대치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는 암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 연구중 유전자 조작의 위험성을 알게되어 미국 립보건원(NIH)의 연구기금을 도둘려준 페이간박사가 주장하는 위험한 유전자 실험에 속한다.

〈가디안(The Guardian)〉 지는 스코틀랜드의 한 연구소에 근무하던 박사가 폭로한 실험을 기사화 했다. 유전자 조작이 된 감자를 지속적으로 쥐에게 먹였더니 쥐의 췌장은 비대해 지고 간, 위장은 작아졌으며 뇌 또한 작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면역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증거라고 한다. 그는 연구소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해고되었다. 또, 캐나다 해안지방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연어의 알을 유전자 변형시켜 큰 연어를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다. 지금은 실험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어느 이상 강도를 높이게 되면 연어 앞머리에 기형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패한 실험으로 인해 생긴 생명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습이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생명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가올 식량난을 걱정하면서 유전자조작 식품의 당위성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선진국들이 남아 버리는 음식이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다는 현실을 생각할 때, 특히 타종간의 유전자변형 방법은 알지 못하는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일타 큰스님의 신간

불자의 기본 예절

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예절의 길잡이 !



바른 수행의 밑거름이 되는 불교집안의 예절.
불가(佛家)의 독특한 예절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깨달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세수 · 목욕 · 입측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I. 불자의 마음가짐과 언행
II. 합장법과 예배법
III. 사찰에서의 예절
IV. 법문 듣는 법
V. 절집안의 생활예절

4×6 판 / 3,500원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 · 제자 · 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생활속의 기도법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4×6 판 / 3,500원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전하시는 큰스님의 법어집.

· 기도(祈禱)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 주변의 기도성취 체험담 모음집.

· 시작하는 마음 — 신국판 / 값 5,000원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 신국판 /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강설집.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 신국판 / 값 5,000원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푼 해설집.

· 범망경보살계 1 - 5 — 신국판 / 각권 6,000원
큰스님의 보살계 법문.

· 법공양문 —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 감로법문 — (5개 1세트) / 값 12,000원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부처님 우리곁에 다시 오신듯…

간다라 미술대전

2천년 불교미술 원류와 만남
부처님일생 사실적 조각 '눈길'

7월1일~8월29일 예술의전당 미술관



◇ 첫 선정'(68.6cm). 싯타르타 태자가 사문유관 후 첫 선정에 잠긴 모습이다.

불교신앙의 결정체로서 우리가 매일 경배 드리는 부처님상. 그 원형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은 자신의 상을 만들어 경배 드리려는 시도를 일체 금지시켰다고 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 입멸후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탑을 통해 가르침을 확인하려는 탑신앙이 유행했고, 근본 가르침인 인연설은 불탑에 새겨진 설화형식의 부조를 통해 표현되었다. 그래서 부처님 입멸후 불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500여년동안 부처님은 보리수나 스투파, 법륜(法輪), 보좌(寶座) 등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됐다. 불자들은 상징화된 형상속에 부처님이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무불상(無佛像)시대를 거쳐 비로소 인간적인 모습을 한 부처님상이 최초로 태어났는데 이것이 간다라 불상이다.

불교미술의 원류로 경기받는 간다라 불교미술작품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왔다. 간다라불교미술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간다라미술대전'이 7월 1일~8월 29일까지 예술의 전당내 미술관에서 열린다.

서양고전미술과 동양불교의 만남이 이루어낸 간다라불교미술의 진품들이 국내에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시에는 파키스탄의 국보급 간다라 유물 121점이 선보인다. 카라치 파키스탄 국립박물관을 비롯해 이슬라마바이드 박물관, 탁실라·스와트·페샤와르· 디르 고고박물관 등 6개 박물관에서 진품을 가져왔다. 대승불교의 요람이었던 고대 불교 도시 간다라의 발굴현장과 사원이 있었던 터, 사원에서 쓰던 생활용품, 사리기, 역대 군주의 모습이 담긴 화폐, 장신구, 상아 세공품, 일상용기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도리천으로부터의 강하' '마야부인의 꿈과 꿈의 해석' '탄생과 목욕' '마왕의 공격' '우두벨라 가섭에게 독룡이 든 사발을 보이는 붓다' '붓다와 재가신도들' '붓다의 관과 슬퍼하는 제자들' '대열반' '붓다의 화장' 등 한편의 그림을 보듯 부처님의 일생에 초점를 둔 사실적 조각들이 눈길을 끈다. 다만 뼈와 핏줄이 드러날 정도로 고행하며 수도에 정진하는 형형한 눈빛의 그 유명한 '싯타르타 고행상'은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국외전시가 금지돼 복제품으로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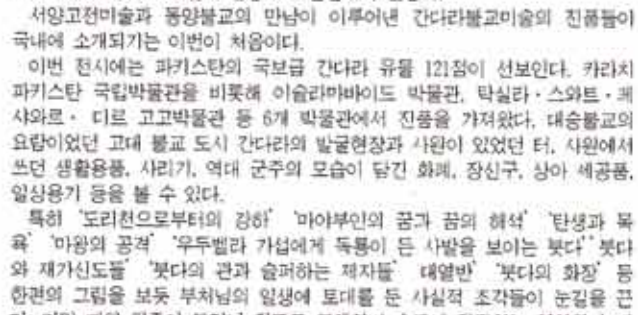
실아서 금방이라도 움직일듯 표정과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된 '붓다와 브라흐만들', 부처님 입멸후 이뤄진 결집의 상황을 보여주는 '경전에 관해 의논하는 승려들' 등도 눈여겨 볼만한 작품들이다.

간다라 미술은 점판암계통의 주재료로 조각후 반질반질 윤이 나게 연마해, 검게 윤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단독 예배상을 제외하면 부처님의 일생을 새긴 이른바 불전부조(佛傳浮彫)가 간다라 불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중인도 불상 조각이 부처님의 전생설화를 위주로 부조 작품을 조성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간다라미술은 초월적인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고뇌하고, 깨닫고, 제도하려고 무한히 애쓰다가 열반하신 부처님과 제자, 그리고 그 후의 승단의 변천을 표현하는데 주력했다.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간다라불상은 그리스 신상(神像)의 영향을 받아 머리카락이 물결모양의 장발이며, 눈언저리가 깊고 콧대가 우뚝해 서양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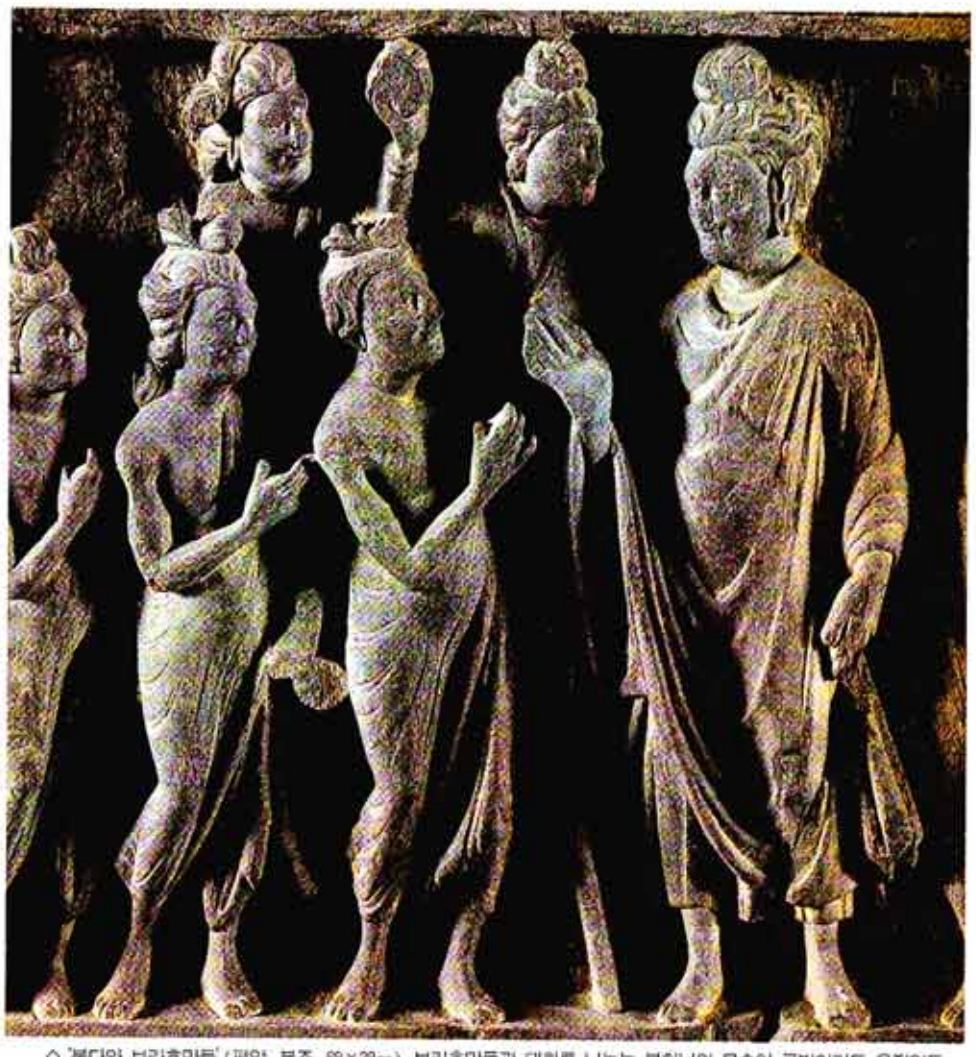
이같은 간다라의 불교미술은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는 물론 서역과 동아시아 전역으로 전해져 불교미술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한국의 대승불교 미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중앙의 부처와 그 양쪽에 보살이 있는 삼존상은 우리나라 삼존상의 원형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그 밖에 반가사유상, 관세음보살이나 미륵보살의 신앙도 간다라 지방에서 일어나 한국의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세련되고 사실적이면서 우아한 이상적 사실주의 조각의 최고 걸작이라 하는 경주 석굴암 불상의 미소와 조각양식도 간다라 미술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이번 전시는 한국불상의 원류인 간다라불상의 전통을 다시한번 조명함과 동시에 21세기 새로운 문명시대에 걸맞는 창조적 불교미술부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02)580-13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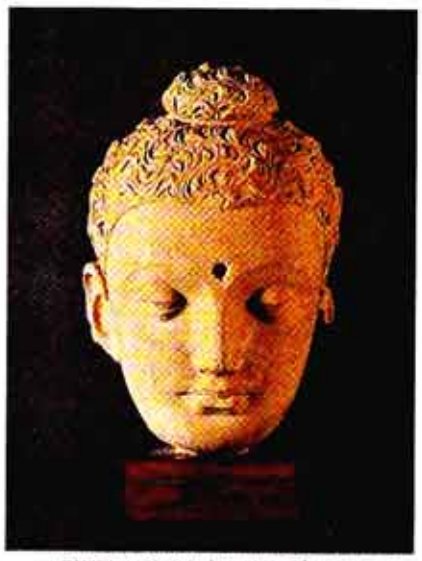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6월30일 열린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무하마드 아신 파키스탄 정무장관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 '붓다와 브라흐만들'(판암, 부조, 66×38cm). 브라흐만들과 대화를 나누는 부처님의 모습이 금방이라도 움직일듯 생생하다.



◇명상적 분위기의 '대형 불두'(55.9×34.6cm). 4세기.



◇ '불설법도'(60cm). 오른쪽과 왼쪽이 떨어져 나갔지만 중앙에 부처님이 설법자세로 연화좌에 앉은 모습이 여여하다.



◇ '스투파형동제 사리기'(39.4cm). 사방에 소형불상이 있다.



◇ '옷을 바꿈'(11×27cm). 출가를 위해 성을 탈출한후 말과 마부를 성으로 돌려보낸 싯타르타 태자(오른쪽 두번째)가 마지막 남은 세속의 흔적인 의복을 사냥꾼과 바꿔입는 모습.

전시 총책임자 아쉬랍 칸 박사

"간다라미술대전 계기 한-파 문화교류 기대"



"대승불교가 처음 시작된 파키스탄의 불교문화를 대승불교가 꽃핀 한국에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하마드 아쉬랍 칸 박사(파키스탄 문화부 고고박물국 부국장)의 말이다. 칸 박사는 프랑스 파리 소르본느대학에서 간다라미술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귀재로 이번 전시의 총책임을 맡았다.

불교전성기 시절 파키스탄 지역에는 6,000개의 이상의 절이 있었다고 전하는 칸박사는 현재 복원된 절은 30개 정도며 사적지는 500군데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이슬라마바이드에 정부 지원을 받는 불교센터가 있어, 이곳에서 소수의 승려들이 교육과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고.

간다라미술은 파키스탄의 유명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외에도 프랑스 파리의 기메미술관에 6,000여점,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12,00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과 파키스탄의 첫 불교문화교류라는데 이번 전시회의 큰 의의가 있다"는 칸 박사는 "이를 계기로 양국간 불교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다라는 어떤 곳

간다라는 힌두쿠시와 카라코람 산맥으로 둘러싸인 지금의 파키스탄 페샤와르의 평원 지역이다. 간다라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기원전 3세기 아쇼카왕 때이다.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쇼카왕은 불법에 귀의한 이후 많은 포교승들을 인도 각지로 보냈는데, 그 중에 서북방의 간다라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일찍부터 동서의 교통로로 자리잡았고, 기원전 4세기 동방원정을 나섰던 알렉산더의 발길이 닿았으며 그가 남긴 헬레니즘 문화는 인도에서 전해진 불교와 만나 쿠샨왕조(Kusana 기원후 1세기중엽~220년)의 찬란한 불교미술을 탄생시켰다. 특히 이곳에 진출해 있던 그리스인들은 삼과 존재의 본질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던 불교에 상당히 매료되어 불전에는 메난드로스라는 그리스인 왕과 나가세나라는 인도승려가 불교에 대해 나눈 문답을 기술한 (밀린다팡하)라는 경전이 전하고 있을 정도다.

파키스탄 페샤와르 평원 아쇼카왕때 불교 전래

간다라는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에 불교가 처음 전해지던 시기에 대승경전을 중국에 전하고 번역했던 많은 승려들이 이곳 출신이었고, 대승경전 중에는 이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듯한 내용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대승불교의 논사(論師)들인 마명, 무착, 세친 등이 이곳 출신이다. 혜초, 현장과 같은 고승들이 구법순례를 했던 곳도 간다라다.

7세기 전반 인도를 순례한 현장스님에 의하면 페샤와르 분지에만 1,000여군데의 사원이 있었으며, 이러한 불교사원들에는 커다란 불탑과 수많은 불상과 보살상들이 봉헌돼 있었다고 전한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

但以空寂爲自體 勿認色身
단이공적위자체 물인색신
以靈知爲自心 勿認妄念 妄念若起
이영지위자심 물인망념 망념약기
都不隨之則臨命終時 自然業不能繫
도불수지즉임명종시 자연업불능계
雖有中陰 所向自由 天上人間
수유중음 소향자유 천상인간
隨意寄託 此卽眞心 身後所住者也

수의기탁 차즉진심 신후소왕자야

만약 망령된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을 모두 따르지 않는다면 목숨을 마칠 때에 자연히 업에 매이지 않을 것이다. 비록 중음신(中陰神)으로 있다 해도 향하는 곳이 자유로워서 천상이나 인간 세계에 마음대로 의탁한다 했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몸을 버린 뒤에 가는 진심이니라."

수심결(修心訣) ①

三界熱惱 猶如火宅 其忍淹留
삼계열뇌 유여화택 기인엄류
甘受長苦 欲免輪廻 莫若求佛
감수장고 욕면윤회 막약구불
若欲求佛 佛卽是心 心何遠覓
약욕구불 불즉시심 심하원멱
不離身中 色身是假 有生有滅
불리신중 색신시가 유생유멸
眞心如空 不斷不變 故云百骸潰散
진심여공 부단불변 고운백해궤멸
歸火歸風 一物長靈 蓋天蓋地
귀화귀풍 일물장령 개천개지

고골출수 자혈사경 장좌불와
一食卯齋 乃至轉讀一大藏敎
일식묘재 내지전독일대장교
修種種苦行 如蒸沙作飯
수종종고행 여증사작반
只益自勞爾 但識自心 恒沙法門
지익자로이 단식자심 항사법문
無量妙義 不求而得
무량묘의 불구이득

삼계(三界:욕계·색계·무색계)를 윤회하는 고통은 마치 불난 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오랜 고통을 받으려 하는가. 그 윤회를

윤회 고통은 마치 불난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러 있는가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는 길밖에 없다. 만약 부처를 찾으려면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을 것인가. 바로 이 몸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몸은 무상하여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이 진심(眞心)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육체는 죽으면 흩어져 불이나 바람의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한 물건(마음)은 영원히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는다.' 하였다.

嗟夫今之人 迷來久矣
차부금지인 미래구의
不識自心是眞佛 不識自性是眞法
불식자심시진불 불식자성시진법
欲求法而遠推諸聖 欲求佛而不觀己心
욕구법이원추제성 욕구불이불관기심
若言心外有佛 性外有法 堅執此情
약언심외유불 성외유법 견집차정
欲求佛道者 縱經塵劫 燒身燃臂
욕구불도자 종경진겁 소신연비
敲骨出髓 刺血寫經 長坐不臥

고 성품 밖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뜻에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동안 몸을 불사르고 팔을 태우고, 뼈를 부수어 골수를 내고, 피를 내어 경전을 베끼며, 눕지 않고 오래 앉아 참선만 하며, 아침 한 끼만 먹으며 나아가 모든 대장경을 다 읽고, 온갖 고행을 닦는다 해도 이는 모래를 삶아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다만 스스로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알면 갠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이치를 찾지 않아도 절로 얻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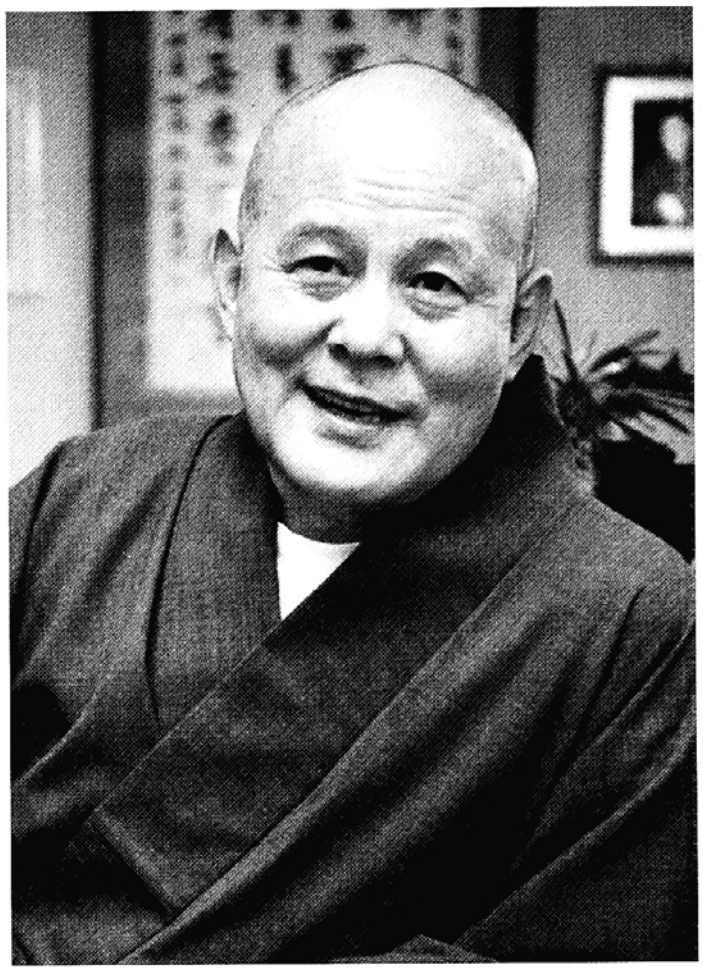
김원각〈시인·역경위원〉

수심결 수심결은 수행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세인들에게도 널리 읽혀져야 할 마음 닦는 길의 지름길이다. 인간이 누려야할 행복은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이 해방의 길은 외부가 아닌 자신의 마음에 있음을 극명하게 가르쳐주는 지침서이다. 마음은 바로 자신의 처소이다. 여기에 절을 짓고 등불을 내걸지 않는다면 고통의 그림자는 사라질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다.

큰스님 수행한담

"계율 지키는 삶

지관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내가 처음 절에 들어간 것은 사실 출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정양차 갔던 것이지요. 고향인 영일과 가까운 보경사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그 때가 15살 때쯤 되었을 겁니다. 한 1년 정도 요양을 했을까요. 스님께 부처님 말씀도 듣고 부처님을 아침 저녁으로 뵙다보니 불교에 귀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 아픈 몸도 나았구요. 그 때 마침 해인사서 온 스님이 있어서 그 스님을 따라 해인사로 갔지요. 16살 때 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원에서 7년 가까이 공부를 했지요.

저같은 교학승들은 참선을 안하고 선승들은 교학공부를 전혀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승들도 참선뿐만 아니라 교학승 못지 않게 경전을 보고 공부합니다. 공부가 밑바탕이 돼야 참선을 통한 깨우침이 있을 수 있지요. 무지렁이에게 참선만 시킨다고 제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9살 때쯤이었습니다. 6.25 전쟁 터지기 직전이었지요. 워낙 혼란스럽고 시국이 어지럽다보니 조용히 공부할 곳이 별로 없었어요. 해인사 대중도 빨갱이에 의해서 해산당했구요. 그래서 혜안스님이랑 보일스님이랑 셋이서 공부할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울릉도가 조용하고 좋다는 얘기를 들어왔던 터라 우리 세사람은 울릉도에 가서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릴 때 객기였는지 앞 뒤 재지 않고 포항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를 향해 갔지요. 그 땐 포항에서 밤에 출발하면 밤새도록 가서 새벽에야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에 도착해서 내리니까 검문하던 경찰이 따라 오라고 하더라구요. 울릉도에는 대처승 절뿐이었는데 당시 우리 세사람은 가사 장삼에 삿갓쓰고 육환장까지 짚고 있었으니 오죽이나 이상해 보였겠어요. 반나절동안을 조사하더니 신분 확인 회신을 받고 나서야 풀어줬어요. 그때 마침 이북에서 5월20일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서 승려 복장으로 간첩을 남파했다는 소식 때문에 스님 검문이 더 강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풀려났지만 '공부 잘하면 후원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알아서 하라'고 한 그같은 의미심장하더라구요. 울릉도 중심에 성인봉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변과 산 아래에 살고 있었고 산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생활하기로 결정하고 장소를 물색했어요. 산 중턱에 폭포가 있었는데 폭포 옆에 석굴이 있어서 거기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지났을까, 폭포에서 뿜어나오는 수증기며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습기에 몸이 버텨나질 못하겠더라구요. 도저히 공부가 안되는 겁니다. 나오려고 하니까 이곳에 들어올 때 경찰이 한 말이 생각나더군요. 다행히 매일매일 검문 하는 것이 아니어서 경찰이 안나온 틈을 타서 주문진으로 나왔는데 6.25가 터졌지 뭡니까. 깜짝 놀라서 얼른 보경사로 돌아갔지요.

전쟁 중에는 보경사 서암에 있었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오던 무렵의 일인데 서암에 있다가 저녁 때 큰 절로 건너가던 중이었어요. 논두렁으로 사람들이 10여명 가량 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때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인민군이 한참 퇴각하던 무렵이었어요. 달밤인데 "동무"라고 부르면서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약력
- 1932년 경북 영일 生
- 1947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57년 해인사 대교과 졸업
- 1968년 동국학원 이사
- 1976년 동국대 철학박사
- 1986년 동국대 제11대 총장역임
- 現 동국대 명예교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저서:〈능엄경 약해〉〈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해인사지〉〈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신라·고려·조선편 외 다수

법화경 관음보살보문품
범망경 10중대계 48경계
화엄경 보현행원품 마음에 새기길

그래서 인민군인줄 알았지요. 그 때 끌려갔다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때마침 머리가 아파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병걸려서 큰 절에 약을 구하러 가는 길이라고 둘러댔더니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어쨌거나 전쟁이 끝나고 해인사에서 대교과를 마칠 수 있었고 통도사로 가서 2년동안 있었습니다. 당시 주지스님이 월하스님이었어요. 나는 월운스님하고 같이 공부했지요. 운허스님 밑에서 말입니다. 은사는 자운스님이지만 운허스님과 영암스님은 은사같은 분들이셨지요. 은사이신 자운스님을 입적하실 때까지 수십년간 모시고 있었는데요. 율사이시기에 다들 참 엄격하고 어렵다고들 말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 못 느꼈어요. 야단도 별로 안 맞았는 걸요. 스님은 항상 율풍이 진작돼야 스님들의 행동이 바로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해도 계율을 바로 잡지 않아 행동이 개차반이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또 "양심을 속이는 중들은 살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신도들이기에 혹세무민하기 쉽다는 것이었지요. 부처님 말씀에 '계율이 있는 곳엔 불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정혜 삼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정이나 지혜보다 계가 앞서 있지요. 북전장경은 경을 론 삼장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대승이라 그런지 경부터 시작하지요. 하지만 남전장경은 율장이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경과 논이 있습니다. 대승적인 것도 좋으나 너무 지나치면 안되지요.

우리나라에는 율사로 이어지는 계맥이 없었어요. 신라시대에 대표적인 자장율사와 진표율사가 있지만 고려 조선조엔 율사가 별로 없습니다. 조선조에 대은율사가 계셨는데요. 이분은 하동 칠불암 부처님께 기도를 드려 계맥을 인정받았어요. 부처님 앞에 향을 꽂고 율사로 인정하시면 향에 불을 붙여 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10여일을 기도해 향에 불이 붙음으로써 부처님께 직접 인정받은 율사였어요. 이럴 정도로 맥이 이어지지 않은 것이 율사입니다. 은사스님은 불교정화 전부터

도서출판 열린마음·열린세상 전화 (051)627-5498 팩스 (051)623-3946



4×6배판 / 값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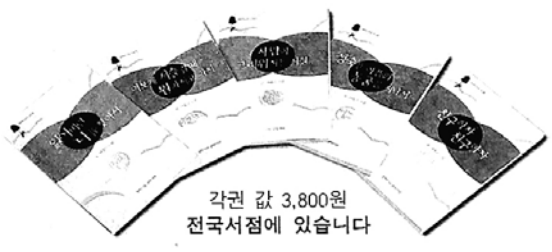
'지장사상'은
잘하면 상을 주어 천당 보내고 못하면 벌을 주어 지옥 보내는 극단의 사상이 아니라, 지옥의 모든 중생이 제도되어 지옥이 텅 빌 때까지는 자신의 성불도 포기하겠다는 구제사상 이야말로, 이 시대 중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상이요, 신앙입니다.

지장사상과 지장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책으로
지장기도를 하는 불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

지장불교 공양차제법

찬술/석용산 스님 · 염음/석효선 스님

이 책에 실려있는 "지장참부경", "지장왕보살지혜심경", "지장경약찬게" 등은 스님께서 직접 찬술하셨으며, "지장예참", "지장왕보살예찬문" 등은 한글로 번역하고, 노래로 엮어 대중들이 편히 읽고 신심 나게 독송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각권 값 3,800원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①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②여보게 저승갈 때 뭘가지고 가지
③사람이 그리워지는 시절
④성숙은 아픔의 동굴을 지나서
⑤친구하자, 친구하자

이 책들은 그 동안 스님께서 발표하신 글들 중 이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을 가려 뽑아 작은 책자로 다시 엮었습니다. 세상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스님의 참모습을 바로 보고 진정한 자비실천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석용산 스님과 함께하는
마하무드라의 노래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지장기도법회

●지장예참기도 ▶ 음력 매월 초하루(부산, 대구포교원) 오전 11시
●지장천도기도 ▶ 음력 매월 14일(부산), 18일(대구) 오전 11시
●지장예찬기도 ▶ 매주 수요일(부산), 금요일(대구) 오전 11시

큰스님 수행한담

불제자의 의무입니다"



◇1958년 통도사 금강계단앞에서 찍은 전등염송 졸업기념사진. 왼쪽 아래 월하스님, 운허스님, 영암스님. 왼쪽 위 월운스님, 홍법스님, 지관스님.

경전공부 왜 하느냐
신심을 일으키기위해서
생활좌표 삼기위해서
이타행 실천위해서

삼귀의·오계수지 부처님과의 약속이죠
'나는 불자' 항상명심 양심 속이지 마세요

율의 중흥을 외치신 분이예요. 강사 선사는 많은데 율사가 없다는 거죠. 장장 11년을 서울대 도서관에서 율장주석 등을 친히 베껴 율장을 연구하셨지요. 사미율의 등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율장이나 계본은 다 스님이 펴 내신 것입니다. 정화를 계기로 10여년동안 율장 수만권을 나눠주셨어요. 그전엔 사미계만 받고 마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율장이 알려지면서 구족계를 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래들어 유일하게 율의 틀을 닦으셨습니다. 일타스님 등과 같이 스님께 율을 배웠어요. 내년 봄 쯤엔 율사에 맞춰 쓴 은사스님 비석하고 탑 제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얼마전에 비구니 율원이 봉녕사에 개원을 했는데 개강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씩 강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통도사에서 2년 동안 수학한뒤 다시 해인사로 와 강원 강사생활을 11년 했습니다. 그 당시엔 중강이 없었어요. 강사 한명이 4과목 이상 강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69년도에 해인사 주지를 맡아 있었습니다. 소임을 맡으면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되지요. 그래 72년 말이던가요. 동남아 인도를 거쳐 유럽 미국 일본 등지를 7개월여 동안 여행했습니다. 인도에서는 2달이나 머물렀지요. 여행을 하니까 시간이 잘 가더군요. 불교신문에 성지순례기를 연재하기도 했구요.

여행 갔다와서 75년부터 동대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년 동안 전임강사에서 시작해 교수 불교대학장 정각원장 총장까지 할 건 다해본 셈입니다. 총장은 86년부터 90년까지 맡았었지요.

불교사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20여년 전부터 해왔어요. 그러니까 해인사 강주생활을 하면서의 일이죠. 일본의 〈망월불교대사전〉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불교연구의 근간이 될만한 불교종합사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한 10여년 되었지요. 동국대 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추진해온 일이니까요. 처음 생각으로는 내가 60세가 되기 전까지 3~4권짜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역경원에 부탁해서 자료수집을 했지요. 자료를 뽑는 시간이 10년이상이 걸렸어요. 그 자료를 종합하고 원고만들고 인쇄할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했죠. 역경원에도 계속 부탁하기 어려워 몇 년동안은 손을 대지않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총장을 내놓고 보니 사전을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더라구요. 불교에 내가 할 수 있는 분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20세 전에는 선방을 다니며 참선했지만 그 후에는 강원에서 강의하고 공부하다보니 선방에서 본격적으로 참선하는 생활은 할 수 없었어요. 교학승으로 참선수행을 제대로 못할 바엔 연구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라는 것이 한 두 사람이 연구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안타깝게도 지금 종단에는 불교공부에 있어 자기분야를 넓힐만한 토대가 별로 없어요. 불교학을 공부했다고 해도 수용해줄 곳이 거의 없는 현실이니까요. 젊은 학자들을 수용하고 다양한 연구분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에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만들게 되었지요. 개원한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개원 8년 동안 다양한 일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불교사전 편찬에 매달려 지금 〈가산불교대사림〉 'ㄱ'편 두권을 올해 초에 출간했습니다. 불교사전을 본격적으로 편찬하면서 해설이 어려워서도 안되고 잘못된 것도 없이 만들려고 애를 썼지요. 국어사전이며 백과사전이며 잘못된 해설이 너무 많아요. '입선'을 중이 염불하러 방에 들어가다는 식으로 해설해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불교사전은 전부 15권으로 중학생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고 있지요. 인용문에는 원문도 포함시켜 공부하는 이들이 궁금하면 원전을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도 했습니다. 그외도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가산학보〉 등을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석문은 강좌를 개설해 강의하고 역주한 것을 모아 펴낸 금석둔시리즈는 모두 6편이 나와있어요. 조선권은 비문이 모아진 것도 없어서 우선 총람을 펼쳐낼 준비를 하고 있지요. 전문연구자 논문을 모아 1년에 한권씩 내기 시작한 학보도 7권까지 나와있구요.

우리 불자들도 요즘엔 법회나 교양강좌 등을 통해 불교공부를 많이 하고들 있지요. 불교의 경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문본이나 산스크리트 원전이 아닌 한글번역본으로 본다해도 혼자 보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경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이들이야 두루두루 경전을 살펴봐야 하지만 일반 불자들은 경 한가지라도 똑바로 알면 팔만사천법문을 모두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항상 불자들에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경전 공부를 왜 하느냐. 우선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출가스님이나 재가신도의 생활좌표를 삼기 위해서는 경전이 필수입니다. 이 두가지는 자기자신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신자라면 자기수행 뿐만 아니라 이타행 즉 타인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관점으로 미루어볼 때 여기에 부합되는 경전들은 꼭 보아두어야 할 것들입니다. 우선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법화경 관음보살보문품〉을 봐야 합니다. 신심이 없으면 복지 실천도 되지 않고 자기자신을 다스리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관음신앙이 강합니다. 수시로 신도들이 많이 의지하는 만큼 관음보살보문품을 읽어두는 것이 관심사에 딱 맞죠. 또 생활좌표로 삼기 위한 계가 있습니다. 계율을 잘 지켜야 합니다. 노름하고 술마시고 마음으로는 끊고 싶어도 잘 안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업력이나 습기를 이기기 위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계입니다. 출가도 재가도 다 해당되는 것이 보살계입니다. 〈범망경〉 10중대계 48경계를 생활좌표로 삼아야 해요. 많이 볼 것도 없고 계만 수시로 읽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 바쁜 와중에 항상 외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타행을 위해서는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보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읽어두면 좋지요.

요즘 신도자격에 오계수지가 들어가는 것같던데 참 잘된 일입니다. 스님은 스님의 신분이 있듯이 신도도 신도의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입문자들에게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삼귀의를 시켜야 해요. 처음부터 부처님과 단단히 약속을 시켜 개종을 하려해도 부처님과의 약속이 마음에 걸려서 개종을 망설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절에서도 한달에 한번 정도 날을 잡아 초입문자에게 삼귀의를 일반 신도들에게 오계를 수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불자임을 자주 상기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최장수 〈前 춘천여중 교장〉

정년퇴임후 시간표 작성 불교공부
'현대불교' 체험기행 3년째 개근

나는 40여년간 교직에 있다가 정년퇴임을 했다. 퇴임식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공직자로서 교육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여생을 살겠다는 뜻의 인사말을 했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바는 없었다.

퇴임을 하고 며칠이 지난 뒤, 산행을 하면서 절에 들르게 되었다. 독실한 불자였던 어머니 생각이 났다. 부처님오신날 밤이면 식구 수대로 정성드려 직접 만든 연등을 처마 밑에 달아 놓고, 촛불이 꺼질세라 밤새워 지키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문득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야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춘천 석왕사 강원 불교대학이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막연히 알고 있던 불교가 차차 분명하게 마음에 잡히기 시작했다. 신심도 났다. 한 학기를 마쳤을 때 서울로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춘천을 떠나는 것도 섭섭했지만, 강원불교대학을 다니지 못하게 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인연이려니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울에 와 보니 불교를 가르치는 곳이 더 많았다. 공개법회를 하는 곳도 있었고, 참선을 지도하는 선원도 있었다. 물론 불교교양대학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불교에 대해 두루두루 공부할 양으로 '시간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시간표에 맞춰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강의를 받고 법문을 들었다. 부족한 부분과 앞으로 배울 공부를 위해 불교관계 서적도 사서 읽었다. 학교생활로 치면 예습과 복습을 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점점 빠져 들어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림을 보았다. 환희심이 생겼다. 이제는 문자로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상주하는 곳에 가서 몸으로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고 싶었다.



97년은 문화유산의 해였고 이에 맞춰 현대불교신문에서 '불교문화 테마여행'을 실시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참가했다. 12월에 제주도 사찰순례를 마지막으로 여행을 끝내면서 밤에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참가한 사람에게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한라산의 흰눈이며 법화사 돌레의 감귤밭이며, 밤에 주지스님과 차를 마시며 늦도록 이야기를 나눈 일이 생각난다. 이 여행이 다음 해에는 '불교문화체험기행'으로 시행되었고, 금년에는 주제를 '구산선문참선기행'으로 하여 선불교의 개산사찰인 구산선문을 돌고 있는 중이다. 그 동안 전국의 유명사찰을 찾아 불심을 닦고, 빛나는 불교문화와 성보를 접하게 해 준 현대불교신문사가 한없이 고맙다.

무박 2일로 여행을 떠날 때는 새벽 4시쯤 절에 도착한다. 어두운 숲길을 걸어서 절로 올라간다. 흐르는 냇물소리와 나뭇가지를 스쳐오는 바람소리에서 무정설법을 듣는다. 번뇌망상은 다 놓아두고 일주문을 지나고 천왕문을 넘어선다. 꿈속같이 몇 점의 불빛이 보이고 목탁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도량에 들어서면 고향에 돌아온 듯,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 마음이 편안해진다. 감로수 한바가지로 입을 씻고, 예불에 참가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살으리라 다짐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침공양을 하고 나면, 신록 위에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진다. 청정도량에 서린 천년의 선기에 마음을 닦으며, 엄습해 오는 법열에 전율을 느낀다. 산사를 찾는 기쁨이다. 그래서 다시 절을 찾게 되는 것이다.

퇴임한지 벌써 4년이 된다. 그동안 사찰순례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일대사로 시간을 보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無上甚深微妙法 白千萬劫難遭遇)'라고 하지 않았던가. 앞으로도 불교공부를 계속할 것이다. 어머니의 불심이 나를 부처님 앞으로 인도해 준 것 같아 눈물이 난다.

국내 최초 단행본 출간!
부처님은 전생에 청개구리였다!
부처님 전생이야기
서희건 엮음
(문화재 전문위원)
2500여년 전에 씌어진 우화처럼 재미있고
눈물겨운 부처님 전생의 보물창고 자타카!
부처님의 전생은 기구하기 짝이 없다.
까마귀, 거북이, 코끼리에서부터 아이 낳는 여자,
도둑으로도 태어났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부처가 되기 전 보살로 살았던 전생 이야기인 것이다.
이들 설화는 동화처럼 아주 재미있기도 눈물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나 아라비안나이트,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전2권|각권 값7,500원〉

박삼중 스님의
인연 이야기
처음으로 고백한 삼중 스님의 진솔한 라이프 스토리!
세 명의 의붓아버지를 둔 기막힌 팔자 이야기부터, 출가·환속·출가에 얽힌 숨기고
싶었던 여자 이야기, 그리고 사형수의 대부가 되기까지 처음으로 공개한 자전 에세이!
서대문 구치소 담 뒤에서 태어난 삼중 스님! 칫돌날 부처님을 모독하고 세상을 등진 젊은 아버지,
힘무소에 수감된 또 다른 남자를 시중들기 위해 여교도관이 된 어머니! 그 어머니의 거듭된 재혼으로
세 명의 의붓아버지 곁에서 눈칫밥 먹던 소년 시절. 그리고 맨발의 출가와 환속으로 이어진 구도의 길에 만난
여인들과의 애틋한 사랑과 이별. 재소자 교화에 나선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큰손 장영자, 강신명 목사,
최 소피아 수녀 등과의 만남에서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너무나도 질긴 인연 이야기들!
〈제1권〉 다시 태어나면 스님 안될래 | 〈제2권〉 그 만남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네
〈전2권 | 신국판 | 각권 값7,500원〉
문학수첩 전화: (02) 790-5999 팩스: 790-6656
http://www.moonhak.co.kr ▪ 이 책의 수익금(인세)은 재소자를 위해 쓰여집니다



부처님 자비 시방세계에 두루 비치네



◇서방정토의 아미타부처님(부석사 무량수전의 소조 아미타좌상 · 국보 45호)

"시방에 두루하여 끝없는 부처
고요한 법문의 천인(天人)의 주인
그 광명은 어디고 다 비치나니
이것은 장엄 깃대 미묘한 법문이네"
〈화엄경 제1권 세간안정품〉

선공해대자재천 보살이 부처님을 찬탄하여 읊은 게송이다. 부처님의 위신력이 이 세상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두루 미쳐 중생들을 보살핀다는 뜻이다. 시방(十方)은 특정한 방향이라기보다 온 세상을 말한다. 곧 불교에서의 방위는 부처님의 자비공명이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불교의 방위 개념 및 방위 신앙은 동 · 서 · 남 · 북 · 남동 · 남서 · 북서 · 북동과 상 · 하의 열 곳의 방향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동쪽

동은 방위로는 해가 뜨는 방향이고, 사시(四時)로는 봄이다. 불교의 만다라에서 방각(方角)은 동쪽에서 출발한다. 이는 해가 솟는 방향과 관계 있다. 동방의 보당여래(寶幢如來)는 보석을 박아 장식한 깃발을 나타낸 부처로서, 발심을 상징한다. 금강계 만다라에서는 아축불로서 조복과 힘을 상징한다.

동쪽에는 더러움을 쫓는 제예명왕(除穢明王)이 거주해 사람을 끌보고 법을 지킨다고 해서, 사찰에서는 변소를 동쪽에 두고 있다. 그 때문에 사찰에서는 변소를 동사(東司) 또는 동정(東淨)이라 한다.

■서쪽

서쪽은 서방(西方) 곧 정토(淨土)로서 극락세계를 상징한다. 극락을 서방정토라고 하는 것은 인도인들의 방위관과 시간관에서 유래한다. 인도인들은 동쪽을 보면서 앞은 과거, 뒤는 미래라고 믿었다. 따라서 극락은 서방에 있고, 내세에 왕생할 세계이다. 아미타경에 "극락은 사바세계에서 십만억 국토를 지난 서방에 있다"고 했으므로, 인간세계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먼 거리에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십만팔천 국토를 지나야 그곳에 이른다고 설하고 있다. 고승들은 이를 공간적인 거리로만 보지 않고 아미타불이 설법하고 있는 낙토로, 상징적인 방위 개념으로 보고 있다. 〈대일경〉에서는 깨달음의 세계를 실감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보리(菩提)를 상징한다.

■남쪽

대일경(大日經)을 근본으로 하는 태장계 만다라에서 남쪽에 위치하는 개부화왕여래(開敷華王如來)는 깨달음을 향해 수행을 거듭하는 과정을 상징하며,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모습을 하고 있다.

한편 금강경을 근본으로 하는 금강계 만다라에서 남쪽을 담당하는 부처는 보배를 낳게 한다는 보생불(寶生佛)로서, 이는 재보와 행복을 상징한다.

■북쪽

북쪽은 열반적정(涅槃 寂靜)의 세계에 들어감을 뜻한다. 이곳에는 불가사의한 태고(太鼓)로써 석존의 설법을 나타내는 부처인 천고뇌음여래(天鼓雷音如來)가 주석하고 계신다. 금강정경에서 북쪽에 위치한 불공성취불(佛空成就佛)은 여래의 활동과 공덕이 대단히 큼을 나타내는 부처로, 실천을 상징한다. 완성이 공(空)에 지나지 않음을 나타내나, 사실은 반드시 성취함을 의미한다.

월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27 · 끝

방위

◇부처님의 상호와 가르침을 상징하는 불교기의 다섯가지 색은 정근, 믿음, 정진, 청정, 인내를 상징한다.

東-발심 西-보리 南-재보 北-성취
불교기는 부처님 상호·가르침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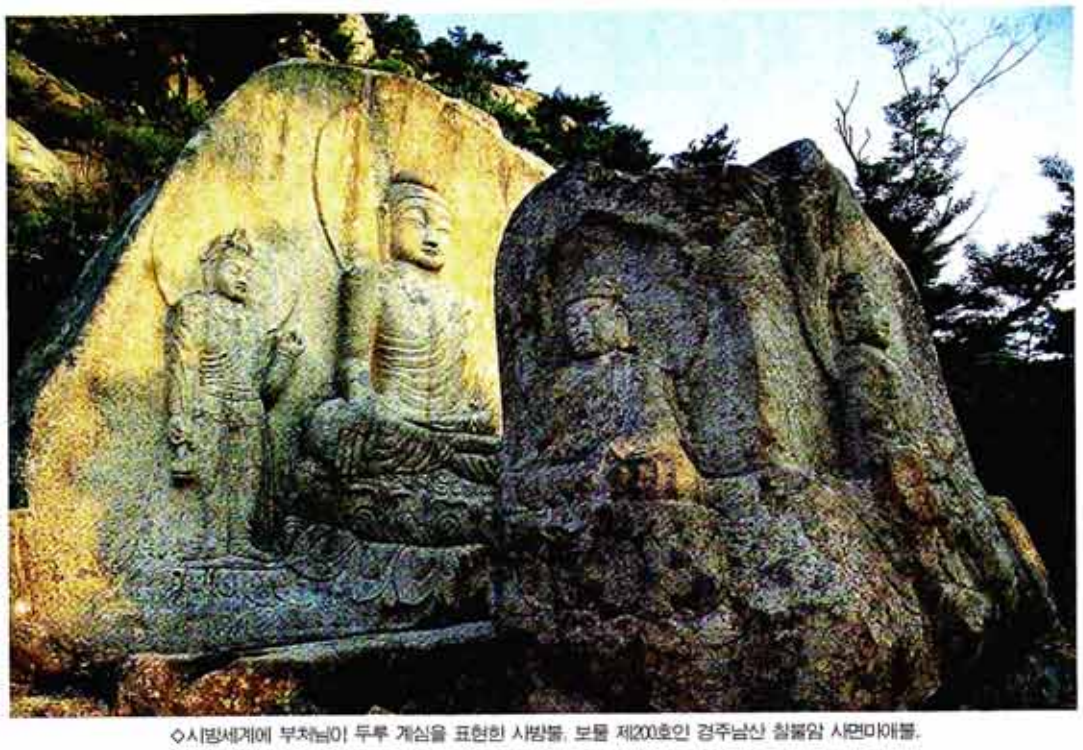
■사방불(四方佛)

신라인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부처님을 모시고 신봉했으며, 사방불신앙은 시방세계에 부처님이 계셔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신라인의 불국토사상을 나타낸다. 〈삼국유사〉 '진평왕조'에는 사불산(四佛山)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별안간 사방에 여래가 새겨진 큰 돌이 하늘에서 산곡대기로 떨어졌다.

신라의 유물 · 유적 가운데 사방불은 여러 곳에 남아 있다. 경주 남산 칠불암 사면석불, 굴불사지 사방불, 경주박물관 석탑 5기에 새겨진 사방불 등이 대표적이다. 굴불사지 사방불도 〈삼국유사〉에 언급되어 있다. 경덕왕이 백률사에 행차하기 위해 산 아래 이르렀을 때 땅 속에서 염불하는 소리가 들려 파보았더니 사방불이 나왔다. 이에 절을 창건하고 굴불사라 이름하였다고 전한다.

■아미타불

서방 극락세계에 상주하는 부처님으로, 법장이라는 이름의 보살이었다. 법장보살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뜻을 세우고 살아있는 모든 이를 구제하고자 48원을 세웠다. 오랜 기간의 수행으로 부처가 되었는데, 지금도 극락세계에 머무르면서 설법을 하고 있다.



◇시방세계에 부처님이 두루 계심을 표현한 시방불. 보물 제200호인 경주남산 칠불암 사면마애불.

모든 생명있는 자들이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통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중생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내 국토를 믿고 좋아하여 가서 나려고 하는 이는 열번만 내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그리 하리라"는 아미타불의 본원에 근거한 것이다. 아미타불의 본원에 그려진 서방정토는 보배와 향으로 되어 비길 데 없이 훌륭한 곳이다.

■오방색(五方色)

청 백 적 흑 황의 색으로 동 서 남 북 중의 다섯 방위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오방색 전을 불상의 복장물(腹藏物)에 넣었으며, 단청, 법고(法鼓)와 번(幡)의 채색에 활용했다. 민간에서도 색동옷에 오방색을 썼는데, 이는 무병장수와 액(厄)을 물리치는 기원의 뜻이 깃들어 있다.

불교기는 오방색의 흑색을 빼고 주황색을 넣었는데, 5색은 부처님의 상호와 가르침을 상징한다. 청색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불법을 구하는 정근을 상징한다. 황색은 한란한 부처님의 몸빛과 같이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나타낸다.

적색은 정진에 힘 쓸 것을 표현한 것이다. 백색은 깨끗한 마음으로 온갖 번뇌를 맑게 하는 청정을 뜻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자후를 하실 때 보이신 치아의 색을 상징한다. 주황색은 부처님의 성체를 두른 가사색으로 온갖 유혹과 굴욕 그리고 수치스러움을 참고 견디며 성내지 않는 인내를 상징한다.

■사천왕(四天王)

동 서 남 북 네 곳을 맡아 불법을 수호하는 외호신으로, 사찰 입구의 사천왕문에 모신다. 동쪽을 수호하는 신은 지국천왕(持國天王)이다. 오른손엔 칼을 쥐었고, 왼손은 허리를 짚고 있거나 보석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는 형상이다. 서쪽을 방어하는 신은 광목천왕(廣目天王)으로, 죄인에게 벌을 내려 고통을 느끼게 하는 가운데 도심(道心)을 일으키도록 한다. 오른손엔 창, 왼손에 보탑을 쥐고 있다.

남쪽의 수호신은 증장천왕(增長天王)으로, 자신의 위덕을 높여 만물이 태어날 수 있는 덕을 베풀겠다는 서원을 지니고 있다. 오른손엔 용, 왼손에는 여의주를 쥔 형상이다.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多聞天王)은 부처님의 도량을 지키면서 늘 설법을 듣는 신으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중생을 제도한다. 비파를 타고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동방 지국천왕.



◇서방 광목천왕.



◇남방 증장천왕.



◇북방 다문천왕.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 주소 : 우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 A X : (02)705-5229

BBS 불교방송 주간방송순서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마음자리 空해 고정된 기준 없어요

참선중 죽는다는 의식 들어

문 참선수행하다 입정에 들면 대략 30분 경과시 몸무게가 느껴지지 않고 의식만 남아서 머리위로 의식이 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죽어간다는 느낌이 동시에 들어 더 이상 수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답 사람들은 참선을 한다고 하면서 몸을 조아리고 앉습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는 몸으로 수행하는게 아니라 마음을 수련하는 공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서 하는 걸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잘 아는 스님 한 분이 선원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미국에 가서 보니깐 스님네들이 참선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가셨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앉아서 좌선을 하는 걸 가르치는 것만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아닙니다. 몸으로 앉았다가 일어난다면 선은 끊어진다고 봅니다. 앉았는 것도 아니요 섰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앉았어야 된다고 하는데, 마조가 앉아서 좌선을 한다고 하니깐 회양선사는 기왓장을 갈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돼 벽돌을 가시는 겁니까?" "넌 뭘 할려고 그렇게 앉았느냐?" 했을 때에 "나는 부처가 되고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일어나지도 먹지도 누지도 말아야지 선이 끊어지지 않지. 그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선이 끊어지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니 거기에서 고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앉았다면 아주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게 목석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해보시고 '아, 이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수행이로구나.' 해서 힌두교에서 수행하는 방법도 일러주셨고, 그 후로는 마음의 수행을 중시하셨죠.

행주좌와 어묵동정이라고 했듯이, 앉아서 하는 것은 좌선이요, 누워서 하는 것은 와선이요, 서서 하는 것은 입선이요, 일하면서 하는 것은 행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 할 때에 참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모두 한데 합쳐서 참선이에요 그냥! 누가 앉질 말라나 서질 말라나요. 아니, 여유 있으면 앉기도 하고, 서서 명상도 하는 거고, 일하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참선이고 누워서 생각하면 와선이니 누가 허지 말래나.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하는 게 전부 참선이예요. 참선 아닌 게 없어요. 따로 내가 참선한다, 불교공부를 해야겠다하는데 따로는 없어요. 절대 따로는 없어.

> "나도 공해서 돌아가고
> 지수화풍도 공해 돌아가니
> 공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항상 내가 말로 해서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겁니다. 동짓날 팥죽 솥에다 팥죽을 쑤면 팥죽 방울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주걱으로다가 저으면서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하고 쳤으니 이건 무슨 까닭인가?' 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지, 그 까닭을 모른단 말입니다. 번뇌라고 하기 이전에 내 몸뚱이가 팥죽 솥이라면 팥죽 방울이 일어나는 대로 그걸 번뇌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 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화해서 나오는 업식에 속합니다. 그러니 그걸 재료로 알아야죠, 속지 말고 모든 건 한 군데서 나온 거 한 군데에다 제대로 되 놔라 하는 소립니다. 그게, 이것도 문수, 저것도 문수하고 친 게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어디다가 기준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무한이에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일이라면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진리가 되며 어떻게 무한의 능력이 나옵니까? 그래서 공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에다 노라 이거 아닙니까? 공하면서도 역력히 집을 때는 집고, 먹을 때는 먹고, 기준도 없으면서도 아주 역력하거든요. 배고프면 먹고, 야, 집안에 돈이 없으면 또 벌어야 먹으니 역력하죠. 기준이 어딨습니까? 기준이 없으면서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기준이 어디에 있나? 하나도 브지 못하네요. 금을 갖다 놨대도 아마 장님이라면 어림도 없을 거예요. 기준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5억이라는 자체는 4억9천9백90이 체가 없으면서 몰록 하나의 체로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이 돼서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자라면서 다시 그것이 몸체에서 마음의 주장자로서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을 모두 거기다가 놨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생각이 들더래도 그 생각이 나는 자리는 한자리니까, 그 자리에다 다 놔라 이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요.

내 중심은 어느자리 있나요

문 내 중심이 붙어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답 자리가 없는 자리가 그 자리죠. 표현하자면 "눈이 제일이야" 그러니깐 코가 있다 하는 소리가 "네가 뭘 제일이냐, 내가 코로 냄새를 맡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보고 좇아가니?" 그러면서 서로 똑같이 쾡쾡합니다. 손, 발, 눈, 코, 입, 귀, 머리 도는 거와 마음이 모두 평등합니다. 평등하게 돌아가요. 누가 더 얕고 높고가 없습니다. 우리들 열 손가락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어설퍼서 물건을 들질 못하는데요. 그러니 내 마음자리가 어디 있다는 기준이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그림 · 최주현

생겨서 우리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다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껍데기라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기준이에요. 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근본을 찾는 거죠. 한데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나침반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기준을 세워서 무슨 일들을 해나가지, 만약에 이것이 한데 합치질 않았다면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성이라고 그랬어요. 조그만 혹성이라고 그래도 좋아요. 그러니 불성이라는 거는 어느 기준을 두어서 불성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한데 합쳤기 때문에 합쳐서 능력이 나오는 데 그 능력의 기준을 세울 수 있나요?

영원한 생명은 씨와 같고 뿌리와 같아서, 내가 항상 콩 얘기 하죠. 작년 콩을 갖다가 올해 심궜더니 콩나무로 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콩씨를 마음의 콩씨라고 해서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올해 콩이 화해서 콩나무가 됐으면 그 콩나무에서 콩이 또 열리는 것을 스스로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씨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씨요, 빛깔도 쥘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 고정되게 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코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원하면서도 광대무변하고 광대무변하면서도 묘한, 불가사의한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종선 · 북종선의 차이점

문 뭘로 이름을 지을 게 없어서 진이니 참이니 각을 이루었다느니 부처라느니 자유인이라느니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진리의 나무, 마음은 명경의 받침대,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가 앉지 않게 하자…북종선" "진리는 본래 깃들일 나무가 없고 명경도 원래 받침대가 없는 것, 불성은 항상 청정한 것이니, 먼지가 앉을 곳 어디 있으랴…, 남종선"이 두 문장은 남종선과 북종선의 특징을 잘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비교를 하여 주십시요.

답 육조선사께서 그때 그렇게 칠 수 밖엔 없었지요. 신수대사가 거울에 때가 끼지 않도록 닦아야 한다니까, 틀이 없는데 뭐 먼지 앉을게 있느냐 하는 소리는 한 물건도 없는데 때낄게 뭐 있느냐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말로 하고 내가 또 말로 해서 되는 노릇이 아니니 말로만 배우면 뭘해요. 진짜 자기가 느껴서 알고 감응이 되야 그때는 말이 아니라 법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량으로만 알구 말을 한다면 그건 한 데 떨어지는 것이지 법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병때문에 정신 어지러워요

문 병 때문에 정신이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답 모든 것이 우리 믿음에 의해서 문제가 대두됩니다. 믿음이라는 자체는 그냥 허탕허탕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야, 영원한 이 친구야!" 할 수 있는 정도래야 되겠죠. 그런 정도로 정말이지 진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너도 무효가 되고 없고, 또 네가 없으면 내가 송장이 될거 아니니, 네가 네 시자를 끌구 댕기는데, 네가 끌고 다니는 심부름꾼인데, 이렇게 아프게 하고 또 정신이 하나도 없이 이끌어 간다면 어떻게 죽는 날까지 너의 심부름을 할 수 있겠니. 그렇게 심부름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쩌겠느냐. 그러니 너만이 너를 건강하게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아주 절실히 믿어야죠. 그냥 허투루 갈광질광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을 향한 그런 간절한 믿음의 호소만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요.

예전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란 건 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불을 자리가 없다고 제가 항상 얘기 하죠. 뉴욕에서 병을 20년 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여기 얘길 듣고 선원에 왔어요. 여기 와서 앉아서 "병이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퍼뜩 그런 말을 해버렸어요. "병 붙을 자리가 어디 있길래, 병 내놔 봐! 고쳐줄께" 이랬거든요. 그랬더니만 입을 딱 벌리고 생각을 하더니만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가면서 그냥 병이 나아 버렸어요. 그 사람도 그 병 때문에 10년 20년 그냥 공부를 해 온 거지요. 좌선도 하고 뭐 별짓 다 했답니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말뜻을 퍼뜩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붙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공해서 돌아가고, 지수화풍도 공해서 돌아가니까 아무리 병원에서 병 증세를 말을 해도 이름이고, 또는 삼재가 들었다고 하는 것도 이름이고, 가지 못한다 간다 방향을 본다 하는 것도 관습일 따름입니다.

금전문제로 가정이 시련에…

문 가정의 금전문제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시련이

☞ 16면으로 계속

근본향한 간절한 믿음이 자기를 지켜
열손가락 높고 낮음 없이 모두 평등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모두는 나를 위해, 나는 모두를 위해

개별적으로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절대적인 나는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 일체 만물 만생이 도반인 것이다. 한방 식구인 것이다. 천리를 간들 가깝고 멀고가 없이 한 방 식구이다. 나의 한생각이 일체 중생의 생각이고 일체 제불의 생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라고 하는 아집에서 벗어나 한 마음 원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

우주 법계가 돌아갈 때는 항상 너와 내가 없이 돌아가게 되어있다. 일체가 하나의 법망 속에 있어서 상대성 원리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했다 해서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우주 법계와 함께한 것이다. 가령 내가 돈 한푼을 벌었다고 할 때 혼자 번 것이 아니라 우주 법계와 함께 번 것이다. 만약 남이 없다면 어찌 한푼인들 벌었겠는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을 살리게 되어 있다. 혼자 살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여럿이 더불어 살고 더불어 먹으며 우주와 함께 살고 우주와 함께 먹는 것이다.

이 세상 일 중에 내가 했다, 네가 했다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가령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아는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으니 스승이 있고, 스승이 있으니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살리니 모두가 함께한 것이다. 자기가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지만 그것이 또 월급 주는 상대를 위한 것이고, 그 상대가 없다면 내가 나를 위해 일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하겠다,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하는 말은 내 속에 상대가 포함되어 있고 상대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줄을 모르는 소치이다.〉



미생물이나 식물이 우리에게 마실 공기를 공급해 주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산화탄소를 제공한다.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데에 벌써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주고 받으며 먹고 사는 이치가 있으니 어찌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고 있음을 모른다 할 것인가. 나는 남을 위해, 남은 나를 위해 상대와 상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만 보아도 따로따로 산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입는 것, 먹는 것, 돈 버는 일 어느 것 하나 혼자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생이 다 거들어야 이뤄지는 것이니 모두가 한마음이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주인공에 감사할 일이다〉

만약 지 · 수 · 화 · 풍 이런 것을 다 제각기 구해서 살라고 한다면 한시인들 어떻게 살겠는가. 본래로 부처님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사생의 마음이 다 한데 합쳤기에 태양도, 지구도, 우리 몸도 형성된 것이다. 갖가지로 정원 꾸미듯 형성된 것이다.

밥 한 그릇 지어 놓고 고맙다 할 때 어디에 감사하는 것인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씨 뿌리고 들에 나가 일하고 또 거둬다가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많은 일손을 거쳐 내게 이른 것이니 전체가 같이하고 같이 먹는 것이라 전체가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한마음이 아니겠는가. 〈밥 한 그릇 놓고 먹을 때 내가 예를 갖추면 전체가 다 감사를 받는 것이다.〉

모두는 나를 위해 나는 모두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혼자 갈고 혼자 먹고 혼자 입고 혼자 했다고 할 수 없다. 공전 · 공생이 있을 뿐이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고, 그 없는 것을 갖기 위해 또 있는 것을 주어야 하니 그러기에 이 공부는 서로 아끼며 서로 사랑하며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려나 나 하나만 배우면 된다고 하겠지만 내가 배우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나만 배울 수 있겠는가. 함께 돌아가고 있으니 독불장군은 없다.

협찬 : 주 인 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다 놓아 무심돼야 윤회에서 벗어나

☞ 15면에서 계속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요. 아니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해결 방법을 못 찾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지 근심과 두려움의 나날입니다. 부디 제가 이 역경을 헤치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 주십시오.

답 여러분을 여러분이 형성해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딴 놈이 살려 줍니까, 뺏아갑니까? 여러분 한마음 속에서 나온거니까 여러분 한마음 속에다가 되놓고 '한마음 속에서 나온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 하고 탁 집어던지고선 나는 그냥 슬기롭게 살지 뭣 때문에 신경쓰고 아둥바둥하고 그럽니까, 참 이상스러워요. 왜 이상스럽게 삽니까! 돈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소끕장난 할 때에 종이로다 돈 만들어서 놀죠? 그런거와 같은 거예요. 내 몸도 지수화풍이 다 거두어 가는데, 허! 그거 이 몸뚱이 씻고 닦고 하던 것도 다 거두어 가는데 뭘 짊어지고 댕깁니까. 나 쓸 때에, 나 쓸 때에 틀림없이 쓰기만 하면 되는거예요. 그렇게 나 쓸 때에 궁색하지 않게, 쓸 때에 꼭 쓰게끔만 된다면 그거는 이 왕자 부럽지 않은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절에 어떤 신도가 울고 불고 왔어요. 애가 다섯인데 남편이 죽었대요. 그런데 전세를 들었다가 전세를 다 까먹고 사글세로 사는데 그 사글세조차 다 까먹었으니까 그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추녀끝에다가 짐을 내놓고서는 울면서 왔어요. 비는 부실부실 오는데 말입니다. 허허!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때야 내 주머니에 돈이 있었으면 그냥 곽 주었을텐데 없잖아요. 그러니깐 나도 그랬죠. '니가 있다면 니가 쓸 것이고 니가 없다면 뭇 쓸거야. 니가 있으면 줘!' 했어요. 정말예요. 그렇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가을비가 내리는데 그렇게 한 걸 생각해보세요. 울면서 그냥 갔죠. 그랬는데 조금 있더니 누구 집에 뛰어가서 전화를 했는지 전화가 왔는데, 비를 맞고 울면서 가는데 뚤뚤 뭉친 신문이 떨어졌더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뭐 막기라도 한다고 그 신문을 들고 집엘 갔는데, 집엘 가서 펴보니깐은 거기 돈이 다 들어 있다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면 좋으냐고…, 경찰서에 갔다 주느냐 어쩌느냐 그러길래,"아니다, 부처님이 너 준거니까 방 얻어"그랬죠.

이론으로 알고 학술로 알고 아는 거를 대단하게 생각지 마시고 내가 모르더라도 하나하나 실천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기를 낮추세요. 낮추시면서 항상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서 한 형제로서 한 부모 자식으로서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리따운 마음이 바로 사랑보다 더 진한 자비입니다. 우리가 사랑 사랑 그러는데 사랑이 뭐 말라빠져 죽었어요? 조금만 저거하면 '흥, 사랑 언제 했더냐' 하고선 그냥 배신들을 하고 온통 죽어라 때리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예요? 응?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언제 어느 때나 항상 할 수 있는 자신의 근본에 대한 믿음이 진정한 사랑이예요. 그러니 자기 안의 해결사를 내버려두고 허방지방 밖으로 끄달리지 마시고 주인공을 믿으세요. 지극하게 믿고 맡겨 놓으세요. "당신이 만들어서 내놓은 일이니 당신만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일임하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화를 내어 잘못 일깨우면…

문 불친절한 공무원에게 화를 내어 잘못을 일깨우려 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때 어떻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지요? 사회에 불의가 있다면 바로 세우려고 해야하지 않을 까요?

답 자기가 없다면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싸우는 것도 보고 죽이는 것도 보고 즉는 것도 보는 거니 그걸 원망하지 말고 각자 자기탓으로 돌려야합니다. 또는 사회가 어떠니 하고 질문 한 거와 마찬가지로 내 가정이 어떠니 내 남편이 어떠니 자식이 못됐느니 하지 말고 절대 밖으로 끄달리지 말라 바로 네 탓이다, 가정에서 좀 잘못된 게 있어도 꼭 말로 하지 말고 좋은 말은 해주고 말을 해서 언짢은 일이라면 안으로 굴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두 수효를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한 생각에 두루 내 아니 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생각이 그렇게 귀중하고 우리 나라를 다 쥐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마음의 핵심이 아닐까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몸은 지수화풍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지수화풍 아닌게 없잖습니까? 그러므로서 우리는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재료로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한 생각에 달려있다. 불이 번져나가면 안되니까 번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도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마음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간단히 비유하자면, 미국이다 할지라도 바로 앉었는 자리고, 저 달나라라고 할지라도 앉은 자리고, 멀고 가까운 게 없어. 대천세계다 할지라도 앉은 자리야. 몇 억겁 광년이 된다 할지라도 앉은 자리란 말이야. 그런데다가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국내의 문제라든가 가정문제라든가 사회문제라든가 이 발판이 제대로 완고히 틀이 잡혀서 서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되긴 됐으나 우리가 정돈이 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이 정돈이 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정돈이 되지 않아요. 마음이 한데 뭉치지 않는다면 모두가 정돈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많이 마음들을 참 개발하고 뭉칠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생각이 만명이 그렇게 몸들이 일어나서 한데 뭉친다고 애쓰기보단 한 사람이 한생각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얘깁니다. 몸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은 생각이 한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경에도 석존이 꽃 한송이 드는데 우주 전체가 들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깨달아서 전체가 생각 아닌 마음의 한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한 생각을 잘 내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장부가 되시라는 얘깁니다.

번뇌 끊지 않고 열반 드는 까닭

문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야 부처님이 인정하는 좌선이라 하였습니다. 왜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야 합니까, 번뇌를 끊어야만 열반에 드는 것은 아닌지요.

답 망상을 끊어라, 끊어라 하는데 끊는 것이 아니라 저 물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요. 그걸 아무리 끊은들 끊어지겠습니까? 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망상이 없다면 사람될 수 있는 과정이 어떻게 있을 것이며, 바로 목석일 것입니다. 그러니 망상이라고 생각도 마시고 그 망상은 망상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길잡이라고 생각하십시요.

그래서 저는 신도님들에게 번뇌는 끊을 게 아니라 놓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놓는 공부가 여간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놓는 공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며, 둘째는 두루 우리가 왕래할 수 있으며, 또 셋째 같이 한자리 할 수 있으며, 또는 같이 굴릴 수가 있으며 나투어 굴릴 수가 있으며 광대무변하게 행을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은 자신의 능력이 두루 같이 합으로서의 모든 게 하기 때문에 첫째 나를 발견하는 데는 놓지 않는다면 나를 발견해서도 그것은 얽매여서 오히려 미치광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습을 녹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해질 수가 있고 오히려 나쁜 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업이라는 것은 본래 지수화풍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은 업이라는 거는 지수화풍으로서의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든 게 전부 공해버렸어요. 왜? 공했다는 말을 했느냐?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공했다고 했는데 찰나찰나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간화선을 해서 몸을 수행하고 또 일심에 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았을 때에 일심으로 들어서 일심으로 나게 할 때에 비로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초점이 빠르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간화선을 한대거나 어떠한 한 군데로 몰아서 할 때 내 일신은 지고 말아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첫째 놓는다는 게 여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 · 최주현

기독교에 대한 스님의 견해

문 큰스님 저는 불교와는 별로 인연이 없었으며 어려서부터 기독교 즉 예수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것을 듣고 신앙이라는 것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불교에 대해서는 막연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전통종교라는 느낌정도)어쩌다가 불경을 접하고 또 큰스님 저서들을 읽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기독교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한번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어떠한 수행이나 선행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예수그리스도를 한 분의 성자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큰스님께서는 "다른 이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평안을 누리고 영적으로 고양되는 경험들을 가질 수 있는지요. 그리고 성령님(요한복음 14:26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의 활동이라고 밖에는 보기 힘든 현상들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병고침이나 방언, 정신적인 각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요. 큰스님의 진실과 기독교의 진실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제가 생각할때는 큰스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게 되며 예수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자면 큰스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본질은 하나라고 이야기 하실지도 모르지만 제 짧은 머리로는 절대 이러한 것은 양립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수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큰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기독교의 고상(苦象)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진리입니다. 하나의 진리를 구성해서 알게되면 알게된 그 사람이 '임'이 됩니다. '임'.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로 돌아가는 진리이지 어떤 개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주처에 모두, 지금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바로 다스리는 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못났든 잘났든 나부텀 믿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그러고 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밥 한그릇 가지고 일체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되남느니라."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타의에 믿질 않고 너가 너 자신을 믿기 때문에 공덕이 되느니라. 타의의 이름을 믿거나 형상을 믿으면은 도깨비 장난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귀신주머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의 행동과 같다고. 그건 무슨 일이냐? 각자 너를 믿지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이렇게 말을 하셨더라면 좋을 걸 '나를 믿지않고' 하니깐 지혜가 부족했던지 각자 자기라는 걸 모르고,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니죠. 나를 믿지… 각자, 각자 소릴 안해서 그렇죠. 그래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도깨비 장난과 같고 귀신 같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 **자기안에 해결사가 있으니**
> **절대 밖으로 끄달리지 말고**
> **주인공을 믿고 맡겨놓아요**

나를 믿지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50%의 예수님 모습으로 그냥 달겨들은 겁니다. 그러면 50%만, 정신계의 50%는 죽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체로써 떠나지 못해, 왜냐하면 그 대적하던 복받치는 그것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신이 올랐다면은 아주 큰 신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한국말이 그냥 나오지마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즉 말하자면 바로 거기에서 연결되거든. 영체로 돼 있는 건 사람에게 갖다 탁, 영과 영이 둘이 아니니까 영끼리 한데 합쳐집니다. 합쳐지면 그게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부처님 법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네들이 지금 믿는 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지구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 부처님이 가르치는 거는, 도 아닌 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 우주전체를, 법계를 싸고 전체 이 혹성뿐만 아니라 전체 생명체의 꾸러미가 다 수없이 있는 그 자체를 두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 없이, 그러니까 죽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었다 살았다 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윤회에 걸려서 벗어날 수 없다, 너희들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냄새 맡는 것도 입으로 맛을 아는 것도 다 놔버려라, 좋은 옷 나쁜 옷 이것도 놔버려라. 그냥 무심으로 이것을 내가 입어야겠다 하면은 그냥 무심으로 입어라 이거지, 누가 그걸 입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예요.

그렇게 거기서 벗어나야지, 만약에 좋은 것, 좋은 소리 이런 것만 자꾸 갖다 보면은 그게 육도 윤회에 걸린다 이거죠. 육도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기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 나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지구 바깥을 벗어납니까? 그래서 죽는다 안 죽는다 이런 게 생사 윤회에 걸리지 않는다, 이건 자유인이다 이겁니다. 걸리지 않는다 이럴 수도 없고 걸린다 이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건 걸리지 않는다 이 소리밖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 대로니까. 여기서 내가 또 다시 태어날려면 또 다시 여기서 그냥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건데 말입니다.

관하는법 알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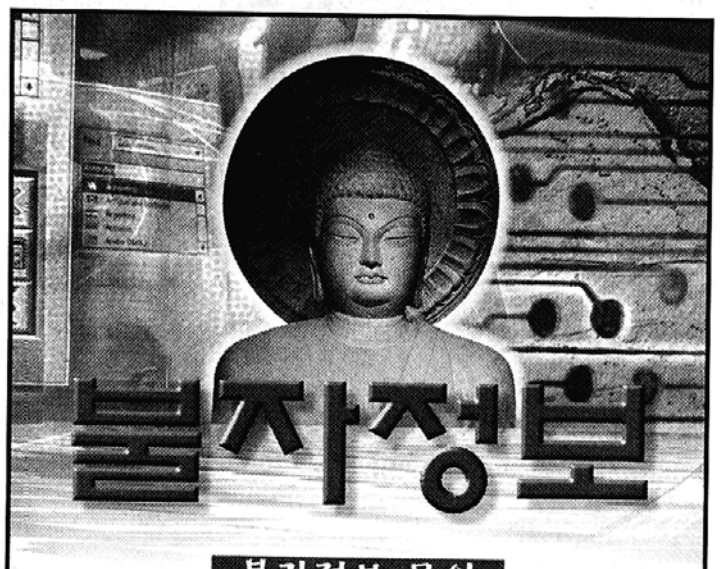
문 '삶은 고가 아니다' 책을 보고 혼자 나름대로 주인공을 관하려 하고 있는데 그저 이름으로만 외어지는 느낌입니다. 제대로 관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둘로 보지 않고 관한다, 둘로 보지 않는 게 관하는 거지, 관한다 이러는 거는 내가 사물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든 것을 용도에 따라서 내가 맡겨놓고 그거를 지켜보는 게 바로 관이야. 예를 들어서, 왜 요새 여기 무엇을 한가지 연구를 해서 다 물질적인 연구라든가 또는 정신적인 연구라든가 어떠한 연구를 한다, 또는 병고가 났다 또 어느 짐승이 지금 죽게 됐다 이런 것도 실험할려면은, 실험할려면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 이거를 한번 한생각 내서 딱 넣어놓고선 지켜볼 때에 그게 관이야.

그러구 모든 것을 이렇게 둥글게 해서는 전체 거기다 맡겨서 놓구 자기가 용도에 따라서 온 거 있으면 거기다가 딱 놓고 지켜보는 거야, 그게 관이야. 그렇지만 주인공과 나를 둘로 보고 '주인공,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가 아니야. '해주십시오' 하면 노예가 돼버려! 자기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기 주인공과 자기와 둘이 아니라는 점, 자유스럽다는 점, 자유인이 되고자 해서 우리 지금 이런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께서도 가르친 것이, 49년 가르친 것이 바로 그게 자유인이 되라고 한거예요.

자기와 주인공 둘로 보지 않는게 觀
번뇌망상은 나를 성장시키는 길잡이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1166-3858

간 병 신
교육받은 전문간병인 항상 대기로
유료 간병 서비스는
불쌍한 불자간병인 물론 무의탁 노인 등에게
무료로 간병 자원봉사
전화 : 02)363-7884
팩스 : 02)364-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강좌

통지판매 **易학교육전문학원** 교재로 만든
5주 속성 **易학 학습지**
농협 : 037-01-298413 (예금주)글향기
SBS 모닝와이드(운명을 배워 운명을 개척한다)에
박규병(전직교사 · 59)원장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5주 속성 프로그램 소개
易학교육전문학원 02)332-8729(代)

수맥파(나쁜기운) 차단
1. 수맥찾기 강좌(신비의 추 L-로드)
2. 건강과 행운의 목걸이
종일 온몸이 나른 하신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 등
3. 수맥 차단제 판매
4. 활동 공간의 기 균형
02)734-2118/011)239-6817
대붕 氣 살림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화엄경 (80권) -1,400,000원
법화경 (7권) - 170,000원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김창본
011)545-7252 처 사

최면-견성지도 수련테프 판매!!
1.생물 = 생명(?+기록물)+물질(육체)
(1).?; 자유자율성, 不生不滅, 능동, 無形, 무게부피無
(2).기록물(업); 경향(습관)성, 有生不滅, 有形, 무게부피無
(3).물질(육체); 법칙성, 부자유, 수동타율, 生滅, 有形, 무게부피有
2.견성: 불래야 볼 수 없는 ?을?이 본다.
3.?을 보아 병과 운명을 고친다.
4.만성난치병/금연 금주/
악습비만체질교정/학습력강화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 017)609-9068

구인

기도하며 함께사실
신심있는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을 모십니다.
지리산 백운암
0671) 636-3041,3451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543)954-6194~5
011)501-2219

노스님 시봉하며 제 공부 하고 싶습니다.
(사미승)
0394)531-8151

공양주 보살로 일하고 싶습니다.
(안동) 49세
독신인
불자여성입니다.
019)553-8199

공고

탈종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귀하
◇사찰명 : 묵계암
◇주지 : 조원각 김대관(승번:04-2-14)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 869번지
위의 사찰과 승려는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지킬 수 없어 탈종하고자 이에 공고합니다.
99. 7. 1.

수양원

수양,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출판



◆『전등록』 전5권 드디어 완간 ! ◆
9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완간된 **{전등록}**. 기존의 학자들에 의한 번역과 달리 인가받은 명안종사인 대원 문재현 선사께서 구절구절 바른 법을 밝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리에 맞지 않을 때는 한 자 한 자, 조사 당시에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를 추적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는 '돌아올 환(還)'자가 '영위할 영'자로도 쓰였으며 '어조사 우(于)'자가 '넓고클 우'자로도 쓰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법리에 맞게끔 번역했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된 점을 널리 알려 정법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책명을 **{바로보인 전등록}**으로 고쳐서 출간하며 〈바로보인 출판사〉에서 출간된 모든 책 역시 같은 뜻에서 '바로보인'을 앞에 넣어 개명합니다.
☎ 02-597-2460 도서출판 바로보인

기타



귀 달마스님
◆사주 : 대운 · 행운 · 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 ~ 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 ~ 15:00
02)999-5551 달마사
02)928-5551

제주 (땅)전문컨설팅
저희 가람공사에서는 불자님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하여 투자가치가 높은 제주 전지역 임야, 준농림지, 과수원, 전원주택, 기타 물건을 몸보시 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상담및 전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물건 다량확보)
가람공사 공인중개 사무소
전화 02)488-4304
H.P : 011)9002-2404

·사 람 을 찾 습 니 다·

◆성명 : 경순이
◆생년월일:1942.3.18일생 (59세)
◆빈손으로 만나 4남매를 키운다고 너무나 고생했소.모든 문제는 무조건 해결하겠소. 부디 속히 연락주시오.
연락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후사금 5백만원
◆Tel : (051)751-6556,642-5738
051)632-3409,012)518-3438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항상 피곤하신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간염, 당뇨병, 고혈압, 체질개선
정력증강, 손발냉증, 변비, 요통등...
■가격 : 분말 230g 39,000원
환 250g 45,000원
동양물산(주) 011)381-8157

· 기운보강 · 스트레스해소 · 노화방지
· 면역성강화 · 질병예방 · 순환기장애에…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난치병 치료에 신비!
천연 **玉山家®** (02)777-0105

불자가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믿고 맡겨 주십시오."
대구 진전점 대표
원응 곽 영 순 합장
053)639-1100
011)509-9456

전통불교 의식 연구원
02) 511- 0108

사찰안내

사찰 (급) 안내
◇위치 : 충북 ◇부지 : 1,000평
◇법당 : 60평 ◇요사 : 80평
◇가액 : 1억 5천만원(급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소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위치 : 경기 이천 장호원
(서울 약1시간 거리)
◆대지 약 435평(건물5동), 대광전 27평 (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법전 거실 1, 방 3), 요사 43평(방11 식당 화장실독립)
◆가 액 : 3억 5천
◆특 징 : 취락시가지 확정, 도면 열람가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신고속도 건설중(서울근린지역), 녹지푸른 산을 낀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2)925-6118

사찰 부지(급) 안내
지리산 사찰명당
◆위치 : 마천소재 지리산 천왕봉이 앞에 보이는 터
◆부지 : 2,000평
(약간의 대지 초막1채)
012)587-6233

사찰 (급) 안내
◆위치 : 진주시
◆부지 142평,대지(등기필) 법당 · 요사채 37평
◆기격 : 1억 1천만원
◆특징 : 진주시내 10분거리 소재, 교통편리, 준공4년, 고급전원주택 (임법당), 시설일체 무상기증
0591)745-8166/011)488-3339

사찰(급) 안내
◆위치 : 경남 산청
◆부지 : 약 2113평 건물5동
(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샘터, 창고, 목욕탕, 화장실 1동)
◆가액 : 2억 5천만원(답사후 결정)
◆매매희망기간 : 올해 7~8월중순까지
◆특징 : 그림같은 아담한 뒷산,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가 마을앞을 흐르며 수질좋은 식수는 풍부하고 넓게 다듬은 도량은 좋은 수종으로 식수하여 짐차 좋은 도량이 될 가능성을 지님.
◆절에까지 도로포장 및 주차장 있음.
053)651-9363/0596)973-0305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 321-47(89번 버스 종점옆)
◆평수 : 40평
◆삼존불, 영가단, 삼성각, 신중단, 방2, 세면장, 주방
◆가액 : 보증금1,500 월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2)521-7512/017)339-0566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전북
◇법당 : 25평 ◇요사 : 40평
◇부지 : 130평
◇가액 : 2억1천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전북 군산 시내에서 15분 거리
◆법당 주산포 22평, 요사채 50평,신축건물, 거실 大 1개, 방 4개, 목욕탕 3개, 부엌 20평, 다용도실 겸 창고 1, 태양열 온수기 한통 설치, 약수물 연꽃독 설치
◆대지 : 360평(대지 80평, 밭 172평)
◆등기필
◆가격 : 2억 9천(절충가능)
※ 절옆에 3층 지방문화재 석탑 있음.
0654)451-2410 / 011)671-5161

절터 · 별장 안내
◆위치 : 충남 홍성
◆부지 : 약1800평
◆가액 : 평당 7만원
◆자연암반에서 샘물이 100톤이상 용출됨. 경관수려 교통편이 양호
0451)633-3878
011)432-2101

사찰 안내
◆위치 : 충남 공주에서 15분거리
◆대지 : 500평
◆법당10평, 요사채30평, 종각 목욕탕, 화장실, 마당500평(잔디)
◆가액 : 1억 2천
◆특징 : 천연수, 산세수려 안대가 좋음(사정상 급매)
016)314-0108

사찰 안내
◆위치 : 부산
◆대지 : 500평 사용 300평 등기필
◆법당26평 산신각 용왕전
◆요사 총 4동 (방9개)
◆산속 암벽이 둘러있는 기도처이며 바다가 보임.
◆가액 : 2억 9천 (절 충 가)
019)616-3200

사찰 (급) 안내
◆위치:경남 마산 하안 시내와 5분거리
◆법당 2층 40평, 1층 공양실, 기도실 40평 - 절도, 돌, 술불, 산신당, 신식 스라브, 요사채 20평 1채,대지330평, 텃밭 300평, 시설완비 A급(건물및 일체 시설 무료보시, 토지만 계산하면 됨)
◆용트림하는 산세와 일급수, 강이 흐르는 보기드문 절터로서 소나무 및 금잔디 조경이 이루어진 청정한 기도도량, 차량 절안까지 바로 진입,보살및 스님 환영, 사정상 급히 양도, 가격 절충
011)559-9651/0551)286-0432

법당 안내
◆위치 : 모래내 시장내
◆법당15평, 큰방1, 주방1, 목욕탕1
◆가액 : 3천 (월세)
032)468-3210
011)238-3210

고가 한옥 안내
◆위치 : 공주군 반포면
◆대지 : 407평, 임법당 있음.
◆가액 : 상담후 결정
0613)336-0504

사찰 안내
◆위치 : 과천 대공원 청계산 뒷편
◆법당 : 30평 ◆반지하 : 40평
◆1층 : 요사채 30평
◆가액 : 상담후 절충
02)502-2932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 1리 75번지
◆준농림지 : 1,800평 (대지200평)
◆건물 : 25평
◆가액 : 1억
0564)733-5366
011)655-3883

사찰 (급) 안내
◆위치 : 대구시 수성구 파동
◆부지 : 60평
◆법당 13평, 산신각, 용왕당, 방 6칸
◆가액 : 1억 8천만원(가격절충)
053)768-5788
성불사

토지 안내
◆위치 : 경남 밀양 단장면
◆토지 780평
(사용가능한 평수 1천평)
◆특징 : 산세가 좋고, 계곡물이 좋은 수양도량
◆가격 : 1,900만원
011)845-3430

연수원 및 사찰부지(급)
◆위치 : 경기도 홍천군 서면
◆특징 : 홍천강 유원지 및 대명리조트 10분거리
서울에서 40분거리, 숲속의 분지
약2500평(토목공사완료)
◆가액 : 2억5천만원
한라공인 0343)386-6444
중개사 016)212-0988

서울,부산지역 사찰구함
서울 부산시내 또는 근교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전화상담시 상담내용은 보안유지합니다.
한국불사 02)561-7020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서울시내
◆부지 : 약400평(국)
◆법당 20평, 요사 30평
◆오백나한불사중
좋은인연 02)561-7020 018)273-9390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소재
◆ 부지 약 3500평, 법당 40평, 요사40평
◆산세계곡 좋음.
◆가액 : 답사후 협의
좋은인연 02)561-7020 018)273-9390

포교당 안내
◆위치 : 광주시내 요충지
◆2층 45평
◆가액 : 전세 4천, 월세가
◆시설비 있음.
062)224-2851
011)633-2851

사찰 안내
◆위치 : 경주시내(위치좋음)
◆평수 60평, 법당1, 방3, 주방 일체시설 완비
◆가격 절충가
017)334-2581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설악산 국립공원 ◆부지 : 약1600평
◆법당 (전통목조, 단청) 및 요사 30평
◆가액 : 답사후 결정
◆특징 : 내설악의 수려한 계곡과 울창한 수목이 조화를 이룬 천혜의 도량으로 사시사철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빼어난 산세와 계곡의 청정수 및 약수가 어우러져 더할나위 없는 청정기도 및 포교도량입니다. ※교통입지 조건이 양호
해동불사 02)389-7880/019)390-6110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여권발급 신청당일 가능

(통신) 경찰청은 이달부터 신원조회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신청 당일 여권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여권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때 현재의 이름과 출생연도만 입력, 동명이인 중 수배자가 있을 경우 정밀조회를 하느라 발급이 지연되었으나,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입력해 신청 당일 여권발급이 가능해졌다.

화장하면 10만원 지원

(장묘) 경기 의정부시는 화장을 하거나 가족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할 경우 유족에게 10만~2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시 거주민에 한해 지원하며, 화장의 경우 10만원, 가족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할 때에는 20만원을 지급한다.

견인료 신용카드로 결제

(교통) 서울시는 이달부터 주차위반 등으로 견인된 차를 찾아가면서 내는 견인료와 보관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국민·외환 등 카드사와 계약을 맺었다.

소액 민사사건 실비변호

(법률)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실비로 전담해주는 변호인단이 구성돼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 13명은 지난달말 소액사건 전담 변호인단을 출범시키고 서울지법 본원과 동,서,남,북부 4개 지원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수임료를 기존의 3분의1 수준인 100만원 안팎으로 정해 '실비변론'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02)3476-7000

카페인 방사능 피해 줄여

(건강) 카페인이 방사능 피해를 막는다는 새로운 연구가 나왔다. 인도 원자연구소의 조지박사팀은 카페인을 주입시킨 쥐와 그렇지 않은 쥐에 치사량의 방사능을 가한 결과 카페인을 주입시킨 쥐만 생존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조지박사는 "커피의 작용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청소년 박물관교실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99여름 어린이·청소년 박물관교실'을 개설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박물관 공부와 문화·역사강의, 전시실 학습, 유적답사 등이다.

어린이교실은 초등학교 4~6학년생 600명을 대상으로 7월19일부터 8월4일까지 5일씩 3차례 진행되며, 청소년교실은 중학교 전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8월9일부터 13일까지 운영된다. (02)398-5081

노스트라다무스 '1999년 7월 종말론'

컴퓨터 실험 "대재앙 없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한 7월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다. 그의 '199년의 일곱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라는 예언을 두고 해석자들은 이날을 7월4일, 18일, 24일, 8월11일 등으로 얘기한 바 있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따른 종말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직도 그의 예언이 들어맞을 몇 번의 기회가 남았다고 믿는 것일까.

6월 창간된 천문정보지 '별과 우주' 창간호(7월호)는 시사기획물 '굿바이 노스트라다무스'에서 대재앙설의 근거가 되는 '그랜드 크로스(행성 십자배열)'나 '그랜드 얼라인먼트(행성 일자배열)' 현상이 올 7월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7~8월의 행성배열을 컴퓨터로 모사(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종말론이 허구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랜드 크로스·얼라인먼트란=그랜드 크로스란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배치될 것이라는 예언에 따라 붙여진 이름. 그랜드 얼라인먼트는 태양과 지구와 달, 행성들이 일직선을 이루는 것으로 오는 2000년 5월5일쯤 일어난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론=이 두 경우 모두 각 행성과 지구의 밀고 당기는 힘에 영향을 끼쳐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그가 말년에 편지 형식으로 남긴 '제세기(Centuries)'라는 예언서에 담겨있다.

▲천재지변은 일어나는가=천문우주기획은 오는 7월31일의 행성 배치도를 컴퓨터로 모사한 결과 그같은 행성배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행성이 지구에 미치는 인력을 합해도 달의 1.7%밖에 되지 않아 지구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말론을 비웃는 사람들=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시가 3797년까지 이어지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노스트라다무스의 고향인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에서 전세계 관광객과 취재진을 상대로 돈을 벌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는다. 지구종말론의 비판서인 〈에코 스캠(Eco Scam)〉은 지금까지 나온 종말론 중 들어맞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과학자-언론-환경단체가 종말론을 부풀려 장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종말론의 실체=종말론은 서양의 직선적 역사관이 낳은 현상이다. 동아시아 전통세계에서는 '인류 멸망'이라는 주제를 두고 사회가 심리적 공황에 빠지는 일은 없었다. 〈종말론의 역사〉를 쓴 유리 루빈스키는 "불안한 사회일수록 종말론에 빠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불교의 눈

"정법에 의해 세상을 보라"

불교는 정법에 의해 세상을 보고, 근본적으로 종말론과 같은 예언은 말하지도, 믿지도 말라고 가르친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모든 비구들에게 신통을 보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장아함경). 수학 문화연구소장 김용운 박사(전 한양대 교수)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론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기독교의 종말관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것이 연기한다는 불교적 입장과는 매우 상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불교는 시작과 끝이 없는 연기법에 따라 모든 인연이 이뤄지며, 따라서 종말론과 같은 것은 믿을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종말론은 논리에 따라 결과가 나온다는 과학의 논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南北화해-협력 촉구 송월주 전 조계종총무원장,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크리스천아카데미 이사장 등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대표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촉구했다.

자외선 종양·노화 유발

햇빛은 피부의 적…노출 피해야

피부노출이 쉬운 여름철, 하지만 햇빛이 '피부의 적'이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자외선 가운데서도 B파는 피부를 그을리게 하고 때로는 '상피성암종'을 일으키지만 보기 흉한 흔적만 남길 뿐 치명적이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는 C파와 마찬가지로 악성종양인 흑색종을 유발한다고 보고했다.

게다가 지금까지 건강자외선이라 알려져 왔던 A파 역시 종양억제유전자와 면역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A파는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조기피부노화, 반점, 주름 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여름철에 주로 하는 인공선탠은 돈을 주고 A파를 쬐는 셈이다.

한국인 1천명중 33명 매일 항생제 복용

지난달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7년도 병·의원과 약국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33명이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는 등 항생제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32.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생제를 매일 복용하는 사람 수를 나타내는 일일사용량 기준단위(DDD)는 33.2%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의 평균 DDD가 21.3인 점을 감안할 때 우려할만한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의료기관에서 항생제를 제대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항생제사용적합률은 평균 67.4%에 불과해 항생제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우리나라 국민이 약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지만 항생제는 병에 대한 내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잡아함경〉에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오늘부터 나무가 필요할 때에만 나무를 구하고, 풀이나 수레나 일꾼이 필요할 때에만 그것들을 구하라"는 말씀이 있다. 꼭 필요할 때 쓰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물의 사용이치다.

시론

공직자들이여

힘없는 백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구제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임을 역설한 다산 정양용 선생의 유언이 문득 생각난다. 봉건왕조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다 18년간의 유배 생활 속에서 집필한 명저 〈목민심서〉는 돌아가신 지 13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널리 읽히고 있다. 청빈한 조선시대 문필가요 실학자인 선생은 참 멋을 아는 다인(茶人)으로 일흔 다섯 해를 이 땅에 머물면서 진정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호국의 정신으로 보람있게 살다 가신 분이다.

특히 〈목민심서〉는 오늘날 공직자 누구나 익히고 실천해야 할 불후의 금언으로 가득차 있다. 이 시대 새삼 그리운 마음에 이 시간 남의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듯한 사건들로 울분과 부끄러운 유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또 한 번 경악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수련장 어린이 참사사건을 본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무참히 꺾여버린 스무 세 송이 꽃봉오리들의 비명은 우리의 가슴에 푸른 피를 토하게 한다. 이 또한 맡은 바 자신의 일에 소홀하지만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극이자 공직자들의 불성실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강문숙 〈시인〉

> "안전불감증에 희생된 아이들 책임감 되살리는 고귀한 희생되길"

공직자의 윤리가 흔들리면 나라의 기강과 민족의 정기가 흐려져 사회의 뿌리인 도덕이 무너지는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사실을 곧잘 잊고 사는지 모르겠다. 공직자들 집 김치독에서 돈다발이 쏟아져 나와 아연실색케 하더니, 장관 부인 옷로비 의혹사건으로 온 나라를 벌집 쑤셔놓은 꼴로 만들어 놓고, 이것도 부족해 후원금을 받은 장관이 물러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강요당한 국민들은 더이상 허탈해할 것도 없는 상태에 빠졌다. 어떤 명목이나 명분에서든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음을 공직자들은 아직도 잊고 사는 것인가.

90만 공직자들은 진심으로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쯤 다시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기업인이나 자영업자 기술자 근로자 기타 직업인들이야 생산량이나 시간에 대한 수당만 받으면 되지만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범벅된 세금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공복이기 때문에 주인인 국민들의 시각이나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얼마전 정치와는 정서가 맞지 않는 사람을 장관의 자리에 앉혀 오히려 훌륭한 예술인 한 사람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불명예를 안고 사임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든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일까. 임명권자나 임명받은 사람 모두가 제 몫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수 있다.

예술은 예술가가 사업은 사업가가 정치는 정치가가 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깊은 안목으로 양심을 으뜸으로 치는 인사행정을 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리 없다.

신선한 나무가 아니면 내려앉지 않고 고결한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고 가장 순수한 샘물만 마시는 불사조 정신에 청렴과 근검을 정신유산으로 남긴 다산선생의 덕목정책이 어우러질 때 이 땅의 국민들은 모든 공직자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산대사의 '부자굴 부자고(不自屈 不自高)'라는 말씀이 있다. 스스로 낮추지도 높이지도 말라는 가르침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평생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명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치독 속에 든 돈 다발 묶음은 감사의 편지로 가득 차고 화병 속에 든 지전의 눈들은 고마운 단어 나열된 안개꽃으로 피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서류 가득 찬 007가방을 들고 연꽃처럼 피어오르는 공직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 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알기 쉬운
한문해석법
한문의 기초부터 허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 〈반야심경〉을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번역하였다.
심재동 저/신국판/383쪽/12,000원

무문관으로 배우는
선어록 읽는 법
선어록은 대부분 당송시대의 언어로 쓰여졌으며 그것도 선종 특유의 정신이 배어 있는 직설적 어법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당송시대의 문화와 관습, 생활 등을 토대로 선어록 해석의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공한다.
혜원 역/신국판양장/376쪽/15,000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 타운힐빌딩
전화 3672-7181~5 팩스 3672-7186 운주사
통신판매 이제 전화 한 통화로 집이나 사찰에서 편안히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종합잡지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여름호

지상강연 혜거 스님과 떠나는 불교진리탐구 3 - 禪강좌
곽암 선사의 십우도송(十牛圖頌)

불교계진단 10 / 불교계 실버산업의 현실
실버산업의 현황 및 불교계의 운영실태를 짚어보고 불교계 주요 노인복지시설 및 곳을 소개한다.

최초완역 / 일연 스님의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 스님의 또 하나의 역작, 『중편조동오위』.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으로 알려져왔으나 서여 민영규 선생이 일본 京都대학에서 발굴함으로써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귀중한 자료인 『중편조동오위』를 천태종 역경원장이신 이창섭 선생이 국내 최초로 번역, 소개함으로써 일연 스님의 선사상을 새롭게 조명한다.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10 / '99건축문화의 해 특집
동해를 앞마당으로 둔 절, 낙산사
낙산사는 절 자체보다는 절이 위치한 자리를 통해 더욱 빛나는 조형미를 연출한다. 관음신앙의 성지이며 주변환경과 어우러져 시야가 넓어지는 낙산사와 홍련암. 짙은 건축가 류경수 씨와 함께 새롭게 음미해보는 낙산사의 건축문화체험

특집 / 21세기 해양의 시대와 동아시아 불교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아 해양을 통해 이루어졌던 한·중·일 동아시아의 활발했던 불교문화교류의 역사적 근거를 통해 장보고를 필두로 해상을 호령하던 그 기상을 오늘에 되살려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불교의 미래를 전망해본다.
- 21세기 해양의 시대와 동아시아 불교의 미래
- 한·중·일 해상교류와 관음신앙
- 佛典 및 기록으로 보는 불교와 해양

인터넷 불교 /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현재 개설, 운용되고 있는 인터넷 불교사이트를 평가한다
-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통도사, 송광사 등이 뛰어나다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 학술편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획.
근·현대 재가불자들 중 각 분야별로 불교활동의 현저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 역사와 禪의 만남, 황의돈 선생
- 한국 도서관의 아버지, 박봉석 선생

우리시대의 匠人 2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젊은 장인들을 찾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텃밭을 일구어가는 숨은 장인들의 숨결을 느껴보는 시리즈.
- 북 장인(鼓匠), 임선빈 씨

연재소설 / 『관세음보살본행경』 평역
「산은 산, 물은 물」, 「단행」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소설가 정찬주 선생이 소설적인 구성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소설.
관세음보살 이야기 〈1〉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
1998. 12 ~ 1999. 6.
불교 관계 각종 자료(단행본, 논문, 학위논문)를 목록으로 정리.

불교와 문화 구독 및 광고 문의 : 02-719-1855 우)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불교와 문화' PC통신 ID :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 kbpf, E-mail : kbpf@chollian.net

"바른 신행은 교육에서"

조계종 '여성불자 새 역할…' 워크숍

20~50대 107명 다양한 주제 토론

"가족부터 포교…교계 탁아시설 필요"

종단 차원에서 처음 시도된 이번 '여성불자의 새로운 흐름을 모색하는 워크숍'에는 전업주부, 회사원, 종무원, 언론인, 불교여성활동가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20대~50대의 여성불자들이 참가해 새시대를 맞는 여성불자들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펼쳤다. 사찰/신행·가정·직장·사회활동과 여성 등을 주제로 이날 워크숍에서 실시된 분임토론결과를 통해 여성불자들의 관심과 요구를 살펴본다.

워크숍에 참여한 여성불자들의 공통된 화두는 '교육과 육아'였다. 총 8개조로 나눠 열띤 분임토의를 펼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여성불자들이 사부대중의 일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기반으로 한 신행활동과 사회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제1주제 사찰/신행〉

여성불자들이 한국불교신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복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채 사부대중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지적했다. 활동영역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급선무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써 사찰마다 탁아방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여성불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면서 현실적인 조직 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2주제 가정〉

가정내의 종교적 갈등과 인간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여성, 주부, 어머니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교용 소책자 등을 적극 활용해 가족을 부처로 삼아 나의 수행이 가정의 행복이라는 자세로 가정내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가족을 적극적으로 포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3주제 직장〉

교계 여성불자의 진출분야가 한정적이며, 여성에 대한 교계전반의 인식을 여성스스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아개발 등 전문적 지식과 직업관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일하며 그 속에서 불교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혼여성의 활동에 제약이 되는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탁아시설이 확보돼야 하며, 직능별 연대 모임을 통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종단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불자워크숍에 참석한 여성불자들은 8개 조로 나눠 4가지 주제에 대해 자신의 체험에 근거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4주제 사회활동과 여성교육〉

여성불자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다수가 주부불자임을 감안해 엄마로서의 역할교육과 탁아시설확보 등도 제기됐다. 또한 신행활동과 사회활동의 연계방안 모색,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활용한 전문분야의 교육실시 등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이같은 토론을 통해 여성불자조직 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다양한 소모임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모색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 3월 본지가 사설(212호)에서 언급했고 5월 기사(224호)에서 다시 거론했듯이 이번 워크숍이 성과주의적인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종단, 여성불자 모두가 지혜를 모아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만 21세기에 한국의 여성불자들이 폭넓은 자기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⑩



박 회 선 〈前 서울대 교수〉

새벽 참선 생활화 건강의 원천

77세에 킬리만자로 등반할 정도

매일새벽 4시면 일어나 참선에 드는 박회선회장(81, 수요회·전 서울대 공대교수).

하루 일과는 오후에 잠깐 옛동료들을 만나기위해 헬스클럽에 다녀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분분 참선을 생활화 하고 있다. 음식은 특별히 가리지 않고 육류를 자제하며 소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회장은 95년 7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젊은사람들도 못하는 영하 30도 7천고지의 히말라야를 등반해 화제가 됐다. 올해는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대한노인회의 기념사업으로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에 등반해 최고령등반의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1만m(세계기록 30분)를 50분에 주파할 정도로 노익장을 과시해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는 박회선회장은 1.5km 한강도하 도전 제안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이에대해 박회장은 정기적으로 등산도 하지 않았다며 정신력을 강하게 해주는 참선이 건강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박회장 90년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각 3시간씩 참선을 하는 모임인 수요회를 이끌고 있다. 수요회는 원래 매주 수요일 1백여명이 참가했으나 요즘은 주 2회로 늘려 6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다.

생활참선을 중요시하는 박회선 회장은 이미 '생활참선 건강법'을 펴내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올해내에 미국에서도 발간될 예정이다.

또 참선을 하게되면 뇌에서 정신을 맑게하고 노화를 방

춤·노래·퀴즈로 새청소년 보호법 알려

인천청교련 '거리음악회' 열어





8일, 28일~3일까지 지장된 청소년인권보호주간

청교련 인천지부는 오는 9일 금요일에 중구 인천백화점에서, 10일 토요일에는 남동구 신세계백화점에서 개정 청소년 보호법 홍보를 위한 청소년 거리음악회를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개정 청소년법 어떻게

원조교제 최고 3년이하 징역

규제와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된 청소년보호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만19세 미만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기 의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불자청소년과 가족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유해행위 금지=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접촉 등 성적 접대·알선·매개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앵벌이와 호객행위를 시키면 5년이하 징역 또는 3년이하 징역과 2000만원이하 벌금. 금품을 제공하고 성행위나 원조교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유해업소·물질=부탄가스나 신나 본드 등 환각물질 판매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일반음식점, 유흥 단란주점 등의 미성년자 고용(임시고용포함)시 10년이하 징역 및 1인당 1000만원의 과징금.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찰착용 위반시 2년이하 1000만원이하 벌금.

◆유해매체물 규제=전화나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 폭력성 영상물이나 음향 배포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폰팅이나 음란성 성기구광고, 유흥업소 구인광고 등을 게재한 생활정보지는 가판대 진열이 금지되고(2년이하·1000만원 벌금), 청소년에 배포할 수 없다 등이다.

문학·영상미 살린 '오세암'의 설화

K-2TV 13일 '전설의 고향'



단 한명의 귀신도 등장하지 않는 구학성 깊은 전설 이야기 '오세



고 촬영한 사찰의 절경에 흠뻑 빠 다. 김주일 기자

방송소식

주택·토지 동향 상세 소개 BBS '부동산경제'

재테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요즘 돈이 되는 신선한 부동산 정보를 만날 수 있다.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이 매일 저녁 7시25분부터 30분간 방송하는 이성태의 '부동산 경제'(담당PD 최윤희)가 바로 그것.

이 프로는 △월요일 '최근 아파트 분양 현황 및 주택시장 움직임' △화요일 '재개발, 재건축 투자전략' △수요일 '전원주택 마련 지름길' △목요일 '가변적인 토지시장 동향' △금요일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 방법' △토요일 '한주간의 전국 부동산 매물시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근찬 자선투어콘서트 17일 여주 목아박물관

불교방송 '퀴즈대장경'의 진행자인 가수 이근찬씨가 불교방송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갖는다. 17일 오후 5시 여주 목아박물관에서 열리는 1차 콘서트에서는 가수 채은옥, 조항조씨와 관소리 명창 박윤초 등이 찬조 출연한다. 또 인간문화재 박찬수씨와 범주스님의 퍼포먼스 등으로 신명나는 한마당을 꾸밀 예정이다.

청소년 단신

자연과 함께 역사기행

덕유사회복지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자연과 함께하는 역사기행'을 주제로 개구쟁이 캠프를 23일~24일 경기도 연천 보개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연다. 물놀이, 고기잡이 등 자연학습체험과 백마고지, 제2땅굴 등 전적지도 탐방한다. (032)325-2161

청소년 문화·건강강좌

부산 양정청소년회관은 청소년을 위한 여름 문화·건강 강좌를 8월까지 실시한다.

영어, 일어, 컴퓨터, 에어로빅, 고전무용, 힙합댄스, 가야금, 장구, 노래교실 등이 운영된다. (051)868-0750

예술

한국불
(회장
세종문화
회 참나
상작품
청소년
전화 개
수작품
전시회에
점의 작
선덕시
선덕시
행법스는
와 지리
학교 3
무등산
발우공양
(062)2

대전 수상작 전시회

불교청년회·마음의전화
도각스님)가 11일~14일
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제4
청소년 종합예술대전 수
전시회를 연다.
전문상담전화인 마음의
통 4주년을 기념하고 우
홍포를 위해 마련된 이번
는 그림과 시 등 1백여
품이 선보인다.

사 어린이 수행학교

어린이수행학교(학교장
)가 21일~23일 선덕사
산 일대에서 열린다. 초등
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야간탐험, 자연과의 대화,
등을 실시한다.
63-4660



운월스님

소·리

이 통합하여
는 것이다.
합하지 못할 때
를 이끌고 있는 것은
면 마음에 의한 것,
4대가 조화를
하고
하면서
다." 〈본문중에서〉

이며
이신
았던
삼아
문집!
하는
있다.
으며
있다.
걸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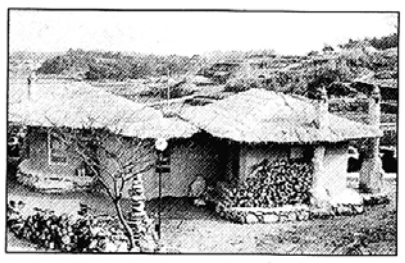
불교서점은 물론
은 호응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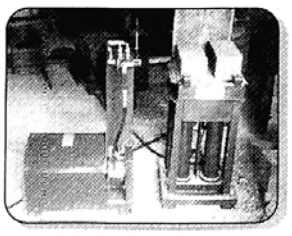
☎ 720-0824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앤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학제의 신간
해서 명리진평

혜서 신명리진평은 자평서(子平書), 적천수(適天殊), 궁통보감(窮通寶鑑), 명리정종(命理正宗), 잡론구결(雜論口訣), 추명가(推命歌)등 고서(古書) 전부를 하나로 묶어 알기쉽게 완성시켰습니다.

▸▸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이책을 출간하기 위해 필자는 오랜 연구노력끝에 5년간에 걸쳐 완성시켰습니다. 우리의 역학발전에 꼭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혜서 조 영 수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승원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우리말 21C 최신판 대운만세력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여는 사람은 세월(철)을 알고 행해야 한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쓰기와 한글표기를 중심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새로 만들었습니다.



혜서 조 영 수 지음
4×6배판 값 15,000원
신국판 값 30,000원

※ 전국 서점 판매중 ※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초)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9000원(고)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초)
4. 명리학과 오운육기론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25,000원(초)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 전호원 공저/정가 25,000원(초)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승원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백파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컴퓨터논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컴퓨터논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박광 지음 /정가 17,000원

서울시 동대구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관음출판사

화제의 신간
운월스님의 세상사는 지혜
佛國의 아침을 여는 풍·경·소



"모든 생명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 과거로부터 미래로 유전되어 그리고 육체는 지수화풍이 잘 병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육체 마음이다. 그러므로 병이 생기 업에 의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루지 못해 생기는 것임을 인 늘 참회기도와 업장소멸기도를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

한국불교교화원의 이사장
불교여래원의 주지
백운월 스님이 가슴으로만 품어
불덩이들을 밤낮으로 삼고
오색 빛 영롱한 비단실로 뽑아 올린 주옥같은 법
이땅에 불국토를 이룰 때까지 정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자
한 수행승의 원력과 몸부림이 그대로 녹아
전편이 4장으로 구성되어 있
1장에 10여 편씩 총 52편의 글이 실려
종교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인간 세상사 전반에
해박한 지식과 함께 명징한 사색의 혼적이 역력히 배어

※ 책을 구입하실 분은 설법연구원으로 연락하셔도 되며, 조계사 앞 불교보, 영풍, 중로서적 등 시내 대형 서점에서도 판매되고 있사오니 많
※ 회원이나 법보시 등 다량 구매시 30% 할인해 드립니다.

신국판/304면/값 7,000원 / 도서출판 솔바람·설법연구원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불·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부다피아 쇼핑몰 선정
여름 기획 상품 특판전

부다피아 쇼핑몰을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다피아 쇼핑몰이 제1회
우수사이버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인터넷 불교 백화점 부다피아 쇼핑몰이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몰을 공급해 드리겠으며,
실제 생활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불교관련쇼핑몰을 개발함으로써
"생활속의 불법홍포"에
앞장 서겠습니다.

부다피아 티셔츠



- 재질 순면 100% (20수)
- 색상 흰색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7,000

10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며 연꽃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 나팔

경상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식용의 강원 · 스님 요사용 · 불자등의 경전읽기 · 자녀등의 학습

- 크기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 재질 ASH(느릅나무)원전원목
- 가격 : ₩85,000

옥베개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등의보감 신침(腎枕) 비방 한방 베개란?
東醫寶鑑 腎枕法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황제에게만 비밀 전승되어 온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생약을 잣나무 함에 넣은 베개로서 "1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면 체내에 모든 병이 개선되어 몸에서 향기가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이목(耳目)이 청명해진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당신에게 잠을 자도 잠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당신에게 · 밤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휴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만성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당신에게 · 베개 높이는 수영과 직결 - 최적의 높이를 찾으시는 당신에게 · 피곤하거나, 결리는 신체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줄 안마사가 필요하신분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분 코골이는 코고는 본인에게 더 위험합니다

■ 가격 : ₩30,000(1개), ₩56,000(2개 한세트)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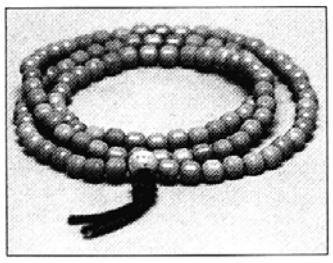
원산지 중국 ■ 가격:₩98,000

•수암옥의 특징

· 세계적 유명옥은 곤산옥(신강성).초산옥(호북.삼양).수암옥(요령성)이 대표적인데 그중 수암옥은 2300여년전 부터 내려와 그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한나라 이전부터 그 진가가 알려져 세계 최고의 옥으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현재 북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벽옥구괘' 가 수암옥으로 판명되고있다

· 고려사 보우스님편을 참조하면 명나라 황제가 딸 노국공주를 고려 공민왕에게 시집보낼때 제일 귀중한 예물로 수암연옥으로 만든 옥대를 만들어 보내며 공민왕의 장수를 빌었다는 기록이있다.

생광석 108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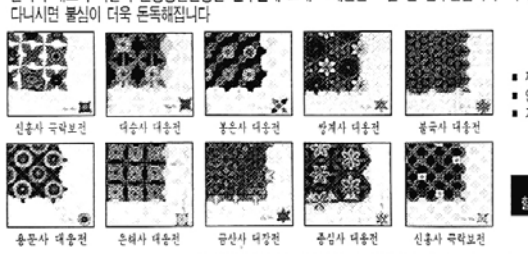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여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 가격:₩35,000

불교전통 창살문양 손수건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창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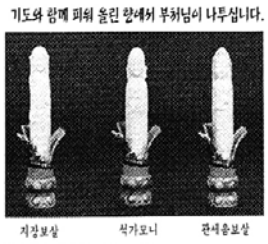
- 재질 순면 100%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5,000

다량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현상 공덕향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지장보살 석가모니 관세음보살

현상공덕향은 외형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연꽃문양 좌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 후 약 20여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형상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타고난 다음에 향 연기는 스멀되고 법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 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형과 결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어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재일 및 법회와 방생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최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제조원 숫백년향
- 판매원 몰 · 부디피아

■ 가격 ₩8,000(3개 ₩21,000)

법성게 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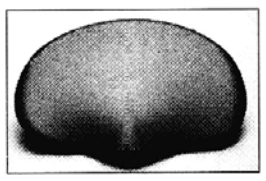
법성게는 화엄경의 방대한 내용을 7언 30구(210자)로 압축 요약하면서도 그 심오한 진리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의상스님이 저술 하였다.

이러한 법성게를 걸망에 디자인 하여 만든 제품이다 스님 및 일반신도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걸망 옆에 지퍼를 이용 사용 자가 편리하게 물건을 넣고 뺄 수 있게 하였다.

- 크기 : 500×460(mm)
- 색상 :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 가격 : ₩15,000

참선 명상 방석



국내 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창선 · 명상 · 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식

제품의 특징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지연스럽게 피진다

크기가 작아 휴대 · 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 · 방석 위에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사용처는 사찰, 신행단체, 선방, 심신 수련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제품

■ 크기 39×43(cm) ■ 가격 : ₩27,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브론즈 코팅형 개금형 골동품형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 재질 100% 청동
-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크기 40.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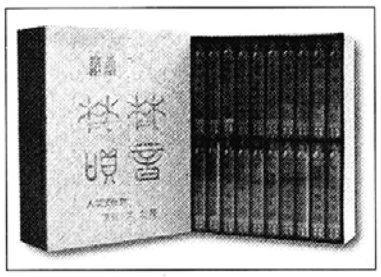
■ 가격 : ₩350,000(코팅형,골동품형)
₩580,000(개금형)

상진주 호신 메달

상진주(像塵珠) 란?
조개속에 미리 새겨진 핵을 삽입하여 수년간 양식 과정을 거쳐 그 상(像)대로 형성 되어진 진주입니다 상(像)은 인위적인 가공없이 자연 색상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지니며 성공률 30%로 희소가치가 큰 보석입니다



문구암스님 법음 · 범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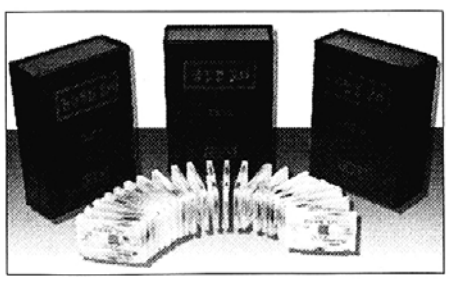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테이프 1질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관욕의식 등 분야별로 녹음되어습니다.

1.불공의식 2.삼신이운 3.신장청 · 소증권공 4.상단청 5.상단권공 · 거목 6.대령 · 관욕의식 7.대령 · 관욕의식 II 8.대령 · 관욕의식 III 9.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영산작법 I 11.영산작법 II 12.영산작법 III 13.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지장권공 II 16.전시식 17.배송 18.운신게 19.법사이운 · 명전점안 20.종성 · 천수작법 · 오잡

■ 가격 : ₩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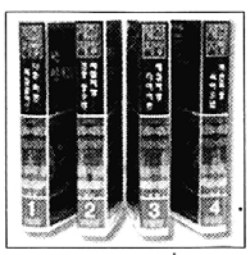
무비스님 특강 녹음 테잎



무비스님의 경전 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환잡한 마음을 조응히 하고 꼭 들어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지장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진심직설 강의
  - 테잎 20개 ₩45,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인가?
- 체질이란 무엇인가?
-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사상의학이란?
- 체질 감별법
- 자신의 외모심성 병증으로 체질 진단
- 체질병 특징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 체질에 맞는 섭생이란?
- 체질에 맞는 보약과 운동은?
- 체중조절에 도움이되는 보약
-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
- 과일,해물,차등
- 건강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제4부 자연처방 식이요법

■ 가격 : ₩70,000(가방포함)

지자 ·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일병 교수 · 경희대 물리요법과 신현대 교수 · 경희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김달래 교수

관음분청도자기



이시대의 살아계신 대선사 감석주 큰 스님 친필 관음 분청 도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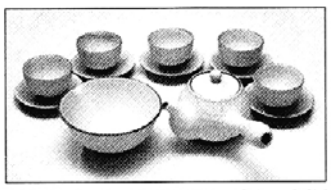
석주 큰스님 친필 관음 분청사기(부처님의 원력으로 쓰신)를 꼭한점씩 가내에 소장하시어 모든 기도성취를 이루시고 가내액회소멸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큰 목덕을 누리시기바랍니다 한점씩 소장하시여 후손에게 물려주어도 작품의 깊어치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분청 도자기는 일반 백도자기와는 달리 회로에서 구울 때 성공률이 25%내외 밖에되지 않으며 고온에서 장시간 굽는등 제조 과정이 작가의 혼을 담은 정성이 깃들어야 합니다 특히 석주 큰스님(9l세)의 친필 관음찬이 관세음 보살님 그림과 같이 새겨져 있으므로 소장 하신 분의 가내 액화를 소멸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큰 목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품 보증서 첨부)

- 규격 30×30×4단위(cm)
- 박스 31.50×31.5×6.8(cm)
- 무게 5.15kg(도자기)×2ea(포장나무)=7.15kg

■ 가격:~~₩990,000~~(정상가) / ₩495,000(특판가)

고산다기



고산 이규초 선생은 임진란때 일본으로 강제납치 되었던 조선도공 팔산의 혼을 사백여년만에 한국에 되돌려온 도예가이다. 팔산의 십일대손인 고희정선생이 그 조선전래 비장의 도예술인 그 불꽃을 조국에 되돌리고자 한국의 도예특기자를 전국의 수많은 지망생 중에서 선발하여 일본으로 데려가 그 문하에서 5년간 기법을 연마시켰던바 그 수제자가 이규초 선생이다

이리하여 이규초 선생은 그 도예진수를 발휘하여 국내외 전시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내고 있으며 따라서 고산 이규초선생은 일본살신기의 예술혼의 불꽃을 한해탄을 건너 고국에 옮겨놓은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제품은 이러한 역사를 지닌 고산요(高山窯)에서 만들어 진 다기이다

■가격:₩120,000

찻상



- 크기 52×38×8(cm)
- 재질 소나무 (100%)
- 용도 찻상 정반
- 제작기법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한 수공예품

■ 가격 : ₩54,000

다기함



- 크기 50×39×15(cm)
- 재질 소나무 (100%)
- 용도 다기 보관함
- 제작기법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한 수공예품

■ 가격 : ₩126,000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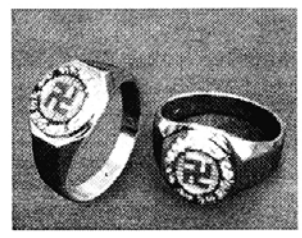
대 ₩37,000(11.5×16.5cm)
중 ₩25,000(8.5×14.5cm)
소 ₩17,000(6×10cm)

대 ₩62,000(11×25cm)
중 ₩47,000(8×18cm)
소 ₩31,000(6×13cm)

대 ₩219,000(15.5×25cm)
중 ₩89,000(10.5×16cm)
소 ₩69,000(9×13cm)

신라의 미 하면 가장 먼저 성덕대왕신종 수많은 에밀레종을 연상하게된다 봉덕사 선덕대왕신종 은 구경(口徑) 2.227mm, 전고(全高) 3.663mm, 두께 203mm, 음통고(音筒高)648mm의 거종으로서 종체의 규모에 있어서나, 영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최상 최우수 걸작품이며 동양의 최종문화의 정수를 나타내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기의 업종이다 이처 같은 문화의 유산을 재현하여 100% 청동과 100% 수공작업으로 만들었다

반야 불교반지



불자의 자긍심을 세겨습니다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루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광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독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意力), 행력(行力), 참력(堅力)
강력(强力) 지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변력(辯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홍법력(弘法力)
항마력(降魔力)

■ 제질 금큐빅(18k,15k-1.5돈) ■ 가격 ₩130,000(18k), ₩120,000(14k)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쑥환



3년 숙성시킨 강화사자발쑥 쑥 환 으로 드십시오 !

사자발 쑥 환이 좋은 3가지 이유
1. 복용과 휴대가 매우 편리합니다
강화사자발쑥 환은 기존의 환제품과는 달리 쑥 특유의 쓴 맛을 꺼려하는 남녀 · 노소 특히 어린이도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휴대나 보관도 매우 편리합니다
2. 효과가 빠릅니다
쑥 환이 효과가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저녁 과식후 속이 더부룩 할 때 20환 저도를 드시면 다음날 아침 속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쑥 100%입니다
사자발쑥 환은 손수 강화사자발쑥 100%로 고품질의 강화도 특산품입니다.(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쑥 환 제품중에는 쑥을 달이지도 않고 분쇄후 풀하고 섞어서 환으로 만든 제품도 있는데 주의 바랍니다.)

■ 가격 : ₩55,000 (1달분 1통 (150정))
■ 가격 : ₩80,000 (2달분 2통 (300정))

향적원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부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우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찌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풋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오보크린



특징
- 독특한 향, 부드러운 촉감, 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백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99.9% 천연 소재 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형
"오보크린"은 금해로 인해 약화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최신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비누에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 김동대학교 축산가공학과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을 주용이지만 "오보크린"처럼 자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 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 정상가격 : ₩18,000 (1세트:3개)

법회안내

평촌국토연구원서 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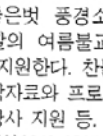


암도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 12일 낮 12시 평촌 국토연구원 불교법우회 '불자의 생활관' 주제 법회. (0343)380-0161

매주 토요일 어린이법회

도성스님(정토선원 주지)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미타재일법회. 매월 첫째, 세째 일요일 오후 7시 가족법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청소년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어린이법회. (062)528-0108

매주 일요-청소년법회



지도스님(대구 보현사 주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7시30분 청년회법회. (053)254-6966

매주 수화교육법회



해성스님(광림사 연화복지학원장)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불교기초교리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수화교육법회. (02)2202-5831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7월7일 (수)

■ **지현명 불보살조각전**=12일까지 대구 신미화랑에서 지현명씨의 불보살조각전이 열린다. 일면불 월면불, 불동, 명경 등 조소작품 10여점이 전시된다. (053)424-1442

7월8일 (목)

■ **정토불교대학 '지장경' 여름특강**=정토불교대학 〈지장경〉 여름특강이 9일까지 오전 10시, 오후 7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문경 김용사 주지 자광스님이 지도한다. (052)254-9944

7월10일 (토)



◇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한국사찰의 아름다움을 감상해 보자.

■ **부석사 철야법회**=용진신행회는 오전 7시 화엄종의 효시 경북 영주 봉황산 부석사로 철야법회를 떠난다. 하회마을도 관람한다. (02)2279-1191

■ **조계종 사찰환경위 모임**=조계종 사찰환경위원회는 11일까지 해인사에서 21세기 사찰환경안 마련을 위한 모임을 갖는다. (02)737-9684

■ **운문사·표충사 순례**=문화유적답사회 옛돌은 11일까지 무박 2일로 비구니 강원이 있는 청도 운문사와 사명대사유물관이 있는 밀양 표충사 등지로 순례를 떠난다. (02)2266-1233

■ **선재청소년지도자 연수회**=청소년법당 선재마을은 선재청소년지도자 연수회를 11일까지 서울 양재동 관문사에서 연다. (02)433-1506

7월11일 (일)

■ **부산MBC불교연구회 순례기행**=부산MBC불교연구회는 오전 7시 고성 옥천사와 문수암, 보현암 등으로 순례기행을 떠난다. (051)760-1016

■ **우리는선우 거리청소**=우리는선우는 오전 11시부터 장충공원에서부터 동대문역 일대 지역에서 거리청소를 전개한다. (02)2278-8672

■ **직지사·청암사 순례**=우리문화유산답사회 여래지는 오전 7시 30분 김천 직지사와 청암사, 수도암을 찾아 순례를 떠난다. (02)3445-0202

7월12일 (월)

■ **선불교 특강 및 선수련회**=동국대 경주 정각원이 주최하는 제1차 선불교특강 및 선수련회가 15일까지 열린다. (0651)770-2016

7월13일 (화)

■ **'북한의 불교문화' 강좌**=광주불교교육원의 열린문화강좌 '북한의 불교문화'를 전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강의한다. (062)228-9098

인도·네팔등 성지순례 잇달아

신행단체 여행사등 여름특별행사 마련

여름휴가를 앞두고 교계 신행단체와 여행사를 중심으로 해외성지순례가 잇따라 준비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속에서 해외로 나간다는 것에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계 단체나 여행사가 마련하는 불교유적지 성지순례는 적절한 비용으로 깊은 감동을 안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이 17일부터 21일 4박5일간 일본불교문화기행을, 8월8일부터 15일에는 중국불교문화기행을 떠날 계획이다. 올해부터 해외성지기획업무를 시작한 불교신행연구원은 참가자들이 특별한 신행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 네팔, 중국, 일본, 미얀마 등 다양한 코스를 개발했다. (02)582-6613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은 8월26일부터 31일 5박6일간 정병조박사의 인도로 중국 상해와 보타산, 구화산 등지로 불교성지순례를 다녀올 예정이며 (02)3411-6167, 동국대 사학과는 3일 8박9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절강성에 있는 한국 관련 불교유적지 답사를 떠났다. (02)2260-8671

반야여행사는 19일부터 4박5일 일정의 백두산, 연길, 심양의 불교유적을 둘러보는 성지순례를 시작하는 등 중국 일본 인도로 떠나는 상품을 마련했으며 (02)730-0020, 좋은 벗들은 8월 7일~15일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고구려 발해 독립운동 유적지 및 백두산 일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2)587-8996

혜초여행사가 7월중순~8월 경 중국 심양지역과 백두산 일대를 둘러보는 5박6일 일정의 성지순례를 준비중이며(02)733-3900, 감로여행사도 8월초 중국 사천성, 아미산 지역의 불교유적지를 찾아 순례를 떠난다. (02)730-9106

청교련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22일~26일 4박5일간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일본문화와 백제문화 유적답사를 떠난다. (032)577-0266

이밖에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이 2000년 1월 20일 부처님 4대성지를 방문하는 인도불교기행 동참자를 모집한다. (051)466-4080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종단소식

조계종

봉선사 하계 선수련회

남양주 봉선사(주지 밀운)는 근처에 있는 광릉수목원과 연계한 3박4일의 하계 선수련회를 개최한다. 1차는 7월 28~31일, 2차는 8월 4일~7일. 신청은 1차 28일까지 선착순 100명, 2차는 8월 4일까지 선착순 100명이다. 선 초심자를 위한 실참실수, 발우공양, 108배 참회, 자아와 명상, 다도 등을 교육받는다. (0346)527-1951~3

태고종

제주종무원 불교강좌

제주종무원(원장 수암)은 도내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강좌를 6월 30일 개설했다. 강원을 설립하기 위한 전단계 불사로 마련된 불교강좌에서는 초발심자경문 치문을 교재로 한문 문법 해설에 역점을 둔다.

강의는 매주 수·토·일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7시30분, 종무원내 불교회관 3층 법당. (064)752-2810

천태종

관문사 부주지 춘광스님



서울 관문사 부주지에 변춘광스님이 임명돼 3일 취임식을 가졌다.

춘광스님은 1971년 구인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동국대 교육대학원 철학과를 졸업, 서울 성룡사 부산 삼광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총무원 교무부장을 맡고 있다.

진각종

제318회 임시종의회

6월25일 제318회 임시종의회를 개최하고 △미국 동부 워싱턴에 세번째 해외도량 신축 △청소년 사단법인 정관 심의, 명칭 '비로자나 청소년 문화교류협회'로 결정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청소년 사단법인체의 본사무소 소재지는 서울로 하고 대구를 비롯 6개 지부 구성을 결의했다.

대한법화종

원융학림 '법화경' 강좌

종단 부설 원융학림(총재 혜관)에서는 4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대법사에서 혜량스님을 강사로 〈법화경〉강좌를 실시한다. 사암 스님들과 신도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02)742-8234

총화종

수진사 청소년수련회

종단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련법회가 22~24일 2박3일간 수진사에서 개최된다. 또한 23·24일 양일간 종단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도 개최한다.

미타종

혜룡사 해외구호품 모집

광주 혜룡사 주지 혜우스님은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 불교국가에 보낼 옷, 신발, 학용품 등 생필품 등을 기증받고 있다. 8월경 물건들을 캄보디아에 보낼 예정인 스님은 사찰과 불자들이 관심갖고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062)225-2732

정토종

초대 종정 청암스님



한국불교 정토종이 창종, 6월 27일 마포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초대종정 청암스님 추대식, 초대 총무원장 지산스님과 각 원장, 부서장 취임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참가자들은 △불교포교에 앞장서서 호국불교 발전에 기여 △화합단결로 정토종 발전에 기여 △근검절약해 나라경제 회생에 기여 할 것 등을 결의했다. 정토종 총무원 (02)774-2378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시판

알림

▲여름불교학교·캠프 지원=좋은벗 풍경소리에서는 각 사찰의 여름불교학교와 캠프를 지원한다. 찬불가를 비롯한 음악자료와 프로그램 상담, 전문강사 지원 등. (02)2242-2567

▲여성실업자 가사보조원 취업교육=덕유사회복지관은 여성실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여성실업자 가사보조원 취업알선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이달말까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032)325-2161

▲무료법률상담=한국노인의전화는 12일~23일, 8월 2일~13일 두차례에 걸쳐 오전 9시~오후 5시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02)3141-8802

강좌

▲가빈문화원 국악교실=대흥사포교원은 10일 부터 가빈문화원 국악교실 초급반을 연다. 민요와 장구를 지도한다. (051)636-5114

▲박민수참선교실=박민수참선교육원에서는 일상수행요법으로서의 참선교실을 연다. (062)251-2733

▲종이접기교실=신도림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와 목요일 오전 10시 종이접기교실을 연다. (02)631-9792

▲어머니한글교실=선덕사는 매주 수, 목요일 오후 5시 30분 한글 배울 기회를 놓친 어머니를 위한 어머니한글교실을 개설한다. (062)263-4660

모집

▲사회복지사=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한다. 접수는 8일까지. (032)6770-108

▲이미용봉사자=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독거노인들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이미용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03-3677

▲결연후원자=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무의탁노인을 위한 생계비지원을 해 줄 결연후원자를 모집한다. (051)265-9471

▲장애인컴퓨터교실 자원봉사=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컴퓨터교실을 지도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989-4215

▲이웃돕기 봉사자=한국상록회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 (02)2227-0036

▲방충망서비스후원=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여름을 맞아 무의탁노인들의 가정의 방충망시설 설치를 위한 후원을 기다린다. 방충망, 폼대, 기타 공구용품. (02)203-3677

▲노인후원자=관음대비원에서 양로원 노인불자 후원자를 모집한다. (0348)958-3043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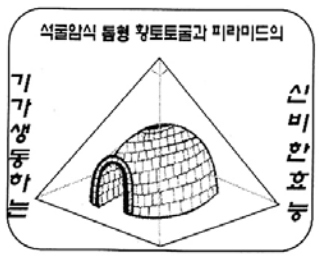
▲해금강·거제도=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해금강과 거제도로 답사기행을 떠난다. 유람선을 타고 해금강과 외도를 돌아보고, 옥포전적지, 거제포로수용소도 답사한다. (02)725-1284

부음

▲광동학원 윤덕호 법인사무국장의 부친이 6월 30일 서울 건대병원(구 민중병원)에서 별세했다.

황토 집(토굴)

나무 장작과 구들방, 그리고 황토 외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과 일체가 되는 살아 숨쉬는 황토 집을 짓겠습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 집(토굴)
● 자연식품+한약재 배합
● 황토 미장 특허
● 돔형 토굴체험 황토 벽돌 공장 견학
● 황토 사랑 모임회 월 1회 개최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017)585-6045/ 017)566-9969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염불 금강경 독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립고 지겹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율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에 한맺힌게 풀려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업.
◆ 장궤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와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봉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근,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와선호흡법, 수행상담 점검, 축원 기도 7회
◆ 넉넉한 복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정자 수행체험, 특별소원성취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십니다.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검,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고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차돌 암벽에서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끼가 끼지 않는 특급수)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라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진달래

누구에게 보이려
꽃망울 꽃을 피웠나

곱디고운 모습으로
함박 웃음 머금고

분홍빛 드리운
솜털 구름위로

그대 그리워 바라보며
분홍빛 가슴으로

얼굴 묻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탑골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 효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드폰 : 018-277-5592

범서 다라니 사경회원 모집(1차)
◈사경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불정존승 대다라니
◈사경기간
7월20일 ~ 10월17일(90일간)
◈기도회향
10월17일 (음, 9월9일)
◈모집기간(1차모집)
7월 20일까지
◈1차 동창금
50,000원(분납가능)
국민은행 570-01-0054-725 정토선원
사경방법
지도법사 도성스님이 직접 쓰신 체본을 가정으로 우편 발송 합니다.
앞으로 사경기도 할 다라니
수구즉득 다라니
불정능엄 대다라니
관세음보살 42수진언
전국 범서 다라니 사경회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15-5번지 .
☎(062)528~0108, 011-607-7504
범서 다라니 사경 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정토선원

범서 다라니 사경 회원모집

한마음선원 거사회 제1회 수련회 가져

철야정진·신행담 발표



한마음선원 거사모임인 법형제회(회장 명을식)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간 안양본원에서 1백4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 1회 수련회<사진>를 개최했다.

생활에 적용되는 마음공부의 방법과 점검 그리고 신심증장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 주지 혜원스님이 '마음공부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8개조로 나눠 4시간동안 열린 조별토론은 각 조의 담일스님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주인공인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부분의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회원들은 마음자리 찾기를 화두로 철야정진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 법형제회는 앞으로 회원들의 뜻에 따라 하반기에 한마음선원 각 지원의 전체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수련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법형제회는 참가회원을 대상으로 신행의식 설문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법형제회 거사불자들은 ▲수련대회를 자주 개최해 줄 것 ▲각 사찰(지원) 불자들과 교류 ▲스님과 정기적인 대화시간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부산진구 사암련 간담회

주지스님등 50명 참석

부산진구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총)는 6월 29일 부산진구청 청사 7층 대강당에서 부산진구불교사암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영일 부산진구청, 혜총 연합회 회장, 흥교 전 불교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진구 관내 사암의 창건주및 주지스님 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진구사암연합회의 활성화 모색을 위한 의견교환과 안영일 구청장에게 사찰 증,개축 등 행정에 관한 질의 및 건의의 시간을 가졌다. 천미희 기자

사명·초의·만해 용성·성철 스님 생가 성역화

유물관·수련원등 건립…정신교육장 활용

모든 것을 떨치고 출가의 길에 올라 민족사와 불교사에 큰별로 빛나고 있는 큰스님들이 다시 지역민의 빛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불교계 고승 생가복원및 주변 성역화작업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다.

밀양시가 사명대사(1544~1610), 무안군이 초의선사(1786~1866), 장수군이 용성스님(1864~1940), 홍성군이 만해스님(1879~1944), 산청군이 성철스님(1912~1993)의 생가를 복원하며 얼찾기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생가복원작업은 대부분이 올 8~9월 1차사업이 완료, 개관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이들 고승들의 생가복원사업은 불교계 큰 인물이 우리지역에서 났다는 자긍심을 지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큰스님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가르침을 되새길수 있는 문화교육의 장이 됨은 물론, 참배객들의 방문으로 지역관광과도 연계되어 향토문화유산을 알리는 좋은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도를 정립한 초의선사의 생가를 복원하고 있는 전남 무안군은 생가와 추모각 추모비건립 및 10헥타의 녹차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초의선사 생가는 8월 20일 1차 복원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어 2000년까지 기념전시관 다도체험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

경남 밀양시는 최근 2천4백평 부지에 정침 행랑채 곳간 대문과 협문 등 사명대사의 생가를 1차 복원한데 이어 올해내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주변토지도 매입하여 2002년까지 사당, 유물전시관, 주차장과 부속건물을 마련한다.

밀양시는 사명대사가 무술훈련하던 생가일대와 주변지역을 성역화 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기도 하다.

용성스님의 고향인 전북 장수군은 6월 11일 죽림정사 대웅전 상량식을 개최했다.

생가인 죽림리일대 4천여평에 진행중인 용성스님 생가복원기념사업은 2000년까지 대웅전 선방 요사채 종고루 생가 주차장이 들어서며 생가지주변 1만평부지에도 2003년까지 석상과 기념관 전시관 추념광장 33인벽화 선농교육단지 청소년수련원 야영장이 들어선다.

93년 열반한 성철스님 생가도 8월 22일 1차 완공된다. 경남 산청군은 성철스님 생가복원을 위해 총면적 2천5백평에 생가와 안채 사랑채 외삼문을 건립해 현재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금강재단과 백련불교문화재단은 200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생가옆에 법당과 성철스님의 유품을 전시하는 전시관도 착공했다.

한편 만해 한용운스님 생가와 사당을 건립해 매년 만해제를 열고 있는 홍성군은 9월 완공을 목표로 만해시비공원을 생가옆에 조성하고 있다. 만해시비공원에는 전국 유명시인들이 쓴 만해추모시를 돌에새긴 시비를 조성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청소년수련원도 건립해 만해스님의 자주정신과 독립정신을 청소년들의 마음에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자타일여 될 때 행복"

동화사서 고산스님 법문

대구 동화사(주지 성덕)는 1일 통일대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초청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고산스님은 법문을 통해 "미래에 인간이 생존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안에 타인을 받아들이고 자연과 함께하는 불교적 생활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유상종 동화사신도회장과 이상번 보현사신도회장의 취임식을 겸해 열린 이날 법회에는 보광원조실 화산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했다.

이윤호 기자

조계종 포교사 전문화 첫 교육

10일 부산서…청소년·자원봉사등 4개 분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이 실시하는 포교사 전문화 교육과정이 10일 부산에서 실시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포교사 전문화교육은 조직화되지 못했던 포교사들의 활동을 체계화하고 팀 활동을 활성화해 조계종 포교사 자격증을 가진 포교사를 포교일선에서 최대한 활용한다는 취지로 실시된다.

부산 경남 지역 전문화교육은 포교1분야(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포교), 2분야(군,경찰,교도소,소년원포교), 4분야(사찰안내,신행단체,직장포교)는 범어사(주지 성오)에서 포교3분야(염불봉사,자원봉사,복지시설,상담활동)는 불교복지보건대학에서 실시된다.

이번 전문화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각 분야별 조직체계 완비, 팀별 활동 계획서, 포교사단의 업무연계 등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금산사 프랑스에 소개

김제시 홍보단 출국

미륵성지 금산사가 프랑스에 소개된다. 김제시(시장 곽인희)홍보단은 미륵성지 금산사 소개를 위해 프랑스정부 초청으로 6월 28일 출국했다. 김제시는 이번 프랑스방문을 통해 미륵불교를 대표하는 미륵성지 금산사등 문화유적지를 집중 홍보, 문화·관광분야 교류증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세계불교엑스포 기금 조성키로

WFBY 대만서 이사회…2002년까지 60개지부 확대

세계불교우의청년회(이하 WFBY) 제34회 집행이사회가 11개국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6월 22~2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됐다.

기금조성과 조직·지도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WFBY는 세계불교도우의회와 함께 세계불교문화엑스포를 열어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오는 2002년까지 30개 회원국, 60개 지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불교청년들의 지도력 강화훈련 프로그램을 11월 2일부터 7일까지 태국에서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불교 여법사회 성순경 원장이 WFBY 고문으로 추대됐다.

WFBY 제35차 집행이사회는 2000년 4월 첫째 주 스리랑카에서 개최된다. 오종욱 기자

내년 경주문화엑스포

9월 1일~11월 10일

(재)문화엑스포는 6월 28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 행사설명회 및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유공자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제2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내년 9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71일간 경주보문단지 엑스포행사장 및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윤호 기자

종교편향대책위 옹진군에 항의문

연등행사 방해 사과 촉구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원혜·현진)는 6월30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앞으로 옹진군이 지난 6월8일 태고종 인천교구종무원 앞으로 보낸 백령면장의 종교편향 사례와 관련한 공문에 대한 추가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종교편향대책위는 이 공문에서 "5월8일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나라의 안녕과 통일을 기원하고 백령지역의 효도사상 함양과 관광홍보 차원에서 실시된 행사이며, 다만 행사를 주도하고 주최한 곳이 불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교행사로 규정한 것은 행정오류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공식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장기수 후원회 하계수련

10·11일 파주 보광사

불교장기수후원회(회장 성관스님)는 10·11일 파주 보광사에서 후원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기수와 함께하는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대회는 故 금재성씨 추모식과 장기수와의 대화시간, 체육대회등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한편 불교장기수후원회는 장기수들에게 생활비와 생필품을 후원해줄 회원 및 후원사찰을 모집한다. 02) 720~6763

김원우 기자

우리절 불사

천중사



◇천중사는 사찰의 자립경제를 확립할 목적으로 천중복지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있다. 원내는 주지 규범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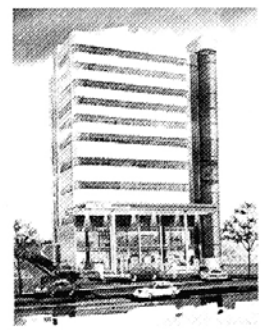
문화회관 건립 '도심포교'

시민선방·어린이집 갖춰 주유소 운영 재정자립

도시화와 산업사회 속에서 생산불교로 전환하기 위해 사찰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포교시설의 현대화 방안을 모색하는 도심사찰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 천중사(주지 규범)이다.

천중사는 사찰부지 도로변에 대지 5백평, 건평 4백평의 천중복지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있다.

천중복지문화회관이 완공되면 1층에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위해 주유소를 개설하고, 2층에는 사무실, 3층에는 포교와 신도교화를 위한 법당과 한방치료실 문화회관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1층의 주유소는 임대수익금으로 복지회관 운영의 필요자금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보다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감도

원래 10층규모로 설계된 천중복지회관은 시공회사의 부도로 1차 4개층이 다음달중 개원하며 6개층은 내년부터 새로 건립에 들어간다.

6개층이 완성되면 지방스님들이 쉴 수 있는 방사와 어린이 포교를 위한 어린이집·놀이방이 들어선다.

또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교양강화를 위해 시민선방 시민교양대학을 개설한다. 주변 노인들을 흡수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도 마련할 계획.

천중사 주지 규범스님은 "사찰의 경제구조를 개선해 자립사찰로 거듭나고 이에 바탕하여 생활불교교과와 문화복지포교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30년 비구니 선암스님(이충실)이 창건한 사찰인 천중사는 부주지 법현스님등 스님 10여명이 상주하며 매주 신도법회와 어린이법회, 가족법회, 중앙대동문회법회,상명대불교학생회법회, BBS통신원 가족법회등을 열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코스
밝은길 아봐타센터
◐아봐타 코스는 7·9일 강의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알 림

鏡峰 大宗師 열반 제17週忌를
맞이하여 큰스님의 추모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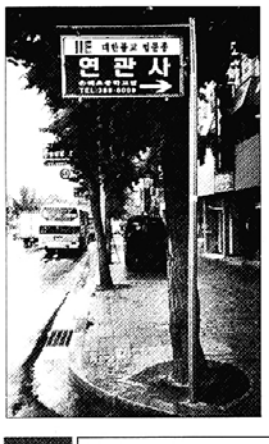
· 다 음 ·

■ 일시: 1999년 7월 10일
(음력 5월 27일) 오전 10시
■ 장소: 통도사 극락선원
■ 연락전화 : 0523)382-7083,7950
※경봉 장학회도 개최합니다.

불기 2543년 7월 일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선원

불·교·사·찰·안·내
간판 시공



■ 규격
- 종로구 80cm×40cm
- 그외 지역 110cm×55cm
- 개인소유지 : 제한없음

■ 재질 스텐레스
■ 허가 대행 및 A/S

취급 품목 사찰 안내간판, 사찰 연혁판, 건주용 간판, 게시판, 연등건기배선

※ 1차 설치되어 있는 기존간판은 정비, 자진철거 해드리겠습니다.
※ 지방출장 가능

신성기획 TEL: 02)3141-3789 02)332-3786 H.P: 016)336-3786

범우사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1 전화 : 717-2121 팩스 : 717-0429 인터넷 http://www.bumwoosa.co.kr 범우문고② 값 2,000원

혼탁한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정화수 같은 책

無所有
무소유



다시, 그 청청한 울림
일상에 가려져 있는 명징한 삶의 진리가
한 구도자의 목소리로
산사의 풍경소리처럼 찾아온다



법정(法頂)스님 / 강원도 산골 화전민이 살던 주인 없는 오두막을 빌려 홀로 텔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며, 청빈의 도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실천하고 계신 스님은 30년이 넘는 침묵과 무소유의 철저함으로 이 시대의 가장 순수한 정신으로 손꼽히고 있다

수행도량 관광지화 '몸살'

석남사 일주문 앞 상가건물 공사…갓바위 인근 케이블카 추진

비구니 수행도량인 석남사와 기도도량으로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선본사(갓바위) 주변에 위락, 관광지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울주군 석남사(주지 영운) 일주문 인근에 들어서는 음식점과 상업시설물들로 석남사와 울산시 환경단체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석남사는 조계종총무원이 비구니 특별수행도량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석남사 일주문에서 50m지점과 4백m지점에 상가건물 건립 공사가 진행되자 석남사 스님들과 신도, 환경단체는 6월 22일, 26일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문제의 상가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행환경 파괴는 물론 자연환경 훼손과 계곡 오염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울주군청 관계자는 "두 시설물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난 상태라 공사중지 및 건축허가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건축주 홍모씨도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공사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석남사는 "환경단체들과 연계해 사찰환경수호와 시민들의 젖줄인 가지산 계곡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과 자료 조사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대구 동구청이 팔공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본사(갓바위) 인근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사찰과 지역주민,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주)한경은 갓바위 시설지구에서 갓바위 부처님 부근 3백~4백m 떨어진 팔공산 정상까지 1.5㎞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계획하고 대구 동구청과 접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본사측은 "기도도량이 관광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도들은 "영험있는 갓바위 부처님 인근을 변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했다. 정성운·천미희 기자 (swjung@buddhapia.com)



◇석남사 스님들은 일주문 앞에 유흥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6월22일 공사 예정지에서 벌였다.

"석남사 상가공사 중지"
조계종, 울산시에 요청

조계종총무원은 6월 30일 울산시에 공문을 보내 석남사 일주문 앞 상가건물 공사중지와 청룡암 인근 환경오염업체 입주허가 철회를 요청했다. 총무원은 "두 사찰은 수행도량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의 정신적 휴양처로서 그 역할이 크다"며 "사찰환경의 경우에는 경제논리로서 법적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수행환경과 자연환경 보존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우란분절 49재 입재 '새 풍속도'

불교 5대명절의 하나인 우란분절(백중 음력 7월 15일·8월25일)을 앞두고 새 풍속도가 생겼다. 전국 사찰에서 우란분절에 회향하는 영가천도 49재(7·7재) 법회를 봉행하는 것.

해인사(주지 보광)는 7일 조상천도 지장기도를 입재하고(0599)931-1001. 금산사(주지 도영)도 8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선망부모를 위한 영가천도재 입재법회를 봉행한다. (0652)251-4942

용주사(주지 정락)가 8일 49일 영가천도 입재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며(0331)234-0040. 은해사는 4일 백중영가천도대법회 입재식을 가졌다(0563)335-3318. 이밖에 다른 사찰에서도 우란분절 맞이 영가천도법회가 열리며, 오는 8월 25일 우란분절날 일제히 회향법회를 갖게된다.

한편 새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석담, 진묵)는 칠석과 백중을 맞아 1일부터 결식아동돕기 생명해방 모금대회를 시작했다. 전국 50개 사찰에 자비의 모금함을 비치하고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김태복소장 군법당 시주금 재판' 공동변호인단 3백명 구성키로

예비역 군법사단

김태복소장 군법당 시주금 뇌물적용 재판과 관련 300명의 공동변호인단이 구성된다. 예비역 군법사단은 1일 불교진흥원에서 열린 회장단 모임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14일 오후3시 포교원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김태복소장 군법당 시주금 뇌물적용 재판 범불교도 대책위' 공동대표 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예비역군법사단은 또한 160여 회원 전원이 번갈아가며 고등군사법원 재판 방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불교법조인회, 국회 국방위원장을 잇달아 방문하기로 결의했다. 김재경 기자

설조스님 제적 확정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월서)은 6월 25일 심판부를 열어 설조스님에게 제적의 징계를 결정했다. 설조스님은 불국사 주지 재임시 총무원의 특별감사를 거부한 이유로 제소됐다.

지난 해 조계종사태와 관련돼 제소된 법타(은해사 주지), 월파(통도사 주지), 혜인(약천사 회주), 기연(천왕사 주지)스님에 대해서는 피제소인의 요청으로 심리를 연기했다. 정성운 기자

서울 관문사서 소백산 구인사까지
금강불교대생 3백명 '걷기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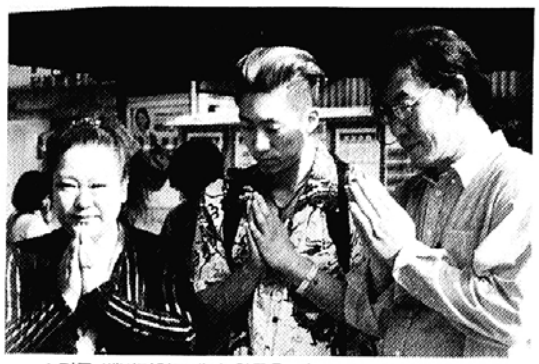
12일부터 5박6일…관세음보살 명호 부르며

천태종 금강불교대학 재학생 300명은 12일부터 17일까지 5박6일동안 서울 관문사에서 소백산 구인사까지 걷기 정진대회를 갖는다.

국민 대단결과 IMF 경제회복을 기원하며 갖는 이번 행사는 10일 오후 5시 서울 관문사에서 108배 의식으로 결제한 후 12일 오전 6시 시작, 하루 35㎞씩 총 200㎞의 거리를 6일동안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걷는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천태종 교육부장 도원스님은 "도보행진은 상행삼매(常行三昧)의 실천법으로써 천태지관의 4종 삼매중의 하나인 천태수행법"이라 소개하며 "몸으로는 오로지 길을 가며 입으로는 끊임없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며 마음으로는 관세음보살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극기수련을 통해 내면에 자리잡고 있던 번뇌를 걸러내고 순수한 자신의 내면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걷기정진대회의 회향은 17일 오후 3시 소백산 구인사 직멸보궁. 천태종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걷기수행을 매년 정례화 시킬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미국 베버리힐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서병후씨 가족은 틈나는대로 한국 사찰을 찾아 신행과 화목을 다진다.

미국서 '포교의 삶' 사는 서병후씨 가족

아버지 동양사상센터 설립
어머니 무드라연구 15년
아 들 불교적 힙합 노래

세 식구가 전문성을 살려 신행활동도 하고 포교도 한다. 그 주인공은 서병후씨 가족. 서씨가족들은 음악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 서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팝칼럼리스트, 부인 김모아씨는 그룹 와일드 캐처의 리더로 70년대 인기 록 댄서, 아들 서정권(타이거 J·K)은 현재 힙합계의 인기가수다.

이 세식구가 각자의 특기를 살린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고 있어 화제다. 국내 언론사를 비롯 대중음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다 89년 미국으로 건너간 서병후씨는 캘리포니아 베버리힐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부터 포교에 첫발을 내디뎠다. 수련생들에게 불교를 가르치기 시작한 서씨는 도장내에 동양사상센터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포교에 나섰다. 최근에는 불경영어시리즈 첫권으로 〈천수경〉을 영역한 〈수리수리마하수리〉를 내놓는 등 문서포교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70년대 록 댄서의 선구자로 불릴만큼 명성을 날렸던 부인 김모아씨는 15년전부터 무드라 연구가로 탈바꿈했다. 그는 "무드라속에는 우주의 진리가 녹아 있다"며 "불교의 진리가 함축된 각종 무드라의 동작을 종교적 예술로 승화하기 위해 맹훈련 중이다"라고 말한다. 무드라는 불교의 의식, 기도, 명상할 때 사용되는 필수적인 동작. 김씨는 조만간 무드라 발표회를 통해 본격적인 포교에 나선다는 굳은 각오를 갖고 있다.

아들 서정권은 드렁큰 타이거 멤버로 '타이거 J·K'로 알려진 인기힙합스타다.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등으로 우리나라 가요계에 힙합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다. "힙합은 삶의 체험에서 용솟음쳐 나오는 살아 있는 느낌, 고통과 즐거움의 표현이다"는 그의 노래에는 진한 불성이 녹아 있다. 부처님이나 각 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면 공덕이 있다는 진리를 알고부터다.

"'부처님' '관세음보살' 등의 용어가 삽입된 노래를 사람들이 따라 부른다면 이것도 포교의 한 방편이 아니겠느냐"며 불자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가 발표한 20여곡의 노래에는 모두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담고 있다.

불성이 담긴 랩을 불러 모든 사람들이 갈등과 폭력, 고독과 좌절 등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가 합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서병후씨는 "가족들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니 예전보다 더 화목해 졌다"고 말했다.

서씨에게 부인 김모아씨와 아들 정권군은 소중한 가족이자 불법을 믿고 실천하는 도반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무드라 연구가 김모아씨.

뉴스 & 뉴스

10일 신도법 개정 공청회

조계종 포교 및 신도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포교원(원장 정련)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지홍) 공동주최로 10일 오후4시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열린다.

'신도의 입교(등록), 교육, 수계, 조직, 활동 및 자격'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청회는 99년 종단 주요사업의 하나인 종헌 종법 개정 문제와 맞물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재가자의 교육 및 조직에 관한 전반적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지홍스님과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화암스님이 '신도교육 및 위계, 조직에 관한 신도 관련법 제·개정 기본안', '포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하며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02)720-7060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12일 승가대발전 공청회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과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지하)는 교육원 설립 및 승가대학 개혁 5년차를 맞아 승가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발전적인 교육종책을 마련하기 위해 12일 오후2시 조계사 불교회관 1층 회의실에서 '기본교육기관 승가대학(강원)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화엄학림 강사 원철스님과 송광사 강주 지운스님이 '승가대학의 현황과 발전과제-교수와 학인 정원제 시행은 발전의 요체', '전통을 중심으로 본 승가대학 발전의 일 대안'을 각각 주제발표 한다.

김재경 기자

현성스님 BBS 이사선임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29일 회의실에서 '제3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규 이사와 감사에 현성스님(중앙승가대 총장)과 배홍규(안건회계법인 회계사)씨를 각각 선임했다. 불교방송 재단이사장 도후스님을 비롯 10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영담스님(부천 석왕사주지)과 구형선이사를 연임시켰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불교 도농공동체 9월 창립

불교도농공동체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운영위원·집행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9월11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준비위원회는 또 창립에 앞서 불교도농공동체 운동본부가 추구해야 할 세계관 및 가치관과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8월20일 문화교육관에서 '연기적 세계관으로 본 도농공동체 운동'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토론회는 '불교 도농공동체 운동의 이념과 실천 과제' '문명대안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전망' 등에 대한 기조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와함께 지역 본부 결성 및 회원 확대를 위해 호남·영남·중부지역으로 나눠 지역 간담회도 갖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일정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본지 219호 참조>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해외성지순례특선

"민족의 영산 백두산/중국 5대 불산 천산 기도대법회"

▶특선1
출발일 1차 7월 19일 - 7월 23일 (4박 5일)
2차 8월 29일 - 9월 2일 (4박 5일)
3차 9월 4일 - 9월 8일 (4박 5일)
동참금 820,000원 / 1인

"지장보살의 화신 김교각스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장도량 구화산/관음도량 보타산"

▶특선2
출발일 1차 8월 16일 - 8월 21일 (5박 6일)
2차 10월 1일 - 10월 6일 (5박 6일)
동참금 890,000원 / 1인

"불자들을 위한 가을 금강산"

▶특선3
출발일 9월 14일 - 9월 17일 (3박 4일)
동참금 시중보다 할인 요금 적용

국내성지순례특선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영월 동강 여름 불교학교"

▶특선1
출발일 8월 10일 - 8월 12일 (2박 3일)
동참금 125,000원 / 1인
포함내용 래프팅, 어라연 트레킹, 캠프 파이어, 동굴 탐험등

"울릉도/독도 방생 기도 대법회 및 경주(낙산사/홍련암)"

▶특선2
출발일 10월 12일 - 10월 14일 (2박 3일)
동참금 경주 270,000원 / 1인 낙산사, 홍련암 250,000원 /1인

해외성지순례

순례조건: 항공 : 이코노미클래스 기준 / 호텔 : 2인1실 기준 / 공항세, 비자대 포함 / 한국어 안내인 동행 일정에 명기된 전지역 순례 및 공양 포함 / 1억원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 10인 이상시 출발 가능

	순례지	동참금 일급호텔	동참금 특급호텔	출발일	비고
중국	백두산/연길/심양4일	720,000		7월 19일/8월 29일/9월4일	전일정 특급호텔 이용
중국	백두산/연길/북경 6일	860,000		7월19일/8월29일/9월4일	전일정 특급호텔 이용, 써커스, 북경오리구이
중국	구화산/보타산/황산 7일	960,000		8월16일/10월1일	
중국	아미산/낙산/대족 7일	1,510,000		매 일	
중국	장강삼협/아미산/낙산/대족 10일	1,850,000	2,200,000	매 일	장강 유람시 유람선 차이
중국	구채구/황룡구/성도7일	1,530,000		매 일	
중국	돈황/우루무치/북경 7일	1,750,000		월,목,토요일	
중국	곤명/대리/시쌍판나/지공화상유적지10일	1,980,000		월,목,토요일	
중국	곤명/대리/시쌍판나8일	1,900,000		월,목,토요일	
중국	내몽고/오대산/북경 8일	1,250,000		매 일	
중국	티벳 12일	2,550,000		화,수,금요일	
중국	티벳 걷망 11일	1,950,000		7월28일/8월28일	국제선항공료전문안내인 등행, 공항세 및 출국세, 전용차량,숙박 및 조식 1억원 해외 여행자 보험 포함
	스리랑카 6일	1,280,000		수요일	
	미얀마/태국 7일	1,590,000		매 일	
	미얀마 6일	1,490,000		수요일	
	캄보디아/베트남 5일	1,400,000		금요일	
	라오스/캄보디아 9일	2,350,000		목요일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 5일	1,150,000		매 일	
	대만 불광사/일월담/화련 4일	850,000		매 일	발리/족자카르타 전일정 특급호텔 이용
일본	북큐유슈우 6일	750,000		일요일	
일본	오키나와 4일	990,000		목요일	
일본	홋카이도 4일	1,190,000		월요일	오키나와/나하 치토세/삿포로/시라오이/도야/노보리벳츠
인도	인도8대성지9일	기후관계로 9월부터 가능			
인도	인도8대성지/아잔타. 엘도라/산치13일				

Prajna (주)반야여행사 문의 및 접수 (代) 02-730-0020

"자기 부처 찾아라" 육성 들리는듯…

구산선문 참선기행

6월-사굴산문

마을 전체가 절터인듯 성보 산재
제자 낭원스님 보현사에서 맥이어
주민들 개산조 국사신으로 받들어



◇사굴산문의 맥을 이은 보현사 만월보전에서의 참선 정진.

기행단이 먼저 찾은 곳은 강릉 정동진에 자리잡은 등명낙가사(주지 청우)였다. 새벽 3시에 도착, 어둠이 짙은 등명낙가사의 일주문 앞에서 희뿌연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듣는 도량석 목탁소리와 만물을 깨우는 사물의 청정한 범음은 속세에서 묻혀 온 먼지를 말끔히 씻어 내리기에 충분했다.

사굴산문(闍崛山門)의 중심지인 굴산사(崛山寺)터를 바로 찾아가지 않고 이곳을 찾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곳이 구산선문의 역사처럼 끊어질 듯 하면서도 다시 살아나는 불교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가람이었기 때문이다. 숭유억불 정책을 펴던 조선왕조는 경복궁의 정동(正東)에 위치한 등명낙가사를 없애면 동서남북의 사찰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믿고 절을 없앴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절은 조선왕조 5백년의 침묵을 딛고 1956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경덕스님에 의해 호국룡일기원 나한도량으로 되살아났다.

기행단은 이어 사굴산문의 본산인 굴산사를 찾았다. 하지만 굴산사터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마을 전체가 굴산사터를 차지하고 있었다.

범일국사의 탄생지라고 전해내려 오는 마을 가운데 위치한 석천, 범일국사의 부도로 알려져 있는 뒷동산의 굴산사지부도탑(높이 2.05m),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높이 5.4m)를 자랑하는 당간지주, 풍글고 긴 안면 골격과 광면적인 신체 등 구상적인 표현이 현대미술품을 연상케 하는 석불좌상 등이 마을 논·밭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어 통일신라시대의 웅대하고도 힘찬 기상, 소박한 자연주의 미를 드러내며 당시 산문의 규모를 짐작케 했다.

굴산사터가 마을로 변한 것은 아마 창건 설화와도 연관이 있는 듯하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사굴산문의 개창자인 범일(810~889) 국사는 당나라에 유학했을 때 명주 개국사에서 왼쪽 귀가 떨어져 나간 한 스님을 만났다. 그 스님은 신라인으로서 범일국사가 귀국하거든 자신의 집을 지어줄 것을 간청했다. 귀국 후 범일국사가 그의 청에 따라 그가 고향이라 일러 준 곳, 바로 사굴산 아래에 굴산사를 지은 것이 사굴산문을 진작시킨 계기였다고 한다. 사굴산문이 사라진 뒤에도 이곳은 집짓기에 좋은 땅이었는가 보다.

'광소의 마음이 곧 도(平常心是道)'라고 강조한 범일국사의 가르침에서 특이한 것은 유명한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이다. 진성여왕이 불교의 선(禪)과 교(敎)의 뜻을 물은데 대한 답변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친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 그 뒤 진귀조사를 만나 무상정등정각을 얻은 것이 바로 조사선(祖師禪)의 경지다"고 설해 여래선(如來禪) 보다 우월한 조사선을 주장한 점이다.

이날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임호민 연구원의 향토사를 가미한 안내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다. 굴산사터가 학산리 마을로 변했듯이 범일국사 역시 오늘날 이곳 주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1800년대 이후 범일국사는 강릉 단오제(무형문화재 13호)의 주신인 '대관령 국사 성황신(國師 城隍神)으로 모셔지고 있었다. 스님의 높은 덕을 사모한 이곳 주민들이 수백년의 억불시대를 거치면서도 그를 사모해 국사신으로 받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하늘을 찌르던 선풍도 행적·신의·개청스님 등 제자시대 이후에는 고려태조의 후원을 입은 보현사로 그 유훈을 넘겨야 했다. 범일의 법을 전해 받은 낭원 개청(854~930)스님은 보현사에 지장선원을 세우고 사굴산문의 전통을 이어갔다. 이후 사굴산문의 맥은 보현사를 통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강릉에서 10km 떨어진 만월산 깊은 계곡에 자리잡은 보현사에는 낭원대사부도(보물 191호)와 계곡 곳곳에 서린 용맹정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사굴산문의 엄정한 선기(禪氣)를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산하고 있었다.

"앞 뒤 사람을 바라보고 돌아볼 것도, 더 이상 닦고 얻을 바도 없는 본래 부처로서의 철두철미한 자기 본분의 자각을 수행의 목표로 삼으라."

사굴산문을 떠나는 참가자들의 귀에 수행자의 본분에 대한 법일국사의 말씀이 들리는 듯 하다.

글=김재경 기자(g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go@buddhapia.com)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임호민 책임연구원의 안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굴산사지 당간지주(보물 86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기행단.



◇범일국사의 탄생지로 전해지는 석천(石泉). 그 앞에 있는 것이 머리없는 석불좌상(강원도 문화재자료 38호)이다.



◇굴산사지 부도탑(보물 85호). 범일국사의 부도라고 전해져 온다.

개산조 범일국사

평상심이 도란 말에 깨우쳐

휘가 범일(梵日), 품일(品日), 성은 김(金), 계림의 관족(冠族) 출신이었다. 810년(헌덕왕 2) 1월 10일 어머니의 태중에서 13개월만에 나발정주(螺髮頂珠)의 특이한 상을 갖고 태어났다. 824년 15세에 출가하여 831년(흥덕왕 6) 왕자 김의종을 따라 당나라로 갔다. 선사 염관 제안(鹽官 齊安)으로부터 '참으로 동국의 보살이다'는 칭찬을 듣고 6년간 그의 문하에서 정진했으며, '평상심이 곧 도'라는 말에 크게 깨쳤다. 뒤에 약산(藥山)의 선사 유엄(惟儼)을 찾아가 도를 물고 천하를 주유하였다. 844년 법난을 만나 곤경을 피해 상산(商山)에 가서 육조스님의 탑에 참배한 뒤 847년(문성왕 8) 귀국했다.

850년 백달산에서 정진하다가 명주 도독 김공(金公)의 청으로 강릉 사굴사(굴산사)를 세우고 종풍을 크게 떨쳤다.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 등의 귀의를 받았으며, 이 왕들이 국사로 청했으나 끝내 거절하고 40여년 동안 절에만 머물면서 교화를 계속해 사굴산문의 개조가 되었다.

889년(진성왕 3) 5월 1일 사굴사에서 세수 80, 법랍 65년으로 입적했다. 시호를 통효(通曉)국사, 탑호를 연휘(延徽)라고 했다.

등명낙가사

자장율사 창건…'수중보궁' 전설

강원도 태백산맥의 정동에 위치한 이 절은 1300여년전 신라 선덕영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절이다. 처음엔 수다사(水多寺)라고 했으며, 고려 초기에 등명사(燈明寺)로 개명했다.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에 바다 건너 왜침을 막고자 수중보궁을 모셨다고 하나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절은 옛 등명사터에 1956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경덕스님이 새로 지은 것이다. 선덕영왕 때 창건했다는 아담한 오층석탑(강원도 유형문화재 37호)이 눈길을 끌며, 오백나한전이라 불리우는 영산전에는 유근형씨가 상감기법으로 제작한 상감청자 오백나한이 봉안돼 있다.

보현사

보현보살이 점지한 나한도량

신라 때 천축국에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강릉 동남쪽 남항진 해변에 문수사(지금의 한송사)를 세웠다. 이때 보현보살은 "한 절에 두 보살이 함께 있을 수 없다"며 시위를 당겨 화살이 떨어진 곳에 보현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나한도량으로도 유명한 보현사는 913년(신덕왕 2) 낭원 개청(朗圓 開淸)스님이 크게 중창하고, 지장선원을 열어 전국의 학승들을 가르쳤다. 1904년 중건이후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보전과 영산전 삼성각, 만월당, 범종각, 요사채가 있다. 1904년 중건된 대웅보전에는 청나라 사람의 옷차림과 모자를 쓰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의 신중상(神衆像)이 특이하다. 문화재로는 940년(고려 태조 23)에 세운 낭원대사오진탑과 낭원대사오진탑비(보물 192호)가 있다.

부다피아 쇼핑몰 여름 선물 특선

부다피아 티셔츠



불교 전통창살문양 손수건

•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창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 재질:순면 100% ▪ 인쇄:나염인쇄 (칼라)
▪ 가격:₩5,000



용문사 대웅전



금산사 대장전



대승사 대웅전



봉은사 대웅전



불국사 대웅전



은해사 대웅전



쌍계사 대웅전



신흥사 극락보전



신흥사 극락보전



중심사 대웅전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며 연꽃 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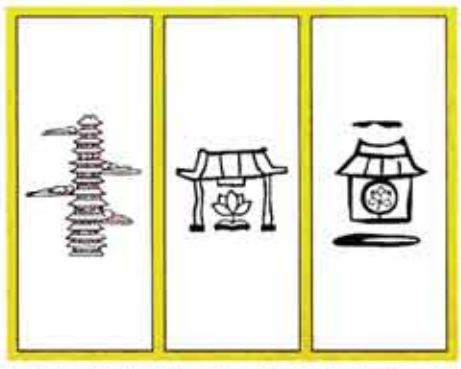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 나팔

▪ 재질:순면 100% (20수)
▪ 색상:흰색
▪ 인쇄:나염인쇄 (칼라)
▪ 가격:₩7,000

10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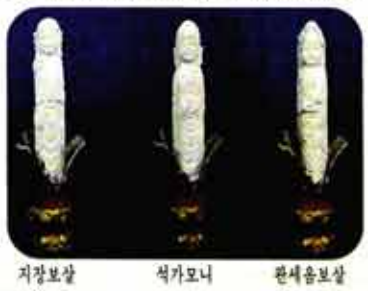
▲ 다포
▪ 크기:50cm × 39cm
▪ 가격:₩800

◀ 기도포
▪ 크기:84cm × 39cm
▪ 가격:₩1,600

기도포 100장, 다포 200장 주문시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현상공덕향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지장보살 석가모니 관세음보살

현상공덕향은 외형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연꽃문양 좌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 후 약 20여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형상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타고난 다음에 향 연기는 소멸되고 법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 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형과 겉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어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재일 및 법회와 방생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 가격:₩8,000(3개 ₩21,000)
▪ 재조원:金城通商 ▪ 판매원:몰·부다피아

부다피아 쇼핑몰 주문방법
• 전 화 02-732-1522/737-8881
• 팩 스 02-737-0697
• 인터넷 http://mall.buddhapia.co.kr